

이 순 홍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현대 여성 니트웨어 디자인의 표현 양식에  
관한 연구

- 1995년 이후 컬렉션을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최경희

현대 여성 니트웨어 디자인의 표현 양식에  
관한 연구

-1995년 이후 컬렉션을 중심으로-

이 순 홍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최경희

## 논문개요

최근의 현대 니트웨어는 다양한 테크닉과 창조적인 감각의 디자인으로 인해 ‘대중적인 아트 패션(Common Art Fashion)’으로서 새로운 룩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감성과 기술적 기능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예술적인 기술’ 즉 아트 테크놀로지(Art-Technology)라고 할 수 있다.

현대 패션에서 새로운 패션분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니트웨어 제품의 개성화, 고급화, 전문화를 위해서 보다 창의적이고 독특한 감각의 니트웨어가 생산될 수 있는 방안들이 다각도로 모색되는 가운데, 패션 산업에서의 니트웨어 디자인 분야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의 구조와 독창적인 디자인의 개발, 기능적인 신소재 및 다양한 패턴, 조직에 의한 편직 기법과 미적 가치가 있는 신제품 개발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고 생산 공정 자동화에 대한 투자와 창의적인 니트웨어를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5년 이후의 컬렉션에 발표된 작품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대 니트 산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패션 이미지에 따른 니트웨어 디자인의 대표적인 표현 양식과 표현 기법의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유행 아이템으로서의 니트웨어 디자인을 위한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고감도의 니트웨어 디자인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대 니트웨어는 기능적이고 실용성이 있는 패션으로서 대중화를 목표로 새로운 기술 혁신과 무봉제의 홀 가먼트가 실현되는 가운데, 현대 니트 산업의 현황을 기술적 측면, 공예적 측면, 토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무봉제니트, A-POC, 신소재 개발 등의 기술적 발전의 영향을 받아 인체공학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의 니트 생산의 구축을 이루어나가고 있으며, 공예적 측면에서의 니트웨어 현황은 니트의 특수한 질감을 살린 소재의 변화, 주제의 다양성과 표현 기법에 따른 수공예적 기법을 통한 예술적 미의 추구를 들 수 있다. 특히 1995년대 이후에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아트로서의 니트웨어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복합적인 표현 양식과 다양한 주제의 니트웨어 작품을 미술의상 분야로 발전시켰다.

현대 니트 디자인의 또 하나의 현상은 토탈화로서 니트웨어 디자인의 아웃웨어화와 의상 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인테리어 전반에까지 토탈 패션화에 따른 다양한 품목의 감각적인 니트류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현대 패션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아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 나타난 표현 양식은 캐주얼, 레트로, 에콜로지, 에스닉, 테크놀로지, 헤체주의로 크게 분류되며 그에 따른 다양한 패러다임 속에서 독창적인 조형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즉 현대 패션 이미지에 따른 니트웨어 디자인은 스포츠, 레저 등의 활동적이고 캐주얼 감각을 지향하는 외에도 지속되는 복고풍의 유행 속에서 빈티지, 노스텔직한 이미지 등이 많이 나타났으며, 신소재 및 신기술의 발달은 미적 감각과 믹스되어 새로운 기술의 미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심미적이고 독창적인 감각을 중시하여 날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디자인의 장식화와 불확정성과 헤체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원화된 표현 기법으로 표현되는 헤체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서의 표현 기법은 손뜨기와 기계뜨기를 중심으로 하는 뜨기 기법, 기본조직부터 변화조직까지의 조직에 의한 표현 기법, 다양한 소재의 개발과 함께 날로 기능화되고 새로워지는 소재에 의한 표현 기법 외에도 공예적 기법의 혼합적 표현 기법과 비즈, 자수 등의 장식적 표현 기법에 의한 장식 기법으로 구분되었다.

이처럼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표현 양식과 표현 기법은 과거보다 더욱 장식성과 심미성을 강조하고 복합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뜨기와 섬유공예의 다양한 기법을 접목시킨 보다 자유롭고 독창적인 조형미를 창출하고 있다.

향후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은 신기술에 의한 기능성을 갖춘 하이 테크놀로지 신소재와 염색, 가공 기술의 발달 및 편직 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함께 다양한 소비자의 니드에 부합하는 독창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의 개발로 미래 패션의 아이템이 될 것이다.

# 목 차

## 논문 개요

<b>I. 서론</b> .....	1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b>II. 니트의 이론적 배경</b> .....	6
1. 니트의 개념과 특성.....	6
2. 니트의 변천 과정.....	8
<b>III. 현대 니트웨어의 시대적 고찰 및 현황</b> .....	28
1. 복식사적 배경.....	28
1) 도입기.....	28
2) 보급기.....	31
3) 발전기.....	34
4) 성숙기.....	38
2. 현대 니트 산업의 현황.....	45
1) 기술적 측면에서의 현황.....	45
2) 공예적 측면에서의 현황.....	51
3) 토탈 패션에서의 현황.....	59
<b>IV.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 분석</b> .....	69
1. 패션 이미지에 따른 표현 양식.....	69
1) 캐주얼.....	73
2) 에콜로지.....	74
3) 에스닉.....	78

4) 레트로.....	79
5) 테크놀로지.....	84
6) 해체주의.....	86
2.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표현 기법.....	97
1) 뜨기 기법.....	97
2) 조직.....	100
3) 소재.....	105
4) 장식 기법.....	107
<b>V. 결론 및 제언.....</b>	<b>125</b>

**참 고 문 헌**

**ABSTRACT**

## 그림 목차

<그림 1> 돌려뜨기로 짠 곱트인의 양말, 2C.....	26
<그림 2> 넬바인딩 기법의 편물조각, 3C .....	26
<그림 3> 넬바인딩 작업방법.....	26
<그림 4> 넬바인딩 기법의 양말, 5C.....	26
<그림 5> 아라비아의 영향을 받은 편물조각, 10C~12C.....	26
<그림 6> 사제들의 미사용 허리띠, 13C.....	26
<그림 7> 페르난도 무덤에서 출토된 쿠션의 문양, 13C.....	26
<그림 8> 유물 보관 주머니, 14C.....	26
<그림 9> Bertram이 그린 편물하는 성모, 14C.....	26
<그림 10> 금색의 실크로 만들어진 트렁크 호즈, 16C.....	27
<그림 11> 브리치즈 착용의 장식적인 스타킹, 1616년.....	27
<그림 12> 남자 승마용 양말, 17C.....	27
<그림 13> 모로 된 귀덮개용 모자, 16C.....	27
<그림 14> 아코디언 주름이 잡힌 모자, 16C.....	27
<그림 15> 찰스 1세의 웨이스트 코트, 1649년.....	27
<그림 16> 실크와 금사로 짠 소매가 없는 조끼, 16C.....	27
<그림 17> 스페인의 성찬식 장갑, 16C.....	27
<그림 18> 편물기법으로 짠 카펫, 17C.....	27
<그림 19> 18C와 19C의 가정 수예용 니트 소품.....	27
<그림 20> 테니스치는 수잔 랭글러, 1922년.....	43
<그림 21> 샤넬 슈트를 입은 코코 샤넬, 1929년.....	43
<그림 22> 엘자 스키아빠렐리의 착시 디자인의 스웨터, 1927년.....	43
<그림 23> 웨어 아이슬 스웨터를 입은 Wales 왕자.....	43
<그림 24> 아란니트, 1936년.....	43
<그림 25> 전쟁 후 잡지에 실린 니트웨어, 1946년.....	43
<그림 26> 1950년대 트윈세트 니트웨어.....	43
<그림 27> 1950년대 조직변화를 준 니트웨어.....	43
<그림 28> 1960년대 리브드 바디슈트.....	43
<그림 29> 크로셰 니트 원피스를 입은 Twiggy, 1966년.....	44
<그림 30> 시스루 레이스 조직의 니트 드레스, 1960년.....	44
<그림 31> Kenzo의 에스닉 룩, 1981 F/W.....	44
<그림 32> Joseph Tricot의 그래픽한 손뜨개 니트웨어, 1986 F/W.....	44

<그림 33> Dorothbée Bis의 멀티컬러의 'Escalier' 니트 코트, 1973년	44
<그림 34> 스톨社의 멀티 게이시 무봉제 니트 드레스, 2003 S/S	64
<그림 35> Alexander McQueen의 무봉제 니트 드레스, 2004 F/W	64
<그림 36> Intergral Knitting	64
<그림 37> A-POC Queen, 1999 S/S	64
<그림 38> Issey Miyake의 A-POC Collection, 1999 S/S	64
<그림 39> Issey Miyake의 A-POC Aline, 1999 F/W	64
<그림 40> Issey Miyake의 A-POC Eskimo, 1999 F/W	64
<그림 41> Issey Miyake의 A-POC 전시회, 1998년	64
<그림 42> Kate Carrick, Sculpted Knitting, 1995년	64
<그림 43> Issey Miyake의 울트라 스트레치 니트, 2000 S/S	65
<그림 44> Missoni, 멀티 다이드안, 2001 F/W	65
<그림 45> Sonia Rykiel, 착시효과의 초현실적 니트웨어, 2004 F/W	65
<그림 46> Sonia Rykiel, 인물화로 장식한 니트웨어, 2002 F/W	65
<그림 47> Jean Charles de Castelbajac, 팝아트풍 니트웨어, 2004 F/W	65
<그림 48> Missoni, 회화풍의 자카드 니트 드레스, 2004 S/S	65
<그림 49> Yoichi Nagasawa, 모네 작품을 표현한 니트 드레스, 2000 S/S	65
<그림 50> Prada, 스팅클 장식의 니트 드레스, 2002 F/W	65
<그림 51> Yuki Torii, 프린팅과 멩크 장식의 가디건, 2004 F/W	65
<그림 52> Missoni, 입체적인 텍스처 효과의 니트 코트, 2004 S/S	66
<그림 53> Yuki Torii, 깃털을 이용한 니트웨어, 2004 S/S	66
<그림 54> Sonia Rykiel, 폴라주 기법의 니트 드레스, 1999 F/W	66
<그림 55> Yoichi Nagasawa, 폴라주 기법의 니트웨어, 2003 S/S	66
<그림 56> Marina Spadafora, 라피아(raffia) 소재의 니트 드레스, 1998 S/S	66
<그림 57> Karl Pinfold, Leather cut-out knitting, 2000년	66
<그림 58> Alexander McQueen, 테이프사를 이용한 니트웨어, 1999 S/S	66
<그림 59> Susanna Lewis, Moth Cape, 1979년	66
<그림 60> Sharron Hedges, Lydia's Coat, 1975년	66
<그림 61> Janet Lipkin, Flamingo, 1982년	67
<그림 62> Linda Mendelson, Christine's Poncho, 1985년	67
<그림 63> Norma Minkowitz, Clock, 1975년(Come Fly with Me)	67
<그림 64> Susanna Lewis, Pictured Poncho : New York City, 1984년	67
<그림 65> Susanna Lewis, Oz Socks, 1978년	67
<그림 66> Susanna Lewis, Off we go into Wild Blue Yonder, 1977년	67
<그림 67> Linda Mendelson, I Made My Song a Coat, 1976년	67

<그림 68> Comme des Garçons, 컬러 코오디네이트된 스타킹, 1996 S/S	67
<그림 69> Vivienne Westwood, 손뜨개 울 스타킹, 1994 F/W	67
<그림 70> Simone Memel, Homage á Monroe(몬로를 존경한다), 1995년	68
<그림 71> Issey Miyake, 모피와 모사로 짜여진 머플러, 2004 F/W	68
<그림 72> Nora Fok. Shoots Ring, 2001년	68
<그림 73> Nora Fok. Food Chain, 1999년	68
<그림 74> Niki Jones. Stalalights, 1998년	68
<그림 75> Marcia Windebank. Knitted Bowl, 2000년	68
<그림 76> Castelbaljac, 인타샤 기법의 캐주얼한 니트웨어, 2004 F/W	92
<그림 77> Paul Smith, 스포티 감각의 니트웨어, 2004 F/W	92
<그림 78> Fake London, 강한 배색의 캐주얼한 니트웨어, 2003 F/W	92
<그림 79> Fake London, 멀티 스트라이프 배색의 가디건, 2003 F/W	92
<그림 80> Donna Karan의 바이어스 결의 문양 배색의 니트웨어, 2000 F/W	92
<그림 81> Fake London, 염색기법과 숫자를 배색한 니트웨어, 2001 F/W	92
<그림 82> Trussardi, 유니섹스풍 니트 점퍼, 2004 F/W	92
<그림 83> Paco Rabanne, 토탈 레이어드된 니트웨어, 2002 F/W	92
<그림 84> Sonia Rykiel, 스트라이프와 로고 장식의 니트웨어, 2003 F/W	92
<그림 85> Yoichi Nagasawa, 에콜로지풍 니트웨어, 2004 F/W	93
<그림 86> Moschino Cheap & Chic, 아플리케 장식 스웨터, 2001 F/W	93
<그림 87> Issey Miyake, 자연주의풍 니트 드레스, 1997 F/W	93
<그림 88> Givency, 크로셰 기법의 자연주의풍 니트 드레스, 2004 F/W	93
<그림 89> Alexander McQueen, 원시주의풍 니트웨어, 2000 F/W	93
<그림 90> Yuki Torii, 깃털을 섞어 짠 원시주의풍 니트 재킷, 2004 S/S	93
<그림 91> Missoni, 아프리카풍의 에스닉한 스웨터, 2002 F/W	93
<그림 92> Alexander McQueen, 아프리카풍의 에스닉한 스웨터, 2003 F/W	93
<그림 93> Yoichi Nagasawa, 아프리카풍의 에스닉한 스웨터, 2004 F/W	93
<그림 94> Anna Sui, 중남미풍의 에스닉한 니트 망토, 1999 F/W	94
<그림 95> Anna Sui, 패치워크로 만든 에스닉풍 니트웨어, 1999 F/W	94
<그림 96> Julien Mcdonald, 레이스 문양의 니트 드레스, 1996 F/W	94
<그림 97> Julien Mcdonald, 중세풍의 니트 드레스, 1998 F/W	94
<그림 98> DKNY 컬렉션, 빈티지풍의 머플러, 2004 F/W	94
<그림 99> Yuki Torii, 빈티지풍의 니트웨어, 2001 S/	94
<그림 100> Fendi, 크로셰조직의 빈티지풍 드레스, 2000 S/S	94
<그림 101> Les Copains, 노스텔직한 앙상블 니트웨어, 2000 F/W	94
<그림 102> Prada, 크로셰 기법의 1960년대 풍 니트 드레스, 2005 S/S	94

<그림 103>	Anna Molinari, 레이스 조직의 노스텔직한 니트 드레스, 1997 S/S	95
<그림 104>	Sonia Rykiel, 1980년대 풍의 노스텔직한 니트웨어, 2000 F/W	95
<그림 105>	Sonia Rykiel, 1920년대 풍의 노스텔직한 니트웨어, 2000 F/W	95
<그림 106>	Laura Biagiotti, 극세번수 소재의 니트웨어, 2001 S/S	95
<그림 107>	Alexander McQueen, 극세사의 미래풍 니트웨어, 2004 F/W	95
<그림 108>	Giorgio Armani, 게이저리스 무봉제 니트웨어, 2004 F/W	95
<그림 109>	Giorgio Armani, 슬래쉬 효과의 무봉제 니트웨어, 2004 F/W	95
<그림 110>	Escada, 메탈릭사로 만든 하이테크 광택의 니트 코트, 1999 S/S	95
<그림 111>	Yohji Yamamoto, 한쪽 어깨에 백이 달린 가디건, 2001 F/W	95
<그림 112>	Alexander McQueen 해체주의적 니트 드레스, 2002 F/W	96
<그림 113>	Yoichi Yamamoto, 미가공된 채 레이어드된 니트웨어, 1996 F/W	96
<그림 114>	Testu, 왜곡된 형태의 니트웨어, 2000 F/W	96
<그림 115>	Vivienne Westwood, 해체주의적한 가디건, 2004 F/W	96
<그림 116>	Vivienne Westwood, 해체주의적 니트웨어, 2004 F/W	96
<그림 117>	Jan & Carlos, 비대칭으로 왜곡된 니트웨어, 2002 S/S	96
<그림 118>	Comme des Garçons, 해체주의적 니트웨어, 1995 F/W	96
<그림 119>	Atsuro Tayama, 비틀고 접혀진 해체주의적 니트 드레스, 1998 F/W	96
<그림 120>	Hussein Chalayan, 장갑이 달린 니트 드레스, 1998 S/S	96
<그림 121>	Russel Sage, 대바늘뜨기 기법, 2002 F/W	115
<그림 122>	Dolce & Gabbane, 셔닐사를 사용한 손뜨기 기법, 2002 F/W	115
<그림 123>	DKNY 컬렉션, 전통문양의 손뜨기로 만든 니트웨어, 2002 F/W	115
<그림 124>	Les Copains, 코바늘뜨기 기법, 2002 F/W	115
<그림 125>	Anna Sui, 수공예적인 코바늘뜨기로 만든 니트웨어, 2002 F/W	115
<그림 126>	Les Copains, 코바늘뜨기로 만든 에스닉한 니트웨어, 2002 F/W	115
<그림 127>	Missoni, 입체적인 질감을 살린 기계뜨기 기법, 2002 F/W	115
<그림 128>	Missoni, 기하학 문양의 기계뜨기 기법, 2004 F/W	115
<그림 129>	TSE 컬렉션, 인타샤를 사용한 기계뜨기 기법	115
<그림 130>	Laura Biagiotti, 굵기 차이를 준 겹뜨기 기법, 2001 F/W	116
<그림 131>	Betty Jackson, 런업 현상을 살린 겹뜨기 기법, 2001 F/W	116
<그림 132>	Alberta Fereti, 겹뜨기 기법의 2개 입은 듯한 니트웨어, 2002 F/W	116
<그림 133>	Les Copains, 다양한 조직을 매치한 니트웨어, 2002 S/S	116
<그림 134>	Betty Jackson, 무봉제 니트에서 만든 고무뜨기, 2001 S/S	116
<그림 135>	Vivienne Westwood, 가터뜨기의 에콜로지풍 니트웨어, 2000 F/W	116
<그림 136>	Dolce & Gabbane, 가터뜨기의 가디건과 백, 2002 F/W	116
<그림 137>	Sonia Rykiel, 멀티 스트라이프 배색된 양면뜨기, 2002 F/W	116

<그림 138> Marc Jacobs, 양면조직과 고무뜨기의 모던한 니트웨어, 2002 S/S	116
<그림 139> Zng Toi, 아란무늬의 니트 양상블, 2001 F/W	117
<그림 140> Les Copains, 교차뜨기 니트웨어 2002 F/W	117
<그림 141> Les Copains, 교차뜨기 니트웨어, 2000 F/W	117
<그림 142> Laura Biagiotti, 교차뜨기의 무봉제니트, 2005 S/S	117
<그림 143> Marc jacobs, 심플한 모크 케이블 조직, 2004 F/W	117
<그림 144> Angela Missoni, 끌어올림 무늬뜨기의 니트 드레스, 1997, F/W	117
<그림 145> Sonia Rykiel, 요철감을 준 무늬뜨기의 니트 코트, 2001 F/W	117
<그림 146> Yuki Torii, 레이스 뜨기의 니트 드레스, 2004 F/W	117
<그림 147> John Galliano, 레이스 뜨기의 니트 드레스, 1998 F/W	117
<그림 148> Mark Jacobs, 레이스 뜨기의 니트웨어, 2004 F/W	118
<그림 149> Marc Jacobs, 배색으로 강조한 겹뜨기 기법의 가디건, 2005 S/S	118
<그림 150> Missoni, 스트라이프 배색 자카드 니트웨어, 2004 F/W	118
<그림 151> Dris Van Noten, 자카드 조직의 머플러, 2003 F/W	118
<그림 152> Betty Jackson, 배색 자카드 조직, 2004 S/S	118
<그림 153> Betty Jackson, 기하학적 자카드 조직의 니트웨어, 2004 F/W	118
<그림 154> Hussein Calayan, 미니멀한 자카드 드레스, 1998 F/W	118
<그림 155> Pringle, 아가일 패턴의 양상블 니트웨어, 2004 S/S	118
<그림 156> Sonia Rykiel, 패치워크 효과의 인타샤 기법, 2000 F/W	118
<그림 157> Betty Jackson, 모던한 인타샤 무늬의 니트웨어, 2004 S/S	119
<그림 158> Betty Jackson, 인타샤 무늬 니트웨어, 2004 S/S	119
<그림 159> TSE 컬렉션, 레이스 조직의 니트 드레스, 2003 S/S	119
<그림 160> Donna Karan, 모헤어 소재의 니트웨어, 2003 F/W	119
<그림 161> Dolce & Gabbane, 트위드 효과의 합사 니트웨어, 2001 F/W	119
<그림 162> Anna Sui, 슬러브안 소재의 니트 재킷, 2004 F/W	119
<그림 163> Anna Sui, 셔닐사 소재의 색상별 합사한 니트웨어	119
<그림 164> Anna Sui, 스페이스 다이잉 양의 가디건, 2004 F/W	119
<그림 165> Laura Biagiotti, 면 소재의 니트웨어, 2004 S/S	119
<그림 166> Calvin Klein, 실버 금속사의 무봉제 니트, 2005 S/S	120
<그림 167> Betty Jackson, 금속 코팅의 니트 양상블, 2001 S/S	120
<그림 168> Koji Tatsuno, 라텍스 소재의 코팅 스웨터, 1996 F/W	120
<그림 169> Issey Miyake, 오버 프린팅된 니트웨어, 2000 F/W	120
<그림 170> Maison Martin Margiela, 오버 프린팅된 니트웨어, 1996 F/W	120
<그림 171> Maya Bramwell, 본드 처리된 니트 드레스, 1999년	120

<그림 172>	Iben Høj, 데보레(devoré) 프린트와 침엽법의 니트 웨어, 1997년	120
<그림 173>	Lisa Jansen, 펠트기법과의 혼합적 표현 기법, 1998년	120
<그림 174>	Krizia, 아플리케 장식된 니트웨어, 2003 S/S	120
<그림 175>	Ungaro, 아플리케 장식된 니트웨어, 2000 F/W	121
<그림 176>	Les Copains, 패치워크 장식의 니트웨어, 2002 F/W	121
<그림 177>	Les Copains, 패치워크와 자수로 장식한 니트 웨어, 2002 F/W	121
<그림 178>	스톨社, 무봉제 니트, 2003 S/S	121
<그림 179>	Yoichi Yamamoto, 니트로 짠 테이프 장식의 니트웨어, 2005 S/S	121
<그림 180>	Missoni, 배색의 고리뜨기로 장식한 니트 웨어, 2004 F/W	121
<그림 181>	Agatha Ruiz de la Prada. 고리뜨기로 장식한 니트 코트, 2004 F/W	121
<그림 182>	Laura Biagiotti, 엮기로 장식된 니트웨어, 2001 F/W	121
<그림 183>	Betty Jackson, 엮기로 장식된 니트웨어, 2003 F/W	121
<그림 184>	Hussein Calayan, 엮기로 장식된 니트웨어, 1998 F/W	122
<그림 185>	Paco Rabanne, 비즈 장식된 니트 드레스, 2004 F/W	122
<그림 186>	Laura Biagiotti, 비즈 장식된 니트 드레스, 2001 F/W	122
<그림 187>	Laura Biagiotti, 스톤 장식된 니트 드레스, 2004 S/S	122
<그림 188>	DKNY 컬렉션, 스팅글 장식된 니트 웨어, 2004 F/W	122
<그림 189>	Ungaro, 시퀀 장식의 가디건, 2000 F/W	122
<그림 190>	Julien Macdonald, 시퀀과 금속장식의 니트 드레스, 1999 F/W	122
<그림 191>	Sonia Rykiel, 크기가 다른 스팅글 장식의 니트웨어, 2000 F/W	122
<그림 192>	Yoichi Nagasawa, 시퀀과 비즈로 장식된 니트웨어, 2005 S/S	122
<그림 193>	Julien Macdonald, 플린징을 이용한 니트웨어, 1999 F/W	123
<그림 194>	Yoichi Nagasawa, 플린징 효과의 장식을 한 니트웨어, 2005 S/S	123
<그림 195>	Sonia Rykiel, 입술모양의 플라주로 장식한 니트웨어, 1999 F/W	123
<그림 196>	Yoichi Nagasawa, 단추형태의 플라주로 장식한 가디건, 2003 S/S	123
<그림 197>	Fake London, 같은 재질의 플라주로 장식한 니트 코트, 2003 F/W	123
<그림 198>	Gucci, 모피와 리본을 끼워 넣어 손뜨기 니트 코트, 2002 F/W	123
<그림 199>	Donna Karan의 DKNY 컬렉션, 자수로 장식한 가디건, 2002 F/W	123
<그림 200>	Les Copains, 자수로 장식한 니트웨어, 2001 F/W	123
<그림 201>	Fake London, 자수로 장식한 니트웨어, 2003 F/W	123
<그림 202>	Dolce & Gabbane, 아플리케 장식의 니트 웨어, 2002 F/W	124
<그림 203>	Les Copains, 코바늘뜨기의 플린징 장식 니트웨어, 2002 F/W	124

## 표 목 차

<표 1> 편기(編機)의 발달사.....	24
<표 2> 니트웨어의 변천 과정.....	25
<표 3> 현대 니트웨어의 년대별 변천.....	40
<표 4> 현대 니트웨어의 디자인 변천.....	41
<표 5> 현대 니트 산업의 현황.....	63
<표 6>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이미지별 디자이너 .....	72
<표 7>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이미지별 표현 양식.....	90
<표 8>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표현 기법.....	114

# I. 서론

##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현대의 패션 산업은 첨단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감성에 의해서 품질과 디자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특성을 가지며, 다양한 생활양식과 문화 속에서 소비자의 감정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 소비자의 변화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가 고급화, 개성화, 차별화되고 있으며, 스포츠·레저의 대중화, 자연스러움의 회귀, 기술의 발달 등의 사회적인 추세에 힘입어 니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니트웨어는 편안하고 활동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유연성, 신축성, 드레이프성, 성형성에 의한 조형적인 자유로움 등을 줄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개성적인 표현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기호에 적합하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다양한 코오디네이트가 가능하게 하여 언더웨어에서부터 아우터웨어, 액세서리에까지 그 용도가 폭넓게 활용되어져 기능성과 심미성 양쪽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니트웨어는 원사의 활용에 의해 디자인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으며, 기종과 조직, 색상의 변화에 따라 무한한 개성과 고급화를 연출할 수 있어 캐주얼하고 모던한 요소에서부터 과다한 장식적 요소까지 두루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에 있어서의 창의적 표현영역이 무한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아이템으로 적합하다.

이처럼 현대의 니트웨어는 예전의 스웨터나 메리야스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패션화되면서 단순히 생활필수품이라는 용도를 넘어서 개인의 감성을 연출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써 그 기능과 용도가 바뀌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자유롭고 독특한 실험성이 강한 창작적인 표현 기법을 통해 섬유예술의 조형미를 추구함으로써 그 심미적 가치를 미술의상 영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오늘날 니트웨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고급화되고 니트의 수요층이 종래의 성인 여성층에서 젊은 층으로 새로이 부상됨에 따라 직물보다도 니트가 의류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훨씬 우세해지는 가운데, 광범위한 손뜨기(hand knitting), 핸드 프레임 니팅(hand-frame knitting) 및 니트 산업에서의 생산 기술

화 등에 힘입어 현대 니트웨어는 창조적인 디자인에 의한 ‘대중적인 아트 (common art)’로서 새로운 룩을 제공하고 있다.<sup>1)</sup>

니트 산업이 성숙화되면서 니트웨어의 의류시장에서의 비중이 커감에 따라 횡편니트 상품들이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패션상품으로서의 독특한 니트웨어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CAD(Computer Aided Design)·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등의 니트웨어 제조과정 시스템의 자동화와 컴퓨터의 발달은 생산에서의 높은 효율과 함께 니트웨어 디자인 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현대 니트웨어가 니트 조직과 문양의 다양화와 편사의 고급화로 인해 니트웨어의 패션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니트웨어 제품의 개성화, 고급화, 전문화를 위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가 요구되었지만 국내의 니트 산업은 그 흐름에 따르지 못하고 대량생산 체제를 지향하면서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해 왔다.

지금까지의 니트 산업이 지나친 양적 성장에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 이를 수준높은 패션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니트업계의 새로운 도전과 치밀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니트웨어의 개발 방향은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감성과 기술적 기능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예술적인 기술’ 즉 아트 테크놀로지(Art-Technology)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창의적이고 독특한 니트웨어가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이 다각도로 모색되는 가운데, 특히 니트웨어 분야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패션 산업에서의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 니트웨어에서의 다양한 조직의 구조, 질감에 의한 소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신소재 및 다양한 패턴 조직에 의한 편직 기법과 미적 가치가 있는 신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생산 공정 자동화에 대한 투자와 창의적인 니트웨어를 위한 고부가가치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시급하다.

기존의 니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니트의 복식사, 생산, 디자인에서는 작품 제작에 있어서 미술의상에 치중해왔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니트에 대한 복식사적 연구로는 현대 니트의 변천에 대한 연구(최경희, 1999 ; 전현옥, 2002)와 전통문양을 중심으로 한 편물의 역사적 고찰(이선명, 2000)등이 있다.

---

1) Sandy Black, *Knitwear In Fashion* (London : Thamas & Hudson, 2002), p. 6.

그리고 니트웨어의 소비자 행동 및 업체의 품질개선을 위한 내용을 다룬 니트 마케팅에 관한 연구(손희정, 1989; 김경희, 1994; 창수란, 1999; 한성지, 2000; 김계연, 2001)와 니트웨어의 머천다이징에 관한 고찰(이희찬, 1986), 니트웨어의 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김정연, 1987) 등의 상품개발에 대한 연구가 있다.

생산측면에서의 연구로는 니트의 패턴 개발에 대한 연구(허지혜, 1999; 심지민, 1999; 윤혜준, 2002)와 니트 편조직에 대한 연구(김은숙, 1987; 임안나, 2002), 니트웨어의 생산에 관해 연구(송경희, 1996)가 있다.

또한 니트웨어 디자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예술적인 관점에서의 미술의 상에 표현된 현대 니트웨어에 대한 연구(최은희, 1988; 김영기, 2001; 이혜영, 2002)와 특정 니트웨어 디자이너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혜옥, 1996)가 있다. 또한 특정 표현기법을 응용한 니트 디자인에 대한 연구(이경애, 1997; 주리, 1999; 김혜영, 2001; 박문희, 2003)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연구들은 니트 전반적인 이론적인 연구를 토대로 예술기법이나 문양 등을 이용하여 손뜨기나 기계편으로 작품을 제작(이경애, 1997; 김영기, 2001; 한국희, 2001; 이선희, 2002; 김인숙, 2004)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니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최근 유명 컬렉션에 발표된 현대 니트웨어의 대표적인 디자인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나타난 표현 양식과 표현 기법을 세부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고찰을 통하여 니트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니트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대 니트웨어의 변천 과정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현대 니트가 발달해온 과정과 시대적 특징을 파악한다.

둘째, 기술력의 향상과 아트화, 토탈화에 따른 현대 니트 산업의 현황을 정립해봄으로써 니트 디자인의 개발 방향을 살펴본다.

셋째,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대표적인 표현 양식과 표현 기법에 대한 감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이상과 같이 탐구된 표현 기법과 표현 양식에 내재된 미적 가치를 유추하여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술 및 지식이 집약된 패션산업 중 최근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니트웨어 분야의 디자인 연구를 통해 니트웨어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고감도의 니트웨어 디자인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여 니트 패션산업

을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각 장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한다.

제 2장에서는 니트의 개념과 특성 및 변천 과정을 고대, 중세, 근세, 근대까지 나누어 니트의 역사를 수편 니트에서 기계 니트에 이르기까지 복식사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제 3장에서는 현대 니트웨어의 시대적 고찰 및 현대 니트 산업의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스포츠의 발달과 기능주의로 본격적인 니트 패션이 도입되기 시작한 1920년대부터 현대까지의 각 시대별 사회·문화적 배경과 복식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도입기, 보급기, 발전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니트 패션의 발달 과정을 연구한다.

현대 니트 산업의 현황으로는 과학과 기술의 놀라운 발달로 미래패션을 이끌어 나갈 무봉제니트, A-POC, 신소재의 현황 등 기술적인 측면의 현황과 또한 섬유 예술로서의 위치로 확대해나가는 미술의상으로서의 니트 디자인의 예술적 가치를 알아보고, 의상 뿐 만이 아니라 액세서리, 인테리어 등에 까지 니트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토탈 패션에서의 현황을 규명한다.

제 4장에서는 현대 패션의 흐름 속에서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성숙화되고 패션화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의 컬렉션에서 발표된 니트 작품들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현대패션에 나타난 니트 디자인의 대표적인 패션 테마를 캐주얼(casual), 에콜로지(ecology), 에스닉(ethnic), 레트로(retro), 테크놀로지(technology), 해체주의(deconstruction))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표현 양식을 분석한다.

또한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표현 기법을 손뜨기(hand knit)와 기계뜨기(machine knit)로 구분되는 뜨기 기법과 니트의 다양한 조직, 소재에 의한 표현 기법 그리고 다양한 장식기법에 의한 표현기법으로 크게 구분하여 이를 분석한다.

제 5장에서는 이상의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연구 내용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이를 통한 감각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니트웨어 디자인의 개

말과 니트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국내·외 니트와 관련된 전문서적과 패션관련 문헌, 논문, 학술지, 복식자료를 통하여 니트의 개념과 역사 및 특성을 고찰하고, 최근의 니트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패션잡지와 정기간행물을 참고한다.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은 문헌조사와 함께 실증적 자료들을 대표적인 패션전문 인터넷 사이트 「퍼스트뷰」(<http://www.firstview.com>)에서 발췌하여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 나타난 대표적인 표현 양식과 표현 기법을 고찰한다.

먼저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니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파악하고 이를 서술해나가는 서술형 방식을 도입한다. 그리고 고찰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니트 디자인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요소들을 유추하기 위해 해석형의 방식을 이용한다.

이론적인 연구 위에 실증적인 연구를 뒷받침하고자 컬렉션에 나타난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사진을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표현 양식과 표현 기법을 분석한다.

자료 선정은 현대 니트웨어가 발달하기 시작한 1920년대에서 현재까지 발간된 국내·외 복식사와 니트 관련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분석에 적합한 자료를 임의 표집하였다.

특히 현대 니트의 표현기법 분석을 위해 이론적으로는 「*Knitwear in Fashion*」 자료를 참조하였고, 1995년 이후에 발표된 컬렉션 분석 사진자료는 인터넷 사이트 「퍼스트뷰」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사진 출처인 인터넷 사이트 「퍼스트뷰」는 프레타 포르테의 컬렉션 자료를 최대 데이터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별, 디자이너별로 패션 디자이너의 컬렉션 자료를 편견없이 베이스화하고 있어 기성복 컬렉션을 중심으로 하는 패션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였다.

연구 범위는 현대 여성 니트 디자인에 나타난 패션 이미지에 따른 표현 양식과 표현 기법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1995년 이후 컬렉션에 발표된 니트웨어 작품을 연구 범위로 삼았다.

남성복은 의복의 종류나 스타일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 Ⅱ. 니트의 이론적 배경

### 1. 니트의 개념과 특성

니트는 고리(loop)을 기본으로 이어진 한 가닥 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로 뜨는 모든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의 형태로 된 모든 재료는 어느 것이나 편물 재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구나 뜨는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조직이 형성되며 용도도 다양하다.

니트의 어원을 살펴보면 고대 산스크리트어의 'nahyti'로부터 파생된 「손에 의하여 짜여진 직물」이라는 뜻으로 16C 에드워드 7세의 왕녀가 쓴 사전에서 사용한 앵글로 색슨어의 '니탄(cnyttan)'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sup>2)</sup> 니탄은 고대 영어 단어인 'cynntan(to knot)', 'knetten, netten', 'chitten', 'knotten'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꼭 매단다', '이어 맞춘다', '매듭을 함께 하거나 묶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3)</sup>

한편 니팅(knitting)은 '편물', '뜨는 것', '뜨기 세공', '메리야스' 등을 의미한다.

니팅(knitting)과 관련된 용어로 메리야스, 스웨터(sweater), 저어지(jersey), 편포, 편성물, 편물, 편성, 제편, 편직, 니트 등 여러 말들이 통용되고 있다.

니트는 실 또는 끈으로 한가닥 또는 두가닥 이상의 편사를 가로 혹은 세로로 얽히게 함으로써 루프나 링을 연속적으로 형성하여 편지를 생산한다. 니트웨어는 작은 편침의 운동으로 루프를 형성하므로 편침운동을 고속화할 수 있어 제편속도는 직물에 비해 3-5배나 빠르므로 경제적인 생산이 가능하다.<sup>4)</sup>

니트는 루프의 연결에 의해서 만들어지므로 경위사의 교차에 의하여 직조되는 직물과는 매우 다른 성질을 갖는다. 니팅에 사용되는 실은 직사에 비해 꼬임이 적은 방적사나 보통 인조섬유 필라멘트사(filament yarn) 뿐만 아니라 벌크사(bulk

---

2) 김석근, 메리야스공학 (서울: 문운당, 1993), p. 10.

3) Eve Harlow, *The Art of Knitting*, 編物の歴史 (東京: 日本 ヴォグ社 譯, 1979), p. 10.

4) 田中千代, 服飾辭典 (東京: 同文書院), 1969, p. 618.

yarn)나 텍스처사(textured yarn)와 같은 유연한 실을 사용하고 루프는 곡선을 이루면서 헐겁게 접결되어 직물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니트의 특성 중 대표적인 장점으로 신축성, 방추성, 다공성, 드레이프성, 성형성을 들 수 있다. 즉 니트는 신축성과 방추성이 좋아 잘 구겨지지 않으며 세탁 후 다림질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 몸에 밀착되는 내의나 착용감에 있어 편안한 스포츠 웨어에 적합하다. 또한 니트는 조직 단위가 루프이므로 다공성을 지니며, 합기량이 많아 보온성과 통기성이 커서 위생적이다.

니트는 드레이프성이 우수하여 착용자에게 구속감을 주지 않고 몸에 잘 맞아 실루엣을 잘 살릴 수 있으며, 니팅 과정에서 편성기의 패턴을 조정시켜 루프(loop)를 미스(miss) 동작시켜 의류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천의 폭을 증가시키고 필요한 부분에 부가 접속시키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성형성은 재단에 의한 재료의 낭비를 줄이고 실의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며, 직물에 비해 무늬 또는 조직을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공예적, 수예적 감각을 발휘하여 디자인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니트의 특성 중 단점인 전선(run)<sup>5)</sup>과 컬 업(curl up)<sup>6)</sup> 등으로 재단과 편직, 봉제 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비교적 꼬임이 적은 방적사나 장식사 등을 사용하므로 마찰에 약하고 내구성이 적어 마찰에 의한 필링(filling)이 생겨 광택이 떨어지고 외형이 쉽게 변화된다.

최근에는 합성섬유와 같은 새로운 섬유의 출현, 기술의 혁신 및 니트의 유행에 발맞추어 편성물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잘 살린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의의용의 경우는 신장성이 너무 크게 되면 의류로서는 불안정한 결점이 있으나, 원사의 선택과 편기의 선정 및 가공 처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신장성이 알맞은 편성물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니트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사용목적에 맞는 편사의 선택과 편기의 조정을 통해 보완하여야만 현대인의 욕구에 맞는 완벽한 편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

니트를 제작하는 편기는 직기에 비해 생산성이 높으며 소규모 생산설비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점점 고가이면서 설비 규모도 커가고 있는 추세이다.

---

5) 전선(run) : 니트에서 한 코가 끊어지면 사다리 모양으로 풀려나가는 현상이다.

6) 컬업(curl up) : 가장자리가 휘말리는 현상을 말하며, 재단과 봉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 현상은 평면뜨기에서 심하게 나타나며 고무조직이나 가아터 조직, 양면 조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2. 니트의 변천 과정

니트의 전과경로에 대해 역사가들은 북아프리카를 떠돌아다니던 유목민들에 의해서 약 4세기 경부터 실용화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무역상들(카라반)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며 여행할 때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니팅 기술을 배웠는데 이것이 티벳, 이집트에 전달되었고, 이집트인(콥트인)이 스페인과 지중해를 통하여 이탈리아, 영국으로 편물을 전파되었다는 설과 AD 711~712년에 발생했던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교도인 무어족의 스페인 침공의 결과로서 니트가 유럽에 소개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

8세기 이후 북부 유럽의 니트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바이킹 족이 니트의 발생지인 비잔틴 지역에서 니팅 기술을 습득하여 세틀랜드 뿐만 아니라 북부 유럽 여러 나라에 니팅 기술을 널리 전파하였다.<sup>7)</sup>

이처럼 니트의 변천 과정은 각 시대와 지역의 생활환경이나 사회·경제적 상황, 문화적 배경 또는 역사적 사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크게 고대(기원전~4세기까지), 중세(5세기~15세기), 근세(16세기~18세기), 근대(19세기), 현대(20세기~현재)로 구분된다.

### (1) 고대(기원전~4세기)

니트(knit)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인류의 기원과 함께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직물보다도 먼저 니트가 출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sup>8)</sup>

독일의 민속학자인 리프스(Rips)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수공(手功)중의 하나로서 ‘뜨는 것’과 ‘짜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니트가 원시인들이 바느질할 때 생기는 고리에서 발견되었을 것이라는 추측과 그들이 수렵, 어로를 주로 하는 원시 생활 속에서 나무의 껍질이나 줄기 따위를 엮어서 바구니와 같은 것들을 만드는 원리에서 경사, 위사의 원리가 발견되었으리라는 추측에서 근거한 것이다.<sup>9)</sup>

니트의 기원에 대한 내용은 신화와 전설, 성서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

7) Jennifer Harris, *Textiles 5,000 Years*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93), pp. 46~48.

8) 이순홍, 앞의 책, p. 9.

9) 김석근, 앞의 책, p. 5.

전설에 의하면 에텐 동산의 이브가 뱀의 등가죽 모양을 도안해 편물을 만들었다<sup>10)</sup>고 전해져 왔으며, 그라노베르 헨슨(Gravenor Henson)은 그의 저서 「History of the Framework」에서 “호머의 일리아드에서 헬렌과 안드로마케가 니트를 하고 있었으며 오딧세이에서의 페네로페는 시아버지의 수의를 니트로 짰다”라고 서술하고 있다.<sup>11)</sup>

또한 성경에서도 묘사되어 있는데, 드보라의 노래 중 시스라의 전쟁 약탈품에 관한 묘사인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사사기, 5:30)”과 율법에 대한 규례를 비유한 “양털과 베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신명기, 22:11)”,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히면서 병사들에게 빼앗긴 옷을 묘사한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요한복음, 19:23)” 등에서 볼 때 이것이 니트임을 추측하게 한다.

이같이 인류가 기원전에 니트를 입었다는 것은 그림 등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는데, 기원전 1세기경 덴마크에서 발견된 켈트(Kelt)족의 군데스트룹 보울(Gundestrup Bowl)에 나타난 다신의 신으로 보이는 남성상이 착용한 의복의 형태가 울로 짜여진 고무뜨기 조직으로 된 몸에 꼭 맞는 스웨터와 비슷하다.<sup>12)</sup>

고대 니트의 자료는 그 수는 적지만 그 분포지역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현존하는 고대 니트는 대부분이 외관상으로 그 표면이나 니팅 기법이 현재의 니트와 매우 유사하여 니트와 혼동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니트의 발상지로 여겨지는 중동지역의 근방에서 기원 후 2세기경의 가장 오래된 니트로 여겨지는 유품이 발견되었다.<sup>13)</sup> 고대 그리스풍 문화의 중심지였던 고대 이집트 안티노폴리스(Antinoöpolis)에서 발견된 2세기경의 콕트(Copt)인의 어린이용 양말(그림 1)은 바늘로 돌려뜨기로 짜여진 것이다. 바늘로 돌려뜨기는 하나의 바늘을 가지고 실과 바늘이 코를 통하여 끌어 돌려뜨기(crossed stitch) 코로 유연하게 이루어지며, 그물뜨기 형태를 보인다.

그 외에도 오래된 유물 중 하나로서 네덜란드 남부의 에쉬(Esbeek)에 있는 여성 무덤에서 발견된 2세기 말의 생활 장식용품이 있다. 어떤 도구로 제작되었는지는

10) 日本 ヴォーグ社, 世界編物保存版, 編物の歴史(1)(東京: ヴォーグ社, 1978), p. 214.

11) Richard Rutt, *A History of Hand Knitting* (London: Batsford. Ltd., 1987), p. 27.

12)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1965), p. 136.

13) Eve Harlow, *op. cit.*, p. 49.

알 수 없으나 크기는 약 2cm, 두께는 1mm의 모사를 이용하여 1cm당 8코의 게이지로 짠 메리야스 조직이다.<sup>14)</sup>

고대 바빌로니아 유적지인 유프라테스강 유역인 듀라(Dura)시에서 제작연대가 A.D. 3세기경으로 추측되는 니트 조각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모사로 짜여진 유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두 조각은 황갈색 바탕위에 진한 황갈색, 빨강색, 회색, 보라색, 초록색의 줄무늬를 하고 있으며. 겹뜨기 세 코, 안뜨기 두 코로 반복하여 짠 고무뜨기 조직으로 짜여진 작은 조각이다. 문양은 안뜨기 바탕에 코줄임과 늘림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니트 조각(그림 2)으로 3조각 중 가장 큰 것은 폭 14cm(5.5 inch) 정도이다.

필(purl) 스티치와 평(plain)스티치로 짜여진 염색하지 않은 양모로 제작되었고 튜브형으로 짜여진 것으로 보아 양말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니트 조각은 크로스드 이스턴 스티치패턴(crossed eastern stitch pattern)이라고 명명되었고, 니트의 가장 오래된 형태인 크로스드 니팅인 넬바인딩(nålbinding)에 의해 제작되었다.

넬바인딩은 ‘looping’, ‘needle-knitting’, ‘eyed needle knitting’, ‘knotless netting’, ‘vantsom’ 등으로도 불리우는데, 이는 아주 오래된 기법으로서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의 겨울 장갑과 신발, 아프리카의 가방, 운반 용구, 노르웨이나 뉴기니아의 민속옷 등에서 발견되었다. 코를 늘리고 줄이는 방법이 편직 구조와 다르고 바늘로 만드는 스티치와 방법이 유사하나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며 더욱 복잡하고 느리게 짜진다.

이것은 눈구멍이 있는 바늘에 비교적 짧은 실을 걸어 바늘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올려 고리를 연속적으로 형성하면서 앞의 고리에 단단히 죄어지는데, 다른 니트처럼 울이 풀리지 않으며, 니트보다 코의 크기가 작고 튼튼하며 매끄러워 니트보다도 가치를 인정받는다(그림 3).

고대 시대의 니트의 특징으로는 아라비아의 영향을 들 수 있는데, 고대 이집트는 4~5세기경 아라비아인에게서 니트를 배우면서 니트의 역사가 확산되었다.

특히 곱트인의 니트는 추상적이면서 동양적이고 때로는 화려한 아라비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평선, 수직선, 다이아몬드, 삼각형을 위주로 평면에 공간분할의 기하학적 문양과 동양적인 색의 대비 효과를 주었다.<sup>15)</sup>

---

14) Richard Rutt, *op. cit.*, p. 28.

15) Rae Compton, *The Illustrated Dictionary of Knitting* (London: B.T. Batsford, Ltd, 1998), p.

이와 같이 고대 니트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이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현재의 니트 기법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특히 동양적이고 화려한 고대 니트에서의 문양과 색상에 있어서 아라비아의 영향은 오늘날 니트 디자인의 다양한 색채 배합과 정교한 문양 배열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었다.

## (2) 중세(5세기 ~ 15세기)

중세 초기인 5~6세기에는 곱퍽 양말(coptic socks)이 이집트 주변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그림 4>는 후기 로마 시대인 5~6세기 경의 곱퍽 양말로 이집트 중부의 나일강 유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양모 소재로 바늘에 의한 넬바인딩 기법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곱퍽 양말의 형태는 발목뼈 위를 덮고 엄지발가락을 위한 부분이 있으며, 이것은 샌들을 신도록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6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어린이용 니트 양말은 이집트 나일강변의 고대 안토니오(Antinöe)라는 곳의 쓰레기 구덩이에서 발견되었다. 이곳은 로마 황제 하드리아안(Hadrian)이 A.D. 130년에 세운 도시로서 그리스와 이집트 문명이 만나던 지역이다. 이것은 양모 소재의 파란색, 붉은색,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등의 띠가 불규칙하게 무늬가 놓여져 있다.<sup>16)</sup>

니트 기술은 7~8세기에 이슬람 문화의 발달과 십자군 전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이슬람 문화가 서쪽으로는 스페인, 동쪽으로는 인도의 사라센 제국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아라비아의 니트는 유럽의 각 지역의 니트 기술과 융합하였다. 초기의 니트는 아라비아에서 발견된 7세기 경의 니트로서 매우 정교하며, 색상에서는 당대의 유행하던 카펫과 타일의 패턴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 후 8세기가 지나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바이킹 족이 니트의 발생지인 비잔틴 지역에서 편물 기술을 습득하여 세틀랜드 뿐만 아니라 북부 유럽 여러 나라에 편물 기술을 널리 전파하였다.<sup>17)</sup>

이집트 지방의 니트 기법은 9세기 경 아라비아 상인과 이집트의 무어인에 의해서 지중해 연안과 스페인에 전해졌고, 점차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중부 유럽 등으로 전파되었다.

---

14.

16) Richard Rutt, *op. cit.*, p. 32.

17) Jennifer Harris, *op. cit.*, pp. 46~48.

한편 연속되는 실로 짜여지는 오늘날의 손뜨개인 언크로스드 니팅(uncrossed knitting)은 10세기 경에 시작되었다. 그 후 13세기 경에 니트는 이탈리아, 프랑스에 정착되어져 오늘날의 두 개의 바늘을 사용하는 대바늘뜨기의 니트가 만들어졌으며 이것들은 종교계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기하학무늬를 2색 이상의 색상 배합으로 장식한 띠 모양으로 뜬 니트는 10~12세기 경 이집트에서 발달하여 12~13세기에는 스페인에서 성행되었다.

코에 의해 쉽게 배색무늬를 만들 수 있는 아라비아 니트 기법의 장점은 유럽과 중근동 지역의 니트의 전통적인 문양의 기초가 되었다. 주로 나타난 문양으로는 기하학 문양과 날개를 편 독수리, 새, 앞발을 든 사자의 동물문양, 붓꽃 모양, 여덟 꽃잎 문양, 여덟 개의 뾰족한 끝이 있는 별 문양이 있다.

밝은 색상과 패턴으로 이루어진 니트는 이집트, 아시아, 티벳, 흑해의 동쪽 해안에서 발달하였으나 중국, 인디아, 아프리카에서는 그 유물을 찾아볼 수가 없다.<sup>18)</sup>

아라비아의 니트는 각 문화권의 전통 니트와 융합되어지면서 동시에 색 배합을 통한 기하학적 문양(그림 5)을 발전시켰다. 그 결과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유럽 니트는 색상 배합의 절정기를 맞게 되었다.

중세 초기의 니트는 종교적 니트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기독교의 영향아래 수도원이나 교회 중심으로 수도자들이나 사제들에 의해 페그(peg) 니트로 짜여진 미사용 허리띠, 주교의 의식용 장갑, 성인(聖人)의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주머니들이 짜여지면서 권위의 상징으로서의 종교적 니트가 발전되었다.

사제들의 미사용 허리띠(그림 6)는 끈이나 줄을 사용하거나 때로는 코바늘로 짜거나 나무못으로 된 틀 편물의 일종인 페그 편물로 짜여지기도 하였다.<sup>19)</sup> 1272년 마르코 폴로(Marco Polo)가 쓴 중국 기행을 보면, 페르시아의 바르샤르느(Barsauma)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수도사들이 양모제품의 띠를 근행의 일부로서 떼서 이를 동양을 나갈 때 농부나 지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sup>20)</sup>

중세 시대 성직자 제복의 띠나 수도승을 위한 장식에 사용되며 안쪽에는 안뜨기(purl stitch)가 나타나지 않는 점이 니트와 다르다. 이것은 타블렛 위빙(Tablet weaving)으로 만들었는데, 위사들이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구멍이 뚫린 종이 판자나 꼬여진 카드들 사이에 있는 경사들과 끝에서 끝까지 교차된 것이다.

---

18) Richard Rutt, *op. cit.*, pp. 32~34.

19) *Ibid.*, p. 53.

20) 이순홍, 편물 (서울 : 수학사, 1997), p. 10.

13세기 경 스페인의 무덤에서 나온 니트 쿠션(그림 7)은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 기하학적인 형태와 새, 동물 모양으로 장식되어져 있다. 이는 두 개의 대비되는 색상으로 배색된 1인치 당 20코 게이지의 메리야스 조직으로서, 가로와 세로로 아라비아식 새김이 있다.

종교적 니트 중의 대표되는 품목인 중세 초기의 장갑은 신분이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7세기 경부터 장갑을 착용하기 시작하여 14세기에는 모든 주교들이 장갑을 착용하였다. 주교의 제례용 장갑에 나타난 문양에는 스페인의 전통문양, 독수리, 여덟 꽃잎 문양, X자형 그리고 십자가 문양이 있다.

장갑의 재료로는 실크, 린넨, 드물게는 모가 사용되었으며, 색상은 순수의 상징으로서 염색하지 않거나 흰색으로 만들어졌는데, 흰색 외에도 빨강색, 파랑색, 보라색, 초록색의 장갑도 발견되었다. 중세 전역에 걸쳐서 발견된 제례용 장갑들은 수녀들에 의해 짜여졌고, 초창기의 것은 손뜨개나 넬바인딩으로 만들어졌다.<sup>21)</sup> 15세기 이후부터 장갑은 부자나 수도원 수도사들의 중요한 장식품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또한 부의 상징으로 착용되어졌다.<sup>22)</sup>

그 외에도 스위스 서부에 있는 시온(Sion)과 동부에 있는 처(Chur)의 고대 성당에서 14세기의 것으로 보이는 6개의 편물 주머니에서도 편물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성인(聖人)의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것(그림 8)으로, 1cm당 7코 정도로 방직 견사를 사용해 다색의 줄무늬로 된 배색 문양으로 짜여져 있다.<sup>23)</sup>

또한 14세기 이후 많은 교회의 제단용 그림에서 화가들이 손뜨개를 하는 성모 마리아를 많이 그렸는데, 네 개 내지는 다섯 개의 직선 바늘로 두 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짜고 있는 모습에서 중세 손뜨개의 기술적인 발달을 엿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초기의 독일 함브루크(Hamburg)미술관에 소장된 마이스터 베르트람(Meister Bertram Von Minden : 1345~1415)이 그린 제단용 작품인 ‘천사들의 방문(The Visitation of the Angels to Maria)’으로 당시 유럽의 원통형 니트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9).

성모 마리아가 네 개의 갈고리가 없는 가는 직선 바늘로 두 가지 이상의 색실을 사용하고 니트의 코를 고르는 작업이나 목선을 잡는 방법이 오늘날의 뜨개질과 매우 유사하다. 이 그림은 마리아가 만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음새 없는 옷이

---

21) Richard Rutt. *op. cit.*, p 56.

22) Eve Harlow, *op. cit.*, p. 18.

23) Richard Rutt, *op. cit.*, pp. 51~52.

니트일지도 모른다는 화가들의 생각에 의해 표현된 것이다.<sup>24)</sup>

중세 니트는 13세기 파리에 니트 공장 조합의 길드(guild)가 생긴 것을 계기로 더욱 발전되었고, 14~15세기에는 피렌체나 파리의 수편공들이 니트 길드가 결성 될 때까지 왕궁의 보호 아래 니트 벽걸이 뿐 만 아니라 니트 베레모, 셔츠, 바지, 스타킹, 슐 등을 보급하여 니트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1417년 경에 니트가 시작되었지만 중세에 이르러 니트 제품은 사치품으로 여겨져 몇 번이나 생산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15세기 말 영국의 헨리 7세(1485~1509년)의 시대에도 니트 제품들이 매우 고가의 귀중품으로 여겨졌다. 그 후 1488년에서 1563년 동안 영국 의회에서는 8가지 복식 금지령이 있었는데 1552년 금지령에는 니트 양말과 니트 소매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였다.<sup>25)</sup> 손뜨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중세 후기로 갈수록 니트 제품의 크기가 커졌고, 색상은 더욱 다양하여졌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각각 그들만의 고유한 특색이 있는 니팅 기법들을 개발하였다. 네덜란드의 질감 표현이나 스칸디나비아의 채색 문양 등의 기법들은 15세기 말 유럽인들의 이주자들과 함께 미국으로 전해져 현재 미국 니트 발달의 다양한 기반을 만들었다.<sup>26)</sup>

### (3) 근세(16세기 ~ 18세기)

중세 시대의 니트가 종교 중심으로 발달하였다면,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의 니트는 기계니트의 발명과 길드의 형성에 힘입어 일반인들에게 크게 보급되었고 왕권중심으로 통제, 유통되어졌다.

또한 이 시기에는 권력 및 권위의 표시로서 주로 왕족과 귀족 취향에 맞게 심미적으로 발전되어져 뜨개질이 귀족들의 취미로서 자리잡았다. 특히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는 자카드 무늬를 넣은 니팅 기술이 발달하여 브로케이드 니트가 만들어졌다.

15세기와 16세기에 네덜란드인들은 본격적으로 니트에 열중하여 1429년에 처음으로 니트 길드를 결성하고 고급 니트 의류를 제작하였다. 16세기에는 네덜란

---

24) *Ibid.*, p. 48.

25) 이순홍, 앞의 책, p. 7.

26) Debby Robinson, *The Encyclopedia of Knitting Techniques* (Pennsylvania: Rodale Press, 1987), p. 10.

드의 니팅 기술자들이 덴마크까지 초청되어 자카드 무늬를 넣는 니팅 기술이 널리 정착하였다.<sup>27)</sup>

동양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색상의 실크사, 금·은사 등을 애용하였고 가문을 상징하고 있는 계급을 과시하기 위해서 눈에 잘 띄는 이채로운 문양 디자인의 니팅 기법이 많이 고안되었다. 특히 니트 베레모, 장갑과 실크 스타킹은 부의 상징이자 권력 및 계급을 상징하는 품목이었다.

16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니트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근세 시대의 니트 품목은 모자, 스타킹, 장갑, 의복(스웨터), 레이스류, 장식용품 카펫을 들 수 있지만 주요 거래 품목은 스타킹, 속옷(undershirts), 장갑, 소매였다. 1527년 8월 16일에는 파리를 기점으로 모, 견사로 만든 스타킹의 교역이 시작되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모나 견의 손뜨개로 만든 긴 스타킹을 귀족과 왕족들이 애용하면서 니트가 상류계급에 보급되어져 1550년대부터 니트는 상류층의 복식에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

금사와 은사를 레이스뜨기 하거나 겹뜨기와 안뜨기의 모스(moss)뜨기와 다이아몬드 문양으로 편직한 장식적인 값비싼 호즈가 유행하였다.<sup>28)</sup>

당시의 프랑스에서는 왕실에서만 니트로 짠 실크 스타킹을 신었으며 영국에서도 실크 스타킹은 가격이 매우 고가였고 색상도 화려해서 귀족들조차도 주말이나 축제일에만 신었다. 니트로 짠 양말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타이트한 느낌이 적은 호즈(hose)에 더 가까웠다고 한다.<sup>29)</sup>

대략 1540년부터 호즈의 대부분은 니트로 만들어졌으며 16세기 중반의 트렁크 호즈(그림 10)는 몸판 전체에 슬래쉬(slash) 장식이 있었고, 금색의 견사로 전체적으로 모스(moss) 뜨기와 패거트(faggot) 뜨기로 니팅<sup>30)</sup>되었다. 바지와 양말의 연결 부분을 덮어서 가리는 데님 부분은 안뜨기의 큼직한 다이아몬드 문양으로 짜여졌으며, 모나 견사를 사용하여 다리 모양에 꼭 맞도록 비침 문양이 주로 사용되었다.

---

27) Mary Walker Phillips, *Creating Knitting A New Art Form* (Van Nostrand : Reinhold Company, 1971), p. 19.

28) Nancy Bush, *Knitting Ganseys* (Colorado; Interweave Press, 1993), p. 19.

29) Blanche Payne, *op. cit.*, p. 322.

30) Terry Brackenbury, *Knitted Clothing Technology* (London : Blackwell Science, 1992), p. 6.

1560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실크 담당 하녀인 몬타뉴(Montague) 부인이 직접 손뜨개한 검정색의 실크 스타킹을 선물받았고, 이때부터 여왕은 실크 스타킹만을 신었다고 한다.<sup>31)</sup>

니트 산업의 발전은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까지의 패션과 관련이 많다. 이 시기의 여성들의 스커트의 길이가 약간 짧아져서 굽이 있는 구두를 신었으며, 남성들은 짧고 부풀려진 바지인 브리치즈(breeches)의 착용으로 인해 장식적인 스타킹은 극도로 중요해져서 정강이까지 오는 화려한 자수가 수놓아진 견사로 짠 니트 스타킹(그림11)이 의복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

헨리 8세 때는 병사나 선원의 스코거<sup>32)</sup>(scogger)나 호거<sup>33)</sup>(hogger)를 니트로 만들어 보온성이 좋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와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신었던 올이 성근 무릎길이의 양말은 발꿈치 부분을 가터뜨기로 짜여져 착용감이 좋게 만들어졌다.

그 밖에도 발목 안쪽과 복사뼈 부분에 금사나 은사로 아름답게 자수를 놓은 것과 17세기 중엽의 양말 윗부분을 넓게 깔대기 모양이나 나팔꽃처럼 넓게 퍼지게 하여 먼지와 마찰로부터 의복을 보호하는 승마용 남자 양말(그림 12)이 만들어졌다.<sup>34)</sup>

반면에 남성들 복식에 있어서 스타킹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던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체코슬로바키아와 발칸반도 근처 지역들은 서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니트 산업의 발달이 늦었다.<sup>35)</sup>

영국의 니트는 니트 가내공업과 생산 공장의 번창에 힘입어 실용화되기 시작하여 모자나 양말을 수편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1565년 영국에서는 법으로서 7세 이상 된 모든 사람에게 안식일에 모로 된 모자를 쓰도록 제정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편직된 모자가 특히 인기가 있었다. 정책상으로 니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류층이나 노동자층은 반드시 모자를 착용하도록 하였고 모자 형태도 다양하게 생산되었다. 챙이 있는 것과 챙은 없지만 귀와

31) Keiwe Heinz Edgar, *The Sacred History of Knitting* (Oxford : Art Needlework Industries Limited, 1967), p. 82.

32) 스코거(scogger) : 보호나 보온을 위해 일하는 동안 팔뚝에 끼웠던 펠 수 있는 소매

33) 호거(hogger) : gaiter 또는 발없는 스타킹

34) Richard Rutt, *op. cit.*, pp. 73~74.

35) Madeleine Ginsburg, *The Illustrated History of Textiles* (New York : Portland House, 1991), p. 154.

목덜미를 덮기 위해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는 것(그림 13), 그리고 펠트로 형태를 띠며 재단하여 불규칙하게 여러 층으로 연결된 아코디언 형태인 몬머스(monmouth)모자(그림 14)는 영국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어부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몬머스 모자의 독특한 형태는 크림리아(Crimea) 전쟁 시 장교 모자로서 쓰여졌으며 19세기까지 거칠고 두꺼운 두 가닥의 모(毛)사를 사용하여 네 개의 바늘로 1cm당 1게이지로 싱글게 짜여진 원형니트(tubular knit)기법으로 짜여졌다.<sup>36)</sup>

또한 16세기의 웨이스트코트는 유럽의 길드에서 제작된 것으로 주로 손뜨개에 의해 다양한 타입의 동물, 새, 그리고 식물무늬들이 정교하게 장식되어져 있다. 유럽에 실크가 소개된 이후 니트는 더욱 다양한 색상의 견사로 짜여졌으며, 왕과 귀족들은 옷의 일부분이나 브로케이드 모자 등에 금사나 은사로 선 장식을 하였다.

1649년 찰스(Charles) 1세가 처형식 때 입었던 견사로 짠 손뜨개로 만든 웨이스트코트는 모스 스티치(moss stitch)로 된 다마스크(damask) 패턴으로 1cm당 8.5코의 게이지로 되어 있다(그림 15). 하늘색 견사를 사용하였고 체크 문양과 세 잎 클로버, 양식화된 생명수 문양의 복잡한 다마스크 니트 조직과 화려한 브로케이드 니트 조직이다.<sup>37)</sup>

16세기 초기 성직자들이 입었던 꽃문양의 소매가 없는 웨이스트 코트는 바탕은 금사를 사용한 메리야스 조직으로 꽃문양은 자주색 견사의 인타샤 기법으로 짜여져 있다(그림 16). 겹뜨기와 안뜨기로 입체적인 무늬를 표현한 바탕 위에 금색실의 자수로 장식되어 있는데, 소매가 없는 상의와 자카드 무늬는 매우 고급스럽고 현대적이다. <sup>38)</sup>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는 종교적인 문양으로 만들어진 성찬식용 장갑인 비숍(bishops) 실크 장갑은 손목 부분에 끈 장식이 있고 장갑의 이음새와 엄지부분의 이음새가 없이 원형으로 짜여졌다. 16세기의 스페인 장갑인 <그림 17>은 주로 빨강색과 흰색이 많았는데, 다섯 개의 대바늘을 사용한 원형 니트 기법으로 엄지손가락만 별도로 짜서 본체에 연결하였고, 문양은 종교적인 모노그램으로 커프스(cuffs)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sup>39)</sup>

---

36) Richard Rutt, *op. cit.*, p. 59.

37) Madeleine Ginsburg, *op. cit.*, p. 151.

38) Deborah Newton, *Designing Knitwear*(Newtown, Conn : Tounton Press, 1992), p. 5.

이처럼 스페인의 견사와 금사의 정교한 편침으로 짜여진 장갑이나 이탈리아의 거대한 꽃문양의 장식적이고 정교한 니트로 된 브로케이드 니트는 그 시대의 발달된 니팅 기술을 짐작케 한다.

한편 유럽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도 다양한 니트가 유행되었는데 남유럽에서는 교회에서 쓰이는 제단복 등에 역점을 두어 제작되었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레이스처럼 정밀하게 짠 스타킹, 장갑이나 재킷 등이 제작되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주로 모사로 사용하여 니팅 위에 수를 놓거나 거대한 니팅 카펫을 벽걸이로 사용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독일의 니트는 성직자들로부터 비롯되었는데 특히 벽걸이용 편물 카펫이 유명하다.

특히 Rhine과 Alsace 북부의 카펫은 정방형에 꽃문양과 때로는 두 개의 머리를 한 함스부르크(Habsbourgs)의 독수리 형태를 넣은 벽걸이용의 편물 카펫이 유명하였다(그림 18).

엘리자베스 1세는 1571년에 가난한 이들에게 살아갈 기술을 가르쳐서 빈민구제와 유희인력에게 기술을 제공할 목적으로 교구에 배속된 니트 학교를 세웠다.<sup>40)</sup>

니트웨어의 수요가 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산업혁명 이전인 1589년에 영국의 윌리엄 리(William Lee) 목사는 처음으로 발로 밟아서 일정하고 등글게 짤 수 있는 양말 제조의 니트 기계를 고안, 발명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메리야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수편물사의 실직을 우려해서 그 보급을 억제하여 빛을 보지 못하였다. 윌리엄 리는 이 기계를 가지고 프랑스에 건너가 헨리 4세의 지원을 받아 1590년에 프랑스의 루앙(Rouen)에 세계 최초의 기계식 니트 공장을 세웠다.<sup>41)</sup>

최초의 편기는 1인치 8게이지였으나 1598년에는 20게이지까지 뜰 수 있는 편기로 개량되어져 아름다운 무늬를 짜 넣거나 자수 또는 체크 문양을 넣어 만든 양말을 만들었다. 이 발명은 니트 산업에 혁명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1900년대 후반까지의 현대적 기계 편기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니트 기계의 출현으로 손으로 짜던 니트 공업은 유럽의 외진 지역을 제외하고는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39) Richard Rutt, *op. cit.*, pp. 56~57.

40) Nancy Bush, *op. cit.*, p. 19.

41) 飯塚信雄, *手藝の文化史* (東京: 文化出版局, 昭和 62), p. 48.

그 후 윌리엄 리의 프레임에 의한 니트 생산 체제가 잡혀있던 노팅험에 1730년 코튼이 소개되자 프레임워크 니트공들은 코웁김 기법의 기술을 사용하여 레이스 니트 직물을 생산해내었다.

이 ‘포인트 레이스(point lace)’의 성공적인 생산은 후의 니트 기계의 발명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니트 직물은 재킷, 브리치즈(breeches)와 웨이스트 코트 등의 니트로 만든 품목들로 생산되었는데 다른 직물과 같은 방법으로 재단되고 취급되어졌다.

그 후 18세기 로코코 시대는 수예가 중요시되어졌고 신고전주의의 영향으로 단순한 디자인이 유행하였다.

인도나 동양에서 흰색 머슬린이 수입됨으로써 영국과 유럽의 실크로 된 니트는 린넨이나 면실로 짠 흰색 레이스편으로 대체되어졌고 이는 ‘와이어(wire)’라는 가는 바늘로서 작업한 매우 섬세하고 비치는 문양의 니트의 유행을 가져왔다.<sup>42)</sup>

수입 레이스의 사용을 금지해 오던 영국에서도 이 흰색 레이스편은 예술적이고 실용적인 편물로 인식되어져 재킷, 케이프, 코트, 양말, 삼각 스톨, 모자, 본넷(bonnets), 팔꿈치 위로 올라오는 병어리 장갑, 스카프, 피쉬(fichu) 등이 짜여졌고, 리본이나 작은 구슬로 장식되기도 하였다. <sup>43)</sup>

이 시기에는 니팅이 귀부인들이 여가를 보내는 수단으로 여겨져 손뜨개가 격증하였고, 페티코트, 헤드 드레스, 양말 테넬, 바지 벨벳, 앞치마, 거들, 숙녀복 밑의 포켓,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핸드백, 테이블 클로스, 침대 커버, 커튼 등이 니트로 만들어졌고 심지어 여성의 속옷 등도 니트로 만들어졌다.

한편 비즈를 니트의 소재로 활용한 것은 18세기부터로서 작은 구슬이 장식된 니트에 주로 공상적인 것, 수렵하는 모습, 인물, 꽃 등의 문양을 나타내었다. 그중 사람들이 애용한 장식품은 ‘스타킹 파스’라고 하는 실크로 짠 스타킹을 넣는 작은 통 모양의 지갑이 있다.<sup>44)</sup>

니트로 만든 장식용품으로 고대 로마의 헤어넛(hairnet)을 시장바구니로 사용하는 풍습을 모방한 그물주머니 형태인 레티쿨(reticule)<sup>45)</sup>이 장식적인 솔더백으로

---

42) Eve Harlow, *op. cit.*, p. 34.

43) Mary Thomas, *Mary Thomas Knitting Book* (New York : Dover Publication, Inc., 1938) p. 10.

44) 飯塚信雄, *op. cit.*, pp. 51~52.

45) 레티쿨(reticule): 새틴, 망사, 벨벳, 모로코 가죽 등의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여성들의 지갑을 말한다.

유행하였고, 남성들은 군복 차림의 군도의 현대에 늘어뜨리는 작은 가방인 세버 테치(sabertache)를 착용하였다.<sup>46)</sup>

18C 중엽에는 유럽의 길드와 편물학교들은 퇴조하기 시작했고 수편물은 가내 수공업으로서 계속되었다.

또한 기계의 발전은 18C 후반 패션의 변화 요구와 연결되어져 니트는 취미생활이 아닌 상품으로 개발되어졌다. 이는 니트가 대중화하는 것에 이바지하였고, 그 결과 단독 무늬의 꽃모양이나 전체문양의 니트 디자인이 유행하였다.

영국에서 무늬있는 스타킹을 짜기 위한 기계가 발명되었고, 영국의 기계공 제 데디아 스트루트(Jedediah Strutt)는 1758년 무늬가 있는 고무뜨기의 니트를 짤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여 일명 ‘더비-리브드 호즈(derby-ribbed hose)’를 생산하였으며 1769년과 1816년에 경편기와 원형편기가 발명되어져 좀 더 싼 값에 봉제선이 없는 튜블러 양말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경편 니트는 수작업을 통한 발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계 기술에 의해서만 발전하였는데, 경편 니트는 1775년에 영국인 에드몬드 크레인(Edmond Crane)이 최초로 이를 발명한 이후 트리코트 편기로 개량되었다. 그리고 베어드 니들(beaded needle)에 이어 랫치 니들(latch needle)이 발명됨으로서 이를 이용한 랫셀 편기로 랫셀 니트 원단을 편직하게 되었다.

1791년에 레체스터의 윌리엄 더슨(William Dawson)은 경편니트 기계에 V자형 새김눈이 있는 바퀴(notched wheel)를 부착하여 동력으로 돌아가는 프레임을 발명하였다. 그 후 1797년 프랑스 드 크로와드(de croide)의 원형기계 발명으로 내복류가 대량으로 생산됨에 따라 손뜨개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sup>47)</sup>

18세기 후반부터는 니팅 방법과 기술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가 시작되어지면서 기계 니트에서의 무늬를 나타내는 방법을 창안하였다.

이후 18세기 말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니트 기계의 출현으로 수편의 니트 산업은 유럽의 외진 지역을 제외하고는 쇠약해지기 시작했으며, 산업 혁명 후 영국을 중심으로 한 니트 기계의 보급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니트 공장이 많아지게 되었다.

한편 기계화에 놀려 일시적으로 쇠퇴할 수 밖에 없었던 수편물은 19세기에 이르러 유럽 전역의 수편물자들에게 많은 일감을 안겨 주었다.

---

46) 日本 ヴォーグ社, *op. cit.*, p. 449.

47) Collins, *The Age of Knitting* (London : Glasgow, 1983), p. 10.

#### (4) 근대(19세기)

니트 기계의 확산과 인쇄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1889년에는 런던에서 ‘일반 편물 교본’이 출판되었고, 여성 잡지에 편물 무늬가 게재되는 등 편물은 중산층의 여가 생활로써 전수되어졌다.<sup>48)</sup>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자연주의의 배경에 힘입어 손뜨개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 내의 뿐만 아니라 외출복에도 손뜨개가 유행하였고 수편용 모사가 양모 방적으로부터 공급되어 다양하게 짜여졌다.

또한 니트웨어에 대한 패션으로서의 인식은 취미로써 가능해진 손뜨개의 폭넓은 대중화를 가져왔으며, 여가를 가진 여성들의 층이 증가됨에 따라 레이스 뜨기의 유행과 함께 극도로 섬세한 바늘 공예(needle craft)가 다시 소개되었다(그림 19). 1872년 유럽에서는 법률로서 편물이 여성을 위한 학교의 필수과목으로 정하여졌으며 필수 교양이 되었다.<sup>49)</sup>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비즈 니트는 전체를 비즈로 뜬 비즈니팅(beads knitting)과 부분적으로 비즈를 넣은 비디드 니팅(beaded knitting)으로 구분되며, 주로 18세기의 우아한 로코코의 그림을 미니어처(miniature) 품으로 도입하여 인물이나 꽃, 수렵하는 것 등을 도자기의 그림과 같이 짜 넣었다.<sup>50)</sup>

근대의 대표적인 니트 소품으로는 러시아의 벨트(belt)와 신축성있는 새시(sash), 프랑스의 각반 등의 유물들이 남아있다. 그 외에 여성들의 핸드백과 거들, 가느다란 벨트, 포켓, 에어프런, 깔개 등 19세기 복식의 특징을 이루는 것들이 많이 있다. 농부들의 복식에서도 니트 제품을 찾아볼 수 있는데, 무릎과 허리 보온 덮개, 여성들의 무릎 아래에서 줄라매는 헐렁한 니커보커즈(knickerbockers) 등이다. <sup>51)</sup>

유럽의 수편업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 민속 공예로서의 니트를 발전시켰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스코틀랜드의 북동쪽에 위치한 군도인 웨어(Fair)섬의 웨어 아일랜드(Fair Isle), 아란(Aran)섬의 아란 스웨터 등 섬 이름에서 따온 명칭의 스웨터들을 유행시켰다.

한편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의 니트웨어는 14세기경 북유럽의 여러 항구 지역의

---

48) 이순홍, 앞의 책, p. 19.

49) 飯塚信雄, *op. cit.*, p. 56.

50) Mary Thomas, *op. cit.*, p. 131.

51) Madeleine, *op. cit.*, p. 154.

여인들이 어부들이 사용하던 어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방한용의 니트 스웨터(당시에는 스웨터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를 만든 것으로 비롯되었다. 이것은 북해의 차갑고 습한 바람을 잘 막아주었기 때문에 어부들의 작업복으로 매우 적합하였다.

특히 스코트랜드 해안 지역의 여인들은 남편의 스웨터에 로프나 닳, 다이아몬드 모양 등의 전통적 문양들을 옷에 짜 넣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이 무늬들만 보아도 선원들의 고향과 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양들의 전통은 더욱 다양하게 발전되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세틀랜드는 영국과 노르웨이 중간에 있는 북해상의 군도로서, 당시까지는 정형화된 색사의 스타킹과 장갑을 주로 생산하였으나 오늘날 ‘웨어 아일’로 알려져 있는 니트로서 주목을 받았다.

웨어 아일 니트는 각 줄마다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넣은 것이며, 세틀랜드 양들의 털색이 다양하나 웨어 아일 니트의 색상들은 염색해서 짜여진다. 초기에 모자로부터 시작된 웨어 아일 기법은 세틀랜드와 인접한 노르웨이에서도 사용되었다.<sup>52)</sup> 웨어 아일 니트가 오늘날의 니트웨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이것들이 발전하여 오늘날의 자카드가 나왔다.<sup>53)</sup> 전통적인 웨어 아일 무늬는 OXO 무늬라 불리는 팔각형, 십자가로 구성된 띠 사이에 작고 균형 잡힌 무늬 띠가 삽입되어 있다.

또한 세틀랜드 주민들은 빅토리아 시대(1850~1890년)동안 품질이 우수한 레이스 편성기술로서 유명하였는데 세틀랜드산의 가늘고 섬세한 모사로 짠 솔은 이 시대의 결혼식 때 면사포에 주로 사용되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레이스 스타킹을 즐겨 신었던 빅토리아 여왕의 열렬한 지원 덕분에 이들의 레이스 산업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19세기 초에는 더 넓은 폭의 니트 직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더 넓은 폭의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그동안 ‘프레임(frame)’이라고 지칭해온 니트 기계대신에 ‘머신(machine)’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816년 마크 이삼바드(Marc Isambard)경에 의해 원형편기(circular knitting machine) 혹은 트리코페르(tricoteur)라고 하는 기계가 발명되었으며, 1832년에는 미국의 코호(Coho)가 동력편물기를 발명함으로써 미국의 편물산업이 대규모화되

---

52) Richard Rutt, *op. cit.*, p. 173.

53) Collins, *op. cit.*, p. 13.

기 시작했다.

또한 1847년 노팅햄의 니트 직공은 동력에 의한 원형 리브드(circular ribbed) 스타킹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였고, 1849년에는 영국의 마튜 타운센트(Mattew Townsent)가 윌리엄 리의 바늘을 개량한 래치 바늘을 발명하여 연속적인 편직과 미스 스티치(miss stitch)를 가능하게 하는 등 편기의 고속화에 많은 공적을 세웠으며, 양말 횡편기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유럽에서는 양말 산업이 수동식에서 동력을 이용한 자동식 메리야스 산업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1855년 루그보로그(loughborough)의 스타킹 직공은 니트 직물의 폭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였다. 1863년 미국인 아이작 윌리엄 램(Issac William Lamb)은 자동 래치침에 의한 횡편기를 발명하고 이어 1864년에는 영국의 윌리엄 코튼(William Cotton)의 코튼식 편기를 발명하여 공업화에 성공했다.

1890년에는 윌리엄 스코트가 자동 양말 편기를 발명하였고 이어 영국 윌트(Wildt)는 1900년에 양두 환편기를 개발하는 등 이 시기의 각종 기계발명은 니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1900년에 영국의 윌트(Wildt)사에 의해 자동리브편기가 발명되었고 1931년에 프랑스의 이브 루이네(Yves Ruinnet)가 전자식 자카드 편기에 대한 특허를 받은 것을 계기로 다양한 니트 패턴이 개발되었다.

전자공업의 발달에 의한 고무편기가 출현하였으며 1963년 미국인 램(I. W. Lamb)이 자동침을 사용한 횡편기를 발명하여 공업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자동침은 편직의 고속화로 전자식 무늬작성방식의 실용화를 가져왔으며, 1963년 모라토(Morat)사가 전자식 자동제어를 개발한 후 1975년에 독일의 스톨(Stoll)사 등에서 일렉트로닉 횡편기를 발명하는 등 각국에서 컴퓨터 니트 시대가 되었다.

<표 1>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편기의 발달사를 연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는 위에서 살펴본 니트웨어의 변천 과정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표 1> 편기(編機)의 발달사

내용 년도	개발자	국적	내용
1589	William Lee	영국	수동식 양말편기 발명
1758	J.Strutt	영국	고무편기 발명
1769	Crane	영국	경편기 발명
1775	Edmond Carme	영국	트리코편기 발명
1816	M.T.Brunnel	프랑스	비어드 편침의 싱커휠(Sinker Wheel)원형편기 발명
1816	Marc Isambard	미국	원형편기(Tricoteur) 발명
1846	William Cotton	영국	코튼식 편기에 대한 특허를 얻음
1847	Matthew Townsend	영국	수직형 원형편기 발명
1849	Mathew Townsend	영국	래치 바늘의 원형편기 발명
1855	Mr. Red Gate	영국	라셀(Raschel)경편기 발명
1861	J.S.Welles	영국	양머리 바늘 발명
1863	IssacWilliam Lamb.	영국	평형식 편기 발명(횡편기 시초)
1864	William Cotton	영국	폴패션편기(Cotton Patent Frame)발명
1867	Issac Willam lamb	미국	펼편기 발명
1879	baghman	영국	밀라니즈(Milanese)경편기 발명
1886	A. Byer	독일	자동 횡편기 발명
1890	William Scott	영국	B식 자동 양말편기 발명
1891	Gronros	독일	펼(Purl Stitch))편기 발명
1892	Terrot사	서독	자동 환편기 발명
1900	Wildt사	영국	양두 환편기 발명
1900	Stretton, Johnson	영국	자동리브편기(Rib Knitter) 발명
1912	William Spiers	영국	실린더 회전식 원형편기 발명
1915	William Scott	영국	K식 자동양말편기 발명
1920	Wildt사	영국	전자동터블 실린더 양말편기
1931	Yves Ruinnet	프랑스	전자식 자카드 편기에 대한 특허를 얻음
1955	Stoll사	독일	전자동식 펼 횡편기 발명
1961	Diamant사	독일	회전식 횡편기 발명
1962	Epinger사	독일	8급사식 심리스(Seamless)식 양말편기 발명
1963	Morat사	독일	전자제어 방식의 모라트로닉(Moratronic)환편기 발명
1967	Karl Mayer사	독일	코-위-니트(Co-yee-Knit)편기 발명
1969	Bruno연구소	체코	입체식 편성물의 스테레오(Stereo)편기 발명
1975	Stoll사	서독	일렉트로닉 횡편기 발명
1975	Abiril사	스페인	일렉트로닉 폴패션편기 발명

(참조 : 스웨터 기술 교본, 서울경인스웨터공업협동조합, 2004, pp. 24~25)

<표 2> 니트웨어의 변천 과정

시대 구분	고 대	중 세	근 세	근 대
	기원전~4세기	5~15세기	16~18세기	19세기
발달지역	이집트(굽트인) 유프라테스, 로마 중동지역, 티벳	아라비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중부 유럽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시대적 상황	다양한 분포지역	이슬람 문화의 발달 십자군 전쟁	수예증시 왕권통제 : 귀족 취향의 운영 계급의 과시	중산층 여가 선용 니트 기계의 개발
주요 아이템	양말 곱틱 양말 끈이 달린 주머니 인형모자 유물	의식용 주교장갑 미사용 허리띠 성인(成人)유물주머니 쿠션, 양말	모자, 스타킹, 비숍 장갑, 소매, 카펫, 쿠션, 웨이트 코트, 브로케이드 모자, 승마용 남자양말 트렁크 호즈, 속옷	웨어 아일, 아란 스웨터 섬세한 니트 소품
기법	벨바인딩 틀 편물 민자뜨기 고무뜨기	언크로스 (un-cross) 니트 두 개의 바늘 대바늘뜨기 인타샤 기법 색상배합의 절정기 기하학적 문양의 극치	손뜨기 다마스크 패턴 꽃문양 금사, 은사 장식 레이스뜨기	기계니트 수편물 레이스 뜨기 바늘 공예 비즈 니팅
특징	아라비아의 영향 기하학적 문양 동양적인 색채배합 정교한 문양 배열	종교의 영향 권위의 상징 길드 생성 이슬람 배색기법의 절정기	니트 기계의 발명(1589년) 길드 형성 왕권 통제 하에 일반인들에게 보급 귀족 취미생활	바늘 공예 비즈 니트 민속 문양 공예 수편물(스웨터)
디자인의 예				
	<그림 1> 돌러뜨기로 편 굽트인의 양말, 2C	<그림 8> 유물 보관 주머 니, 14C	<그림 11> 브리치즈 착용의 장식적인 스타킹, 1616년	<그림 19>가정 수예용 니트 소품, 18~19C

(연구자 작성)

### Ⅲ. 현대 니트웨어의 시대적 고찰 및 현황

#### 1. 복식사적 배경

현대 니트 니트웨어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 변화되고 발전되었고 산업의 발달과 과학 기술의 축적으로 인해 더욱 패션화되고 대중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표현 양식과 표현 기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대니트웨어의 시대적 고찰을 통해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발전 과정과 니트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시대적 발전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크게는 도입기(1920년대 전후), 보급기(1930~1950년대), 발전기(1960년대~1980년대), 성숙기(1990년대 이후)로 구분하였다.

##### 1) 도입기

니트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니트가 현대의 패션으로서 대중화되고 본격적으로 발전되어진 것은 1920년대 이후이다.

기능주의의 출현 배경에는 스포츠의 대중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미국의 기능주의와 현대 예술의 영향이 있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여성복의 현대화를 이루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의복에서의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고 극단적인 계급차 및 성차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하였다. 이 신여성들의 등장은 패션에 있어서 기능성과 활동성이 부여된 남성화 경향, 스포티화 경향, 캐주얼화 경향을 가져왔다.

스포츠의 열풍은 패션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당시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수잔 랭글러(Suzanne Lenglen)는 장 파투(Jean Patou)가 디자인한 옷(그림 20)을 착용하여 패션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그 결과 20년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스포츠 우먼이자 패션 리더가 되었다.<sup>54)</sup>

1910년 유명한 잠수선수인 안네 켈러만(Anne Kellerman)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그녀의 환상적인 잠수묘기로 모든 사람을 현혹시켰다. 그녀가 착용한 의상은 긴 소매의 원피스형의 니트로 된 것이어서 소매를 제외한 나머지

---

54) Suzanne Lussier, *Art Deco Fashion* (London : V&A Publications, 2003), p. 53.

지 부분이 바디 스타킹을 연상시켰다.

이것은 그 당시 패션에 스캔들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으나 그로 인해 광고에서 니트로 된 수영복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 당시 수영복의 대부분은 울로 만들어졌지만 초기 광고에서는 몸에 밀착되는 실크 소재의 니트로 된 것도 있었다.

안네 켈러만(Anne Kellerman)은 최초로 원피스 수영복을 발전시켰고 누구보다도 수영복 산업을 통해 초기의 니트 산업을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스포츠웨어 시장의 선각자로서 기여하였다.<sup>55)</sup>

이러한 스포츠 여성들의 영향으로 패션은 더 자유롭고 기능적으로 변화되었고 특히 니트웨어 디자인 전반에 밀접한 영향을 주면서 발달하였다.

특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 일가가 니트를 입은 모습이 마스크를 통해 알려지면서 니트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 스포츠 의류부분에 확산되었다.

또한 젊음과 자유를 추구하는 사회풍조는 패션에 있어 가볍고 신체를 억압하지 않는 신축성있는 소재의 유행을 불러 일으켰고, 운전, 골프,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에 적당한 따뜻하고 편안한 니트웨어는 부유한 계층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요소가 되었다.

그 결과 보온성, 신축성 등을 가진 편성물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소품이나 속옷의 범위에 머물렀던 편물이 유행 복종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기능주의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처음으로 다리를 들어내었고 실용적인 니트웨어를 선호하게 되었다. 니트웨어를 처음으로 패션으로 끌어들이는 디자이너는 프랑스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이었다.

샤넬은 저지의 편안함과 드레이프성을 이용하여 스웨터와 드레스에 이르기까지 저지를 사용하였고, 저지를 직물의 감각으로 패셔너블한 타운웨어에 응용, 확대시키는 데에 기여한 최초의 디자이너였다.

1929년에 그녀는 여성들이 스포티하고 편안한 옷을 원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간단한 드레스, 슈트와 일하는 여성을 위한 남성적인 분위기의 폴오버를 만들었는데 이것의 유행으로 남성복에서만 착용되었던 스웨터가 유행되기 시작하였다.

샤넬은 처음으로 기능성을 살린 니트 재킷, 니트 점퍼, 누빈 코트, 주름치마를 고안하였고, 저지를 정장에 사용하는 등 니트의 여성복을 일반화시키고 니트를 정교복장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였다(그림 21).<sup>56)</sup>

55) Maggie Pexton Murray, 채금석 역, 패션세계 입문 (서울 : 경춘사, 1997), p. 205.

56) 신상옥,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 수학사, 1991), p. 330.

이 시기의 니트웨어는 스포츠의 열풍에 힘입어 스포티한 감각과 유니섹스의 이미지를 보여주었고, 모던하고 심플한 박시(boxy)라인의 실루엣이 주류를 이루었다. 단색의 기본형 외에도 많이 보여지는 패턴으로는 다양한 줄무늬, 기하학적인 패턴이 있었으며, 디테일로는 보더(border) 무늬에 약간의 배색을 살리거나 가장자리선을 바이컬러(bi-color)배색함으로써 포인트를 주었다.<sup>57)</sup>

한편 1927년 엘자 스킴파렐리(Elsa Schiaparelli)는 파리에서 손뜨기로 만든 트롬프 뢰이유(trompe-l'oeil : 착시)를 이용한 초현실적인 경향의 니트 디자인을 발표하였는데, 가슴에 큰 보우를 붙인 흑백의 스웨터(그림 22)에 이어 목에 감는 화려한 색의 행거치프(handkerchief), 신사용의 색깔이 있는 타이, 허리둘레를 감는 행거치프 등을 계속적으로 내놓아 유행시켰다.

그녀는 아르데코(Art Deco) 양식의 영향을 받아 기하학적인 패턴을 이용한 니트와 액세서리를 착용한 초현실적인 경향의 작품을 보였으며 현대 니트 디자인의 선두주자로서 예술을 패션에 선보였다고 할 수 있다.

소재는 주로 중번수의 모 소재를 사용하였고 전반적으로 겉뜨기(plain stitch)로서 클래식한 느낌을 주었다. 골프와 같은 운동복용으로 전통적인 아가일(argyle) 디자인에 기초한 다이아몬드 패턴의 모로 된 양말이 남녀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으며, 여름용으로는 면 소재의 짧은 양말이 유행되었다.

남성들은 정장 외에 캐주얼웨어로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그 위에 니트와 승마용 바지를 즐겨 입었고<sup>58)</sup> 기하학적 문양의 여러 색을 혼합하여 짠 웨어 아이슬(Fair Isles)패턴(그림 23)이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하였다.

또한 집에서 쓰여진 교차하는 체크 패턴의 폴오버나 전통적인 스코티쉬 디자인이 트워드 정장이나 스포츠 코트와 베스트 대신에 착용되었다. 이는 주로 '플러스 포즈(plus fours)'라 불리는 헐렁한 반바지와 긴 양말과 함께 착용되었으며 같은 무늬로 된 것이거나 폴오버와 같은 무늬가 끝에 들어가 있었다.<sup>59)</sup>

웨어 아이슬 패턴은 1588년에 영국에서 아르마다(Armada)로 오는 스페인 범선 중 하나가 웨어 아이슬에서 난파되었는데 그 지방 주민이 그 스페인 선원의 의복에서 본뜬 패턴이 웨어 아이슬의 고유 문양으로 정착되었고 후에 자카드로 발전

---

57) 최경희, 이순홍, “현대니트웨어의 디자인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Vol. 3, No. 4, 1999, p. 120.

58)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98), p. 371.

59) David Bond, 정현숙 역, 20세기 패션 (서울 : 경춘사, 2000), pp. 81~82.

되어 오늘날에도 널리 입혀지고 있다.

한편 니트웨어는 군용으로 가내에서 많이 생산되었는데 물자가 귀했던 전시동안 여성들은 니트웨어가 자신들의 의상으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연료가 부족한 당시 몸의 보온 유지를 위해서도 유용하게 인식되어져 니트웨어가 패션 아이템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60)

## 2) 보급기

1929년 뉴욕의 주식시장의 대폭락과 경제공황은 사회불안과 정치적 혼란 및 실업률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여성들은 일자리를 잃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복식은 다시 여성스러움이 강조되기 시작되었다.

미국 사회의 대중문화가 유럽을 지배하였고 이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예술은 더욱 대중화되었고 특히 영화의 보급은 패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유럽 중심에서 떨어진 에이레의 아란 군도(Aran Islands)에서 발달한 니트가 1930년대 중반 런던 등지에서 알려지게 되면서 아란 니트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매우 대중적인 의상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굵은 패턴의 효과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여전히 애용되고 있다(그림 24).

불황시대 동안 미국에서는 낡은 스웨터에 변화를 주기 위해 가디건을 병행한 복장이 여대생들 사이에서 착용되었다. 1935년 ‘스웨터 걸(sweater girl)<sup>61)</sup>’이라는 영화로 15세의 라나 터너(Lana Turner)를 일약 스타로 만들 정도로 스웨터는 인포멀(informal)한 옷이 되었다. 미국의 젊은 세대의 소녀들은 블라우스나 스웨터를 입고 짧게 플레이지거나 플리츠된 스커트에 흰 양말과 운동화를 신었고, 이들은 ‘사춘기의 소녀’로 불리웠다.<sup>62)</sup>

1930년대의 니트웨어는 1920년대의 심플하고 직선적인 디자인에서 보다 페미닌한 방향으로 나아가 조직과 디테일이 보다 다양해졌고, 실루엣도 여성의 몸매를 더욱 잘 나타내도록 몸에 꼭 끼는 스타일이 많았다.

---

60) David Bond, 위의 책, p. 49.

61) 스웨터 걸(sweater girl):1940년대에 몸에 꼭 맞는 가슴이 강조된 풀오버 스타일의 스웨터를 착용한 섹시한 여인을 가리키는 속어이다. 여배우 라나 터너가 이런 스타일을 착용하고 영화에 등장함으로써 더 유행하였다.

62) David Bond, 앞의 책, p. 123.

1920년대의 기본형 위주에서 벗어난 다양한 조직과 디테일을 살린 몸에 피트(fit)되는 폴오버나 블라우스 형태의 가디건 외에도 재킷, 드레스, 슬림한 스커트 등 니트웨어의 아이템의 종류도 많아졌다. 조직을 살린 텍스처가 중요해져서 하였고, 특히 사선의 바이어스 조직이 많았다.

이 시기에는 조직을 중요시하여 터크뜨기(tuck stitch), 교차뜨기(cable stitch), 고무뜨기(rib stitch), 각종 장식적인 수편무늬 등의 조직 외에도 체크나 규칙적인 꽃무늬, 줄무늬 패턴을 많이 사용하였고 하나의 아이템에 두 개 이상의 다른 조직을 살린 정교한 디자인이 선보였다.

1930년대 니트웨어의 디자인은 페미닌한 분위기의 자수, 리본, 셔링 등의 여성스럽고 섬세한 디테일이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니트웨어의 우븐화 경향이 두드러져 더욱 디테일이 많아졌다.

1920년대의 라운드, 스퀘어 네크라인에서 벗어난 다양하고 페미닌한 칼라의 디테일과 소매의 터크, 셔링, 가슴 윗부분의 단추 장식으로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었다. 그 외에도 비대칭 여밈 처리, 니트 벨트로서 허리를 강조하는 등 많은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다.<sup>63)</sup>

1936년에는 스위스에서 파사프(passap)라는 수편기가 발명되었고, 값싸고 세탁이 쉬운 인조섬유의 개발로 인해 대량 생산화되어 다양한 가격과 스타일의 기성복이 생산되었다.

1940년대 초반의 전쟁 기간 동안 옷감이나 뜨개질용 털실은 배급제로 공급되었으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많은 여성들이 대단히 알뜰하게 생활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가정에서의 뜨개질이 성행하였고 여성용 잡지는 뜨개질을 위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폴오버, 드레스, 액세서리에 대한 정규적인 그림을 실는 등 일간 모드지는 위크엔드 웨어, 스포츠웨어 보급에 기여하였다.

1940년대 동안 부유한 사람들은 교외의 생활을 즐기며 편안한 생활 방식을 취하였다. 이들을 위해 재킷, 블라우스, 니트웨어, 셔츠, 바지, 스커트 등의 서로 바꾸어 착용할 수 있는 세퍼레이츠 복종이 점차 유행하기 시작하여<sup>64)</sup> 터틀넥의 폴오버, 가디건 등이 많이 입혀졌다.

1940년대의 니트웨어는 밀리터리의 경향으로 점점 심플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실루엣도 1930년대보다는 약간 여유가 있었고 길이도 다소 길어졌으나, 여전히

---

63) 최경희, 이순홍, 앞의 글, p. 120.

64) David Bond, 앞의 책, p. 142

바디 컨셔스의 실루엣을 유지하였으며 소매산에 터크와 패드 처리를 하여 어깨를 강조하였다.

파임이 적은 라운드 넥라인, 셔츠 칼라, 작은 리본 장식 디테일의 풀오버, 베스트(vest) 등의 아이템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배색한 조끼, 줄무늬나 사선 배색, 단순한 민속조의 패턴 등으로 변화를 주었고 강한 컬러의 대비, 다양한 포켓의 디테일로 강조하기도 하였다(그림 25).

아크릴 소재를 이용한 니트의 대중화와 더불어 모나 모헤어, 앙고라 등 헤어리한 소재 등 점점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였고 3도의 멀티 컬러를 이용한 보다 대담한 배색을 사용하기도 하였다.<sup>65)</sup>

1950년대는 전쟁 후 경제의 발달과 자본의 축적으로 대량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 패션의 상업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미국은 적절한 가격의 캐주얼 위주의 단품을 생산하는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어 그 결과 스포츠웨어와 세퍼레이트(seperate) 아이템이 유행하였고, 안에 받쳐 입는 폴로 넥의 턱받이 착용이 큰 인기를 얻었다.

또한 반바지, 하이힐과 함께 착용한 바디스에 꼭 맞는 스웨터는 외설스러운 것처럼 생각되었으나 스웨터 그 자체는 여대생의 제복이 되다시피 했다.<sup>66)</sup>

1950년대 들어서 이탈리아의 멋있고 세련된 니트웨어의 등장은 스포츠 활동에나 적합하다고 여겨져 오던 니트웨어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놓았다.

한편이태리 니트 디자이너인 미르사(Mirsa)는 니트를 실용적인 용도로부터 패셔너블한 정장으로까지 확장시켰다.<sup>67)</sup>

그 외에도 미소니(Missoni), 베네통(Benetton), 스테파넬(Stefanel) 등 본격적인 니트웨어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종류의 니트웨어 제품을 생산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캐주얼 니트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의 니트웨어는 여성미와 캐주얼성을 살린 코디네이트 단품으로 한결 고급스러워지고 세련되어졌다(그림 26).

을 심플하게 전개되었고

디자인은 라글란 소매의 슬림한 풀오버와 가디건 등 보다 세련되어졌고 심플해진 가운데 자수, 비딩 등의 섬세한 디테일 외에도 스위트 하트 넥라인

---

65) 최경희, 이순홍, 앞의 글, p. 121.

66) 정홍숙, 앞의 책, p. 187.

67) J. Anderson Black 외, 앞의 책, p. 221.

(sweetheart neckline), 오블롱 칼라(oblong collar), 윙 칼라(wing collar), 가디건 네크라인(cardigan neckline), 크로스 머플러 칼라(cross muffler collar), 스카프 칼라(scarf collar) 등의 젊고 감각적인 혹은 캐주얼한 칼라가 많이 나타났다(그림 27).

### 3) 발전기

1960년대에 와서 자유로운 양식을 바탕으로 하는 캐주얼 웨어와 스포츠 웨어가 발달하였고 세퍼레이트 복종이 일반화되었다.

패션에 있어서 로맨틱한 스타일을 거부하고 복식의 양성화,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소년같은 양성적인 유니섹스 모드가 나타났고 영국이 패션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1960년대의 니트웨어는 진과 함께 젊은 층에게 선호되었고 인조섬유의 발명과 가공법의 발달과 편직 기계의 자동화로 더욱 발달하였다.

또한 패션의 스포츠화의 영향으로 니트웨어는 대담한 스포티한 탱크톱과 슬리브리스(sleeveless) 원피스가 유행되었고 기하학 패턴, 옵티컬(optical), 단색이나 멀티 컬러의 줄무늬 또는 한 스타일에 여러 컬러로 배색하는 기법으로 연출되었다.

니트 소재로는 비스코스사(viscose yarn), 아세테이트사(acetate yarn), 나일론사(nylon yarn), 폴리에스테르사(polyester yarn) 등의 화학사와 알파카나 모를 혼방한 여러 혼방사 외에도 금속사(lurex yarn)의 혼방으로도 화려해지기도 하였다.

영국에서 시작한 비트 룩(Beat Look)은 창백한 얼굴을 한 젊은이가 온통 검정색 일색의 가죽 슈트, 외투, 털실로 짠 모자, 하이 터틀넥의 스웨터 차림을 하였는데,<sup>68)</sup> 몸매를 드러내는 굵은 고무뜨기 조직의 스웨터(그림 28)가 남녀 젊은이들에게 유행하였다.

또한 작은 사이즈의 발달한 모양의 파스텔색상의 고무뜨기 풀오버는 ‘스키니 리브’로 불리워졌고 최대한 작고 타이트하게 만들어져 아동복으로 만들어진 니트를 대신 착용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 크림색이나 부드러운 파스텔조의 크로세 드레스(그림 29)가 유행하였다. 단순한 모양의 미니 스커트였으며 연한 레이스로 장식한 타이즈와 함께 착용되었고 <sup>69)</sup> 크로세기법의 비키니(bikini) 차림과 레이스 조직의

---

68) 신상욱, 앞의 책, p. 355.

니트 드레스(그림 30)가 유행되었다.

1960년대 이후 미술의상 작가들은 니트 기법을 섬유예술 재료로 응용하여 니트를 예술의상의 한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핸드니팅을 예술의 매개체로 하는 미술의상분야에서 니트웨어는 종래의 수공예적인 차원에서 탈피하여 조형성을 강조한 창조적 예술세계와 미적 개념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제작되었다.<sup>70)</sup>

1970년대의 전반부는 복고풍의 로맨티시즘을 표현한 레이어드 룩이 유행하였고, 후반부는 레이어드 룩(layered look)이 계속 성행하면서 전원풍의 페전트 룩(peasant look), 민속풍의 히피 룩(hippie look),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이 주류를 이루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쾌적성, 활동성, 미적 감각을 최대한 살린 스포츠웨어가 발달하게 되었다. 여가복으로의 개념이 강조되어 편안한 의상에 대한 추구가 가속화되어 니트웨어는 무늬를 넣은 스웨터, 긴 가디건, 고무뜨기로 만든 팬츠, 니트 모자, 머플러 등 다양한 아이템과 디자인으로 개발되어져 블루진과 더불어 대중화되었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의복을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의 의복을 층층이 겹쳐 입어 색상이나 소재 등의 겹쳐 입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효과로 각자의 개성이 표현되는 레이어드 룩과 헐렁한 이국풍의 빅 룩(big look)이 유행하였다.

루즈하고 박시(boxy)한 실루엣의 니트웨어가 선보였는데 남성복에서 유래된 브이 넥(v-neck)의 니트 베스트와 니트 카디건이 특히 많이 입혀졌다. 또한 줄무늬, 아가일 패턴, 기하학적이고 규칙적인 남성적인 패턴 등이 많이 사용되어졌다.

니트웨어의 패턴으로는 에스닉한 분위기의 페이즐리, 꽃, 추상문양, 구상문양, 복합문양, 연속문양, 민속풍 문양 등 다양한 패턴들이 개발되었으며, 패턴 온 패턴(pattern on pattern) 등 패턴의 복합화와 멀티화의 형식으로 세분화되었다.

니트웨어의 유니섹스화의 영향은 니트웨어에도 반영되어 문양의 크기가 더욱 커졌다.

니트웨어의 소재로는 멜란지사<sup>71)</sup>를 사용한 트위드 타입이나 셰틀랜드사<sup>72)</sup>가

69) David Bond, 앞의 책, pp. 209~210.

70) Debby Robinson, *op. cit.*, p. 12.

71) 멜란지사(mellange yarn): 소모사를 만들 양모 섬유의 뭉치를 줄무늬 모양으로 날염한 후 방적하여 만든다. 염색된 섬유와 염색되지 않은 섬유가 합쳐져 독특한 색상을 지니는 소모사를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72) 셰틀랜드사(shetland yarn):셰틀랜드 양에서 얻어지는 가늘고 광택있는 섬유로 긴 양모 밑에

유행되었다. 색상도 브라운, 베이지, 카키, 네이비, 그레이, 아이보리 등 내추럴톤이 강세를 보였고 배색 컬러로는 레드, 그린, 블루 등의 강한 색이 사용되었다.

소재도 자연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면, 마 등의 천연 섬유와 천연 염색한 소재가 선호되었다. 또한 일본, 중국, 아프리카 등의 독특한 민속 스타일이 가미된 민속풍의 에스닉 룩이 유행하였다.

<그림 31>은 겐조(Kenzo)가 1981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밝은 색상과 복잡한 패턴의 오리엔탈 카펫 디자인을 연상케 하는 장식적이고 레이어드된 겉옷은 코오디네이트된 액세서리에 의해 토탈룩을 연출했다. 4도 패턴의 자카드 기법과 자수는 겐조의 컬렉션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지속적으로 표현되었다.

1980년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에어로빅, 헬스 등의 운동이 더욱 유행하였고, 쾌적성, 활동성, 미적 감각을 최대한으로 살린 신기술과 감성이 접목된 스포츠웨어가 발달하게 되었다.

한편 환경보호의식이 태동한 1980년대에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이의 영향으로 자연 소재를 선호하였고 꽃무늬나 자연의 문양이 주로 사용되었다. 자연스러운 선을 강조한 에콜로지 룩(ecology look)이 유행되었고, 부드러운 편성기법과 천연섬유로 만든 편안하고 자연스런 니트웨어들이 더욱 각광을 받았다.

잇세이 미야게(Issey Miyake)와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레이 카와쿠보(Rai Kawakubo)등 일본 디자이너들의 활약으로 비구축적인 디자인의 재패니즈 룩(Japanese look)이 1980년대 초반에 유행되었으며, 드레이프성이 좋은 편성물들이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에 주로 사용되었다.

1980년대에는 니트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여 니트가 가장 여성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인식 하에 포멀한 정장형의 니트웨어부터 캐주얼한 단품까지 인기를 더하였다.

또한 민속풍의 자카드 무늬를 응용하거나 직물과 혼용되기도 하여 니트의 기술 혁신과 문양의 전문화를 이루었다. 전반적으로 돌만 슬리브나 어깨가 강조된 루즈(loose)한 실루엣이 주류를 이루었고 포클로어(folklore), 에스닉(ethnic)풍의 문양이나 기법을 살린 니트 디자인들이 강세를 이루었다.

특히 니트웨어의 중의류가 많아져서 니트로 된 코트, 재킷, 케이프 등의 다양한

---

나는 부드럽고 짧은 털을 뽑아서 만든 것을 말한다. 백색, 갈색, 또는 회색의 각종 자연색이 있으며 값이 비싸다.

아이템이 널리 입혀졌다. 풀오버류의 경우에는 오프 터틀넥(off-turtle neck)의 헐렁한 풀오버를 겉옷 개념으로 입는 것이 유행하였으며, 니트로 만든 모자, 머플러, 장갑 등의 소품과 함께 토털 코오디네이트가 되어져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니트 소재로는 자연소재의 비중이 커져 겨울에는 특히 양고라나 모헤어와 같은 동물의 털이 선호되었고 여름에는 면, 마, 실크 등의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sup>73)</sup>

그 외에도 1980년대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넵얀(nep yarn)<sup>74)</sup>, 슬러브얀 (slub yarn)<sup>75)</sup>, 부끌레얀(boucle yarn)<sup>76)</sup>, 셔닐얀 (chenille yarn)<sup>77)</sup>, 헤어리(hairy)소재의 팬시얀(fancy yarn)을 원료로 한 니트웨어의 신장세가 뚜렷해졌고, 특히 표면이 거칠거나 표면효과가 큰 부끌레얀이나 신축적인 저지(jersey)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 시대에는 무늬제품에 있어서의 여러 종류별 소재의 선택 경향은 원사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소재의 다양한 개발과 함께 멀티 컬러얀 (multi-colored yarn)이나 2~3종의 원사를 합사하거나 혼합하여 효과를 낸 소재가 두드러지게 많았다.<sup>78)</sup>

1980년대 니트웨어의 패턴은 에스닉한 줄무늬, 민속조의 자카드 문양, 웨어 아이슬 문양, 또는 기하학 패턴(그림 32)과 꽃 패턴 등의 복합문양 등 보다 세분화되고 특히 면분할하여 강하게 배색(그림 33)하거나 미술사조에 따른 아트적인 분

---

73) 서제일 외, 니트 산업의 구조와 발전방향(서울 : 한국섬유기술연구소, 1987), p. 49.

74) 넵얀(nep yarn) : 장식사의 한 종류로, 실의 표면에 매듭과 같은 것이 간헐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실을 말한다.

75) 슬러브얀(slub yarn) : 장식사의 일종으로 조반사, 시반사, 절사라고도 불리운다. 굵기가 일정치 않으며 군데군데 슬러브, 즉 마디가 있는 실이다. 주로 천에 불규칙적인 효과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76) 부끌레얀(boucle yarn) : 장식사의 일종으로 실의 곳곳에 고리가 있는 장식 연사이다. 보통 니트나 방모직물 등에 많이 사용한다.

77) 셔닐얀(chenille yarn) : 자수의 가장자리 장식용 실의 일종으로 셔닐 직물을 만들 때 위사로 사용한다. 셔닐 직물은 조직상 평직이나 위사로 쓰인 셔닐사의 털이 직물의 표현에 나타나면서 과일 직물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셔닐사는 경사 몇 올을 약산의 간격을 두고 배열한 후 파일이 될 실을 위사로 사용하여 제직하고 이를 경방향을 절단하여 꼬아줌으로써 털이 붙은 굵은 실을 얻는다.

78) 섬유연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5, p.152.

위기의 인타샤 문양으로 강렬하고 성숙된 분위기를 나타냈다.

또한 니트 패션 전문업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니트가 이너웨어에서 아웃 웨어로 발전하는 등 니트웨어 디자인 전반에 걸쳐 디자인력(力)이 확립된 시기였다.

#### 4) 성숙기

현대의 니트 패션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르면서 성숙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니트 디자인 측면에서의 토탈화와 패션화, 기술력의 향상이 이루어져왔다.

1990년대는 1980년대에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복식 현상들이 다소 세련되게 정돈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리사이클 패션이 나타났다.

에콜로지(Ecology) 테마가 1980년대에 이어 더욱 확산되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천연섬유로 만든 니트웨어들이 더욱 각광을 받았다.

또한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요를 중시하며 정신적 세계에 대한 향수로 인해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재구성되어 에스닉 스타일(ethnic style), 그런지 스타일(grunge style), 네오 히피 스타일(neo hippie style), 네오 클래식 스타일(neo classic style)등이 1990년대의 두드러진 세계 패션의 흐름으로 나타났다.<sup>79)</sup>

계속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복고풍이 다시 강조되었는데 특별히 어떤 양식이 정해져있지 않고 잘 어울린다고 느껴지는 것을 규칙에 얽매이지 않게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소득과 문화수준의 향상에 따라 레저, 스포츠 활동으로 여가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의 정착에 따른 이지 웨어(easy wear) 붐과 함께 편안하고 활동성있는 니트웨어가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입혀지면서 신축성있는 신소재의 간편한 니트웨어들이 활발히 개발되었다.

1990년대의 니트웨어는 새로운 소재 개발과 함께 컴퓨터 전자 등 니트 기계의 출현에 의해 다양한 조직이 정교화되고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개성있고 다양한 스타일로 입혀졌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니트의 패션화가 본격화되어졌고 니트웨어의 형태와 기법 면에서의 자유로운 독창적 표현 양식으로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

79) Valerie Mendes, Amy de la Haye, 김정은 역, 20세기 패션 (서울 : 시공사, 2003), p. 407.

니트웨어의 대표적인 실루엣을 살펴보면 신체에 피트(fit)되는 라인과 슬림(slim)한 내추럴 라인을 들 수 있다. 신축성있는 신소재의 개발로 더욱 유행하게 된 스포츠 룩과 미니멀리즘에 의한 영향으로 신체에 피트되는 라인이 유행하였다.

복고풍의 영향으로 클래식한 기본형 니트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입혀지는 가운데, 에이지의 세분화 및 패션무드의 세분화에 따른 니트 디자인의 복잡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소재의 다양한 응용과 개발, 그리고 창조적인 디자인 영감과 생산기술의 전자동화에 힘입어 더욱 복잡화되고 정교하게 디자인되어져, 더욱 개성적이고 창조적인 예술경지에 까지 이르렀다.

다양한 조직을 살린 디자인 외에도 기하학적 문양, 민속풍의 문양, 동물이나 꽃등을 주제로 하는 자연문양, 예술사조에 따른 다양한 문양 등이 많이 사용된다.

소재도 천연소재의 선호와 함께 점점 고급화되고 복잡화되는 가운데 하이테크한 소재가 많이 응용되었으며,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다양한 가공에 의한 텍스처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1995년을 전후해서 현재까지의 패션에 나타난 니트웨어는 형태와 기법 면에서의 독창성 면에서 매우 놀랄만한 것이며 그 조형적 가치는 예술성으로 인정을 받을 만하다. 크로세, 니트, 슬래쉬, 엮기, 자수, 프린트, 퀼트, 패치워크, 플라주, 어플리케, 비딩 등 공예적 기법을 응용하여 니트에 접목시키면서 니트의 표현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각기 다양한 변화와 테크닉의 복합성으로 더욱 독특한 미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3>은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을 근거로 현대 니트웨어의 년대별 변천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4>는 현대 니트웨어의 디자인 변천을 각각 정리한 내용이다.

<표 3> 현대 니트웨어의 년대별 변천

구분 시대		사회·문화 적 배경	이미지	실루엣	디자인	문양	소재	색채
도 입 기	1920년대	기능주의 신여성등장 Jazz 스포츠	스포티 심플 모던 유니섹스	직선적 라인 튜닉형	모던 유니섹스 스포티감각	줄무늬 기하학 무늬 웨어 아이슬 조현실주의	모사 면사	단색 Bi-color
보 급 기	1930~ 1950년대	경제공황 영화보급 제2차 세계대 전 기성복화	페미닌 밀리터리 소프트 심플	피트 슬림 어깨 강조 라클란 소매	페미닌 스웨터 길 리본 장식 벨트, 단추, 포켓 등의 디 테일 아란 스웨터	체크, 멀티줄무늬 사선조직 단순한 민속 풍 패턴	인조섬유 아크릴사 팬시효과 헤어리스 면·모 혼방	비비드/덜톤 대담한 배색 파스텔계열
발 전 기	1960년대	월남전 신좌파/히피 비틀즈/ 락 스타 팝아트 오페라 아폴로 11호	유니섹스 영(young)화 캐주얼 밀리터리 스포티	슬림 직선형 내추럴	토틸코오디 네이션 리브/터틀류 크로세 핸드니팅	기하학 무늬 옴티컬 줄무늬/멀티 컬러 줄무늬	루렉스사 각종 화학사 알과카 모혼방	브라이트톤 컬러풀 배색 블랙
	1970~ 1980년대	여성운동 오일쇼크 경제적 불황 에콜로지	에콜로지풍 레이어드 룩 유니섹스 캐주얼 엔드로지너스 제페니즈 룩	빅(big) 박시 루즈	컴퓨터화 유니섹스 페전트 룩 히피룩 밀리터리 룩 인타샤 패치워크	아가일 자카드화 에스닉 패턴 꽃패턴 민속 조/기하 학/추상무늬/ 동물문양 pop	멜란지사 트위드사 세틀랜드사 넵/슬러브/ 부클레/ 헤어리 등의 팬시양 모/면/마/실크	내추럴무드의 베이지, 카키,그레이 액센트컬러: 레드/그린/ 블루/핑크/ 오렌지등 비비드 컬러
성 숙 기	1990년대	포스트모더니 즘 리사이클 복고풍	에콜로지 지향 스포티 캐주얼 에스닉 그린지 네오 히피 네오 클래식 아방가르드	피트(fit) 내추럴	핸드니팅 복합화	다양한 조직 자카드 기하학 무늬 민속조 자연문양 예술 운동에 따른 다양한 무늬 수공예기법	복합소재 하이테크소재 모/면/마 라이크라	도회적인 베이지 컬러 액센트 컬러
	2000년대	혼성 하이브리드 다문화주의 테크놀로지	신자연주의 스포츠 룩 아방가르드 장식주의 빈티지	피트 슬림 루즈	무봉제 니트 핸드니팅 복합화 비대칭 토탈화 탈구성 예술화	세련된 자카 드 다양한 조직 변화 수공예기법 멀티컬러 스 트라이프 다양한 문양	복합소재 하이테크소재 천연소재 텍스처 증시	다양한 톤의 색상 멀티컬러

(연구자 작성)

## 2. 현대 니트 산업의 현황

현대 니트 산업은 컴퓨터에 의한 편직기계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 응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신소재의 개발은 인체에 대한 새로운 미를 제시해 주었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편물은 제작시 고도의 신속성과 정밀성을 지녔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이 내재된 미래 지향적인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sup>80)</sup>

1970년대 이후 많은 예술가들은 아트로서의 니트 소재를 개발하고 복합적인 표현 방식과 다양한 주제의 니트 작품을 발표해 예술적 가치가 있는 미술의상 분야로 발전시켰다.

또한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토탈 코오디네이트화가 이루어져 액세서리, 인테리어 전반까지 감각적이고 패셔너블한 품목으로 인식되었다.

이를 근거로 현대 니트 산업의 현황을 기술적 측면, 예술적 측면, 토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1) 기술적 측면에서의 현황

기술의 진보와 발달은 현대인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패션에 있어서도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해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니트 기계 산업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독일은 특히 경편니트 기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1970년대의 한편 더블저지는 대부분 컴퓨터에 장착된 디자인(CAD)의 패턴 시스템에 의해 편성되었다.

그 이후로 각각의 니들의 선택과 더불어 경편니트 기계에 적용된 전자 조절은 패턴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독창적이고 다양한 많은 범위를 부여하여 손뜨개의 느낌을 초월한 우수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이 원리는 정교한 CAD패턴 준비 시스템이 기계생산에 직접 연결되어진 것으로 전자 기계조절과 함께 디자인 시스템으로부터 패턴 준비데이터가 기계언어로 변환되어지고 니팅 결과의 데이터가 니팅 기계에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

80) 최은희, "미술의상에서의 Knitwork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 41~43.

81) Sandy Black, *op. cit.*, p. 178.

또한 이것은 니트의 생산시 디자인 작업이 생산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디자인, 생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어디에도 연결되어진다.<sup>81)</sup>

현대 니트 산업의 기술적 측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양말, 장갑, 란제리와 최근 니트 제품에서 활발하게 개발되어지는 무봉제(일체 성형 : integral)니트와 혁명의 옷 개념인 잇세이 미야개의 A-POC<sup>82)</sup>을 들 수 있다.

또한 현대 니트 패션에서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능성을 가진 신소재의 사용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이테크의 미적 표현도 함께 시도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새로운 미적 아름다움을 부여한다.

따라서 현대 니트 패션의 기술적 현황으로 크게 무봉제 니트와 A-POC, 신소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무봉제 니트

홀 가먼트(Whole garment, 무봉제)란 기존의 앞판, 뒤판, 소매를 각각 따로 편성한 다음 함께 봉합하던 것을 한 개의 조각으로서 삼차원적 편성을 할 수 있는 기술과 편성품을 뜻한다. 나아가 홀 가먼트 기계는 컴퓨터 횡편기에서 봉제가 필요 없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편기를 의미한다.

이 혁신적인 횡편기는 소매와 몸판에서 동시에 코를 형성하여 편기에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어깨부분과 칼라부분 등을 성형(full fashioned knitting)을 하여 만들 수 있으며 크게는 V(2가지 needle beds)와 X(4가지 needle beds)형의 횡편기로 구분된다.<sup>83)</sup> 이 편기는 생산의 마지막 단계인 재단, 봉제, 링킹과 같은 작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재단에서의 로스(loss)를 막을 수 있으며, 홀 가먼트 기술에 따라 필요한 수의 스웨터만을 즉각 편성할 수 있어 편성하는 데 드는 니트 타임이 단축된다.

홀 가먼트 기술은 기본 스웨터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템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

82) A-POC : 옷의 A 피스를 위한 보기와 신기원 단어를 이용한 용어로 1997년 잇세이 미야개 스튜디오 디자인팀의 하나인 데이 후지와라(Dai Fujiwara) 사이의 합작 연구로 디자인 실험이다.

83) Fashion Business Society Committee, *Terms for Knit Fabric 109 Selected Terms*(Japan : Textile Terminology Research Bunka Women's University, 1999) p. 82.

84) Textile Times, 2003, 5, “무봉제 니트 생산으로 주목받는 아이디모드,” pp. 132~133.

모자, 스카프, 가디건, 베스트, 재킷, 코트, 점프 슈트, 드레스, 스커트, 레그 워머, 타이츠, 양말 등을 한 조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무봉제 니트를 생산하는 홀 가먼트 편직은 유럽에서는 약 2천대의 기계가 있을 정도로 제품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아한 실루엣과 편안한 바디 라인을 형성하여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편직물의 생산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sup>84)</sup>

<그림 34>는 스톨사의 2003년 S/S 제품인 ‘멀티 게이지 드레스’로서 한 벌의 옷 안에서 게이지를 많이 차이가 나게 하여 만든 것으로, 목선 끝과 비치는 어깨 부분의 무봉제 기법이 조화를 이루면서 어깨와 소매의 일부분을 자연스럽게 시스루 효과를 내게 디자인한 홀 가먼트 제품이다.

<그림 35>는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이 2004년 F/W에 발표한 무봉제 니트 드레스이다. 신체를 유연하게 흘러내려오는 닥트 라인을 무봉제로 입체적으로 제작하였다. 극세번수 하이테크 소재를 살려 니트의 유연성과 인체의 완벽한 몸매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터틀넥과 스커트 부분의 후레아의 부분 처리가 무봉제 니트로서 제작되어져 신체를 따라 흘러나오는 입체적인 완벽한 아름다운 실루엣을 연출한다.

그 외에도 무봉제 기술에 의한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성형(成形)을 발전시킨 편직 기술로 인터그럴 니팅(integral knitting)을 들 수 있다(그림 36). 이 인터그럴 니팅은 일반 편직 시에 가공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칼라, 주머니, 옷깃, 단추구멍, 마크, 주름 등과 같은 부속들의 접합공정이나 단추구멍과 같은 후가공 공정들을 편기의 편성공정에서 복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편성방법이다.<sup>85)</sup>

무봉제 편직 기술은 기존의 편직 공정에서의 가공 공정과 봉제선이 없으므로 소량 다품종 생산에 가장 알맞으며 편성물 의복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들을 함께 편직함으로써 좀더 우수한 외관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한 벌을 통째로 그대로 짜 올라가는 이 방법은 시간과 코스트 면에서 공급의 흐름을 바꾸게 되었고, 후가공마저 없애 니트업계를 노동 집약형 산업에서 현대적 산업으로 탈피시켰다.

## (2) A-POC

---

85) Sandy Black, *op. cit.*, p. 178.

A-POC 개념은 ‘기술의 이미지화와 적용의 동시적인 도약’을 뜻한다. A-POC (옷의 A 피스를 위한 보기와 신기원 단어를 이융합)은 잇세이 미야게(Issey Miyake)와 잇세이 미야게 스튜디오 디자인팀 소속의 데이 후지와라(Dai Fujiwara) 사이의 합작연구이다.

1997년에 처음 소개되었고, 고객이 참여하는 과정 안에서의 전체 과정이 계속된 작업으로 총 4개의 단계 안에서 시도되었다.

A-POC의 근본적인 원리는 잇세이 미야게가 1970년에 원단 한 조각으로 최대를 창조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즉 A-POC의 작업은 제작 과정에서 로스가 전혀 없이 최소로 재단하고 봉제하며 후가공이 없는 과정으로서 그가 스튜디오를 설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연구해오던 것이었다. 이것은 좁은 천으로 된 하나의 긴 롤(roll)로부터 만드는 기모노의 클래식한 구조와 비슷하다.

A-POC은 컴퓨터로 조정되어, 각각의 연결 스티치가 수직적으로 따라서 생기는 화인 매쉬로부터 섬유를 만드는 경편니트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다.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그래픽 패턴을 만들고 매쉬의 내부의 패턴과 함께 3차원적 의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의상을 풀고 열었을 때 세분화된 튜블러(tubular) 형태를 만들기 위해 큰 튜브 안에서 옷 형태의 윤곽이 디자인되어진다.

절개라인은 각각의 경편 실들이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지 않은 틈에 의해 연결되어지면서 미묘하게 윤곽을 그려진다.<sup>86)</sup>

첫 번째의 A-POC에서는 애매한 패턴과 옷과의 식별할 수 있는 임시의 간격을 만드는 것에 확신이 없었다. A-POC의 발표 당시에는 옷에 술이 달린 롤에 가위를 사용하여 하나씩 옷이 풀어지는 것을 보여주었고, 직접 멀리서 걸고 있는 모델들에게 A-POC 원리를 적용한 드레스, 스커트, 속옷, 모자, 장갑, 양말, 가방 등이 입혀졌다.

그 후 실험이 계속되면서 옷의 형태들, 내부의 디자인과 소재에 따른 패턴 기술도 발전되어지고 컴퓨터 상에서 정교하게 개발되어져 술기와 가공이 없는 제품이 생산되었다.<sup>87)</sup>

<그림 37>, <그림 38>은 잇세이 미야게(Issey Miyake)가 1999년 S/S에 발표한 일명 ‘A-POC Queen’이라 불리는 ‘왕과 여왕’ 제품이다.

이는 가장자리의 술처리와 기능성이 있는 단순한 아이템끼리의 레이어드 룩을

---

86) *Ibid.*, pp. 120 ~123.

87) *Ibid.*, p. 119.

보이며 현대인들을 위한 활동적이고 캐주얼한 의상을 선보였다.

<그림 39>는 잇세이 미야게가 1999년 F/W에 발표한 'A-POC Alien'라는 작품으로 다소 복잡한 디자인으로서 처음에는 가면을 쓴 얼굴, 바지 위의 옷, 매쉬 원단의 두 번에 걸친 레이어드의 신체를 포함하여 보여주었고, 패션쇼 프리젠테이션에서는 두 명의 조수가 길게 자르고, 원단을 더욱 입혀질 수 있는 형태로 절개한 후에 모델이 등장하였다.

<그림 40>은 잇세이 미야게가 1999년 F/W에 발표한 'A-POC Eskimo'라는 작품으로 매우 실험적인 디자인에 의해 혁신적인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 에스키모 디자인은 그래픽 라인 안에서 컬러 콘트라스트로 표현되었고, 바디 주위의 윤곽을 명확히 하기 위해 높게 부풀린 코튼으로 패딩하여 포장하는 것처럼 바디를 보호하는 느낌을 준다.

<그림 41>은 잇세이 미야게가 1988년 가을에 뉴욕에서 개최한 전시회 'Making Things'의 광경으로 롤과 마네킹에 입혀진 원단의 계속되는 길이는 전시장을 장엄하게 보이게 하였다. 이 거대한 A-POC의 원단의 롤(roll)은 대량 생산에 입각해서 생산되었다.

이상과 같이 A-POC은 아직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널리 입혀질 수는 없을지라도 잇세이 미야게의 플리즈 플리즈(Pleats Please)와 A-POC 개념은 21세기의 미래 패션을 위한 새로운 우븐 및 니트 원단의 생산에 의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 (3) 신소재의 개발

천연섬유에서부터 합성소재까지의 변천과 개발은 첫 번째 합성소재인 레이온이 발명되었던 19세기 말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왔다.

1938년에 출현된 나일론(폴리아미드, polyamide)에 이어 인조 실크로서 알려진 레이온(rayon)과 울(wool) 대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아크릴(acyle) 외에도 천연소재의 퀄리티를 모방한 합성소재가 개발되고 있다. 그 중 비스코스 레이온은 드레이프성과 광택이 우수하여 이를 사용한 니트웨어의 유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많은 양이 제조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신소재 분야가 발달되어온 일본 등에서 개발, 활용된 제조하는 동안의 독특한 텍스처를 만드는 능력을 가진 인조사를 활용한 니트 제품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부드럽고 세련된 감촉과 우수한 가

공으로 개발된 극세사인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그리고 비스코스 등의 신소재 외에도 높은 신장력과 내구력, 가볍게 표현되는 벌키성과 수분 흡수력을 갖춘 하이테크 섬유를 위한 고품질의 원사가 개발되어졌다.

‘텐셀(tencel)’이라는 이름으로 1988년에 꾸톨즈(Courtaulds)에 의해 만들어진 셀룰로이즈 섬유인 리오셀(lyocel)은 사용된 용해력이 있는 모든 성분이 재생되어 질 수 있어 친환경적인 소재이다. 텐셀은 일본의 가네보(Kanebo)나 도레이(Toray) 등의 회사가 섬유구조의 결합과 새로운 실가공으로부터 자연섬유로는 달성할 수 없는 새로운 범주 즉 새로운 인조 퀄리티를 의미하는 ‘하이터치(high touch)’ 섬유이다.

또한 극세 마이크로 섬유와 스트레치안(stretch yarn)은 새로운 무봉제 란제리와 바디 웨어 시장의 증가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듀폰의 라이크라 엘라스틴(lycra elastin)과 탁텔 폴리아미드(tactel polyamid), 니스타즈 메릴(Nystar's Meryl), 엘리트 엘라스틴(Elité elastane) 소재는 몸에 꼭 맞으면서도 편안하고 부드러운 대표적인 품목이다.

주로 니트웨어와 바디웨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엘라스토메트릭(elastometric) 스트레치 안의 사용은 발명된 1950년대에 이어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되었다.<sup>88)</sup>

<그림 42>는 크리스틴 지(Christine Gee)의 컬렉션을 위해 케이트 캐릭(Kate Carrick)이 1995년에 디자인한 ‘조각난 니팅’이다. 일본의 모래 패턴에서 영감을 얻어 깊게 파인 골을 더블 자카드 조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화인 게이지의 라이크라 탄성계의 실과 캐시미어 실로 만들었다.

<그림 43>은 잇세이 미야게가 2000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제2의 스킨웃이라 할 정도로 울트라 스트레치 니티드 매쉬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새로운 재료와 텍스타일 안에서 실험적인 연구 안에서 이루어진 울트라 스트레치 니티드 매쉬로 여러 겹을 레이어드하여 비쳐지는 색상에서 미래적인 미를 표출한다.

한편 루렉스社 브랜드의 메탈릭실(metallic yarn)은 메탈의 얇은 판이나 그 양면에 플라스틱 필름을 적용하여 본딩하여 얇은 판으로 잘라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조각들로 잘라지고, 실로서 감아지는데 납작한 표면은 빛의 영향을 받아 빛난다. 최근 개발된 조각(split) 필름 기술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필름의 조각으로부터 독창적인 실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극도의 텐션 등 어

---

88) *Ibid.*, p. 179.

떠난 상황에서도 필름안에 가는 섬유가 들어있어 자연적으로 섬유 속에서 빛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1970년대의 유행한 스페이스 다이드(space dyed) 효과의 실은 실타래 안에서 감아지고 구분되어져 미리 결정된 순서에 의해 실타래가 모두 염색될 때까지 나중의 다른 색상으로 침염되어진다. 이것은 자카드 편직 과정과 두 개 혹은 더 이상의 색상 안에서 독특한 효과를 낸다.<sup>89)</sup>

<그림 44>는 미소니가 2001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형태없이 불규칙하게 나타내지는 미소니 특유의 패턴은 의상 전체 안에서 동적으로 보여지는 폭이 넓은 혹은 깨어지는, 대각선 또는 불꽃 효과를 나타낸다. 그 효과는 그 자체나 단순한 스트라이프들과 혼합되어져 미소니 니트웨어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처럼 현대 니트웨어에서의 신소재의 개발은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문화, 레저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이 정착됨에 따라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소재 측면에서의 니트 소비양상에 대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실용성과 기능성을 갖춘 니트 소재들이 속속 개발될 전망이다.

## 2) 공예적 측면에서의 현황

20세기 이후의 미술, 그리고 사회와 문화 전반에서 목격되는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궁극적인 가치개념을 부정하며 수직적인 위계질서보다는 수평적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다원주의(pluralism)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영역에서도 진리나 미를 추구하는 고전적인 가치체계 대신 다양성과 가변성이 수용되어져 각각의 영역이 독자성을 수호하기보다 상호 침투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sup>90)</sup>

20세기는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도 새로운 개념들, 기법들을 기초로 하여 예술의 수많은 실험들이 행해진 시기이다. 그 중 1960년 이후 미술의상 작가들에 의해 예술 의상의 한 영역으로 발전한 손뜨기는 일상 생활상의 실용기법들을 예술의 표현 형태로 이용하려는 운동인 섬유예술의 표현매체로 자리잡았다.

이는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에 의해 19세기에 일어났던 「아트 앤 크라프트」 운동과 비슷한 방식의 현대적 미술의상 운동이었다.<sup>91)</sup>

---

89) *Ibid.*, p. 180.

90) Nodert Linten, 20세기의 미술 (서울 : 예경사, 1994), p. 316.

미술의상은 섬유예술의 새로운 표현 양식의 모색과 의상분야의 조형적인 표현 추구를 위해 새로운 탐구와 시도 속에서 각 분야의 특징을 수용함으로써 파생된 또 하나의 예술 형식을 의미하며, 내부의 무형(無形) 아이디어가 외부의 인체라는 대상을 통해 유형화된 것이다.<sup>92)</sup>

니트는 그 본래의 전통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섬유예술의 표현매체로 도입되면서 섬유예술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 동시에 니트웨어는 인체를 예술의 매체로 하여 3차원적 형식에 중점을 두고 조형성을 강조하는 미술의상 분야에 수용되어져, 니트의 조직을 응용한 의상과 미술개념을 결합시킨 새로운 표현 양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로 미술의상으로서의 니트웨어는 니트의 표현 가능성과 잠재력이 재인식되면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니트로 표현된 미술의상은 니트의 특성과 다양한 재료, 조직 그리고 기법 등에 따른 표현효과를 매체로 하여 작가들의 풍부한 창조적 아이디어와 내면세계, 미적 개념을 표출시키는 표현재료로서 사용되어진다.

미술의상에서의 니트웨어는 다양한 표현 기법과 새로운 기술 및 개념 등을 토대로 하여 종래의 공예적이고 산업적인 니트 의상의 범주를 초월하고 섬유예술의 영역으로 발전되어져 그 창조 영역을 확대시키고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sup>93)</sup>

과거의 디자이너 스키아빠렐리에 이어 최근의 니트웨어 디자인에 예술 사조를 즐겨 응용하는 디자이너로는 장 샤를르 드 카스텔바작(Jean Charles de Castelbaljac), 소니아 리켈(Sonia Rykiel) 등이 있다. 그들의 니트 작품은 디자이너 작품의 모티브를 확대하고 과장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부분적으로는 만화의 캐릭터 얼굴을 확대하고 시퀀을 장식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위홀의 실크스크린 작품의 방식을 연상케 한다.

<그림 45>는 소니아 리켈이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초현실주의 예술사조의 영향을 받아 가슴 부분에 뒤에서 안아주는 듯한 두 손의 모습을 인타샤로 나타내어 착시효과에 의한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해준다. 검은 색상의 니트 드레스 위에 레드 색상의 강렬한 배색이 인상적이다.

---

91) John Goldberg, "Art to Wear Visionary," *Ornament*, Vol. 10, No. 2, 1986, p.42.

92) Julie Schafner Dale, "Style : The Nontraditional Wearable," *Horizen Craft*, Oct, 1978, p. 27.

93) 최은희, 앞의 글, pp. iii ~ iv.

<그림 46>은 소니아 리켈이 2003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빅 사이즈의 스웨터 앞면 전체를 차지하는 인물화를 인타샤 기법으로 하고 이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스팅글을 달아 장식하였다.

<그림 47>은 장 샤를르 드 카스텔 바작이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팝 아트적인 표현으로 구름, 별, 건물들을 몸판 전체에 마치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듯 모티브를 나타냈고 악센트 색상으로 배색하여 순수하고 환상적인 캐릭터를 표현하였다.

<그림 48>은 미소니(Missoni)가 2004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드레스 전면에 강렬한 색채감과 대담한 구도를 갖춘 회화적인 감각의 자카드 디자인이다.

<그림 49>는 요이치 나가사와(Yoichi Nagasawa)가 2000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멀티 다이드 안을 이용하여 프랑스 인상파 화가인 모네의 미술작품을 니트 의상에 그대로 표현되어 이를 입은 모델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인 듯한 착각을 준다. 이 작품은 멀티 다이드안을 만드는 가공 기술의 발달과 자연스러운 색채 그라데이션의 편직 기술이 접목되어져 더욱 정교한 장식 표현 기법에 의한 미적 감각이 극대화되었다.

<그림 50>은 프라다(Prada)가 2002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신체를 따라 밀착된 심플한 실루엣의 터틀넥 원피스 드레스이다. 몸판 위에 스팅글로 신체를 따라서 흘러나오게 보이도록 하고 검은 색의 스팅글로 매워 장식하여 독특하고 새로운 재질감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림 51>은 유키 토리(Yuki Torri)가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표면에 꽃문양을 사실적으로 직접 프린팅하여 한 폭의 사실화를 보는 듯하며 가장자리에 핑크를 달아주어 고급스럽게 장식하였다.

<그림 52>는 미소니가 2004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멀티칼라의 스트라이프와 프린징을 조화시켜 입체적인 텍스처를 강조한 코트로서 움직임 때마다 흔들리는 울동감을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53>은 유키 토리가 2004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새의 깃털을 소재로 하여 자연의 원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또한 제작 도중이나 완성된 편물표면 위에 실 이외에도 구슬, 시퀸, 조개, 상아 조각, 동물의 털, 돌멩이 등과 같은 타 재료에 의한 첨가물이나 오브제적 요소를 첨가하기도 하고, 뜨기 위에 장식용 구슬과 시퀸을 부착함으로써 보다 섹시하고 장식적인 효과를 준다.

<그림 54>는 소니아 리켈이 1999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입술 모양의 오브제를 니트 의상에 꼴라주 기법으로 장식하여 유희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55>는 요이치 나가사와가 2003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불규칙적인 니트 조직 위에 광택감이 있는 꼴라주를 밀집시켜 장식시킴으로서 강렬한 이미지를 준다. 라운드 넥의 가디건 앞부분에 마치 목걸이가 영클어진 것 같은 모양으로 진주알같은 은은한 광택감의 꼴라주를 나열시켜 장식한 니트웨어이다.

이처럼 현대 니트웨어의 디자인은 특수 질감의 소재와 조직의 변화에 따라 인체의 실루엣이 극도로 표현되는 예술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컬렉션에 나타난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공예적 측면의 현상은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팝아트나 초현실주의 등의 예술 사조를 응용한 니트웨어를 들 수 있으며 둘째는 아트웨어 작가들에 의해 개발된 기법으로 주로 손뜨기와 크로세, 기계뜨기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혼합한 미술의상에서의 디자인이다. 셋째는 최근의 컬렉션에서 많이 나타나는 꼴라주나 오브제를 도입하거나 프린팅, 과도한 장식 효과나 손뜨기 등을 응용한 현대 니트웨어이다.

이와 같이 공예적 차원에서의 니트웨어는 주제와 그에 따르는 소재 및 표현 기법에 있어 독창적이고 다양성을 갖는 특징을 갖는다.

### (1) 소재의 다양성

1960년대에는 섬유예술이 조형예술의 한 범주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60년대 중반의 팝 아트, 오브제의 등장은 섬유예술의 작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재료의 해방’이라는 새로운 소재감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화와 조각 그리고 공예라는 고전적 장르의 한계를 허물어 현대 섬유예술의 표현방법과 영역의 확장을 가져왔다.

현대 섬유예술의 양상은 선택된 오브제와 갖고 있는 이미지를 해방시키는 표현의 개념으로서 새로운 소재를 중요시하였고, 그 결과 예술적 측면에서의 표현소재로는 섬유형태나 특성을 지닌 소재는 물론 주변의 모든 물질들이 소재가 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 이외에도 와이어(wire), 코드(cord), 리본(ribbon), 밴드(band), 테이프(tape), 플라스틱

(plastic), 깃털(feather), 가죽(leather), 인조피혁(man-made leather) 등을 길게 실처럼 잘라서 사용하기도 하고 실의 굵기와 모양 등을 변형하여 염색과 더불어 훌륭한 질감을 만드는 등 새롭게 개발된 풍부한 소재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56>은 마리나 스파다포라(Marina Spadafora)가 1998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라피아(raffia)를 소재로 하고 플로트(float) 테크닉을 사용하여 만든 니트 드레스이다.

<그림 57>은 칼 핀폴드(Karl Pinfold)가 2000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가죽을 베어내어 니팅한 가디건이다. 가죽은 효과를 늘이도록 염색되었다고 각 조각들은 독특하게 연결되고 세심하게 잘려져 있다.

<그림 58>은 알렉산더 맥퀸이 1999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비일상적인 테이프로 만든 거친 재질감을 그대로 살려 손뜨기하였다.

## (2) 주제의 다양성

특정한 용도를 고려한 일반적인 의상 디자인에 비하여 미술의상은 조형 예술의 한 장르로 인식되어지며 주제 선정에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미술의상의 주제 선정은 작가의 자발성, 즉흥성, 고유의 테크닉, 선택된 재료의 재질감과 결합된 자유로운 표현, 그리고 착용자의 역할 등에 의해 좌우된다.

미술의상에서의 니트웨어에 나온 주제는 크게는 자연물, 민속적 주제, 사회적 주제, 설화적 주제 등으로 분류된다.

자연물을 주제로 한 미술의상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인간의 욕망에 의해 무질서화되고 산업화에 따른 자연 파괴에 대한 비판 등으로 작품에 반영된다.

<그림 59>는 수잔나 루이스(Susanna Lewis)가 1979년에 발표한 'Moth Cape'라는 작품이다. 모, 나일론, 메탈릭사와 셔닐사를 사용하였고 수편기를 이용한 기계뜨기와 크로세, 퀴트 기법으로 밤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대한 나방의 인상을 몸체가 두꺼운 생물체로서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곤충의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sup>94)</sup>

<그림 60>은 샤론 헤즈스(Sharron Hedges)가 1975년에 발표한 'Lydia's Coat'라는 작품이다. 모 소재로 크로세 기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명도의 색상 배치 한가운데 난, 한색의 대비로 변화를 주어 우주의 시각에서 항공의 정경을 표현하였다.<sup>95)</sup>

---

94) Dale, Julie Schafner, *Art to Wear* (New York: Abbeville Press Publishers, 1986), p.92.

<그림 61>은 자네 리프킨(Janet Lipkin)이 1982년에 발표한 'Flamingo'라는 작품이다. 모사, 앙고라사를 사용하였고 수편기와 기계뜨기, 솜을 채우고 핸드 염색 기법으로 비상하는 새를 소재로 하였고 자유를 상징하고 있다. 이 작품은 우주의 별, 은하계 및 태양계를 주제로 하여 의식적인 샤머니즘, 토속, 종교미술의 근원으로 돌아가 현실적인 자연을 초월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sup>96)</sup>

한편 민속적 주제는 산업 발달에 의해 파생된 기계화되고 소외된 현대인들에게 시간과 문명을 뛰어넘어 옛날과 민속적인 것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한다.

이 주제는 주로 일본을 비롯한 극동지역, 북남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민속미술에서 나타나는 의상 이미지와 민속 고유 기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특히 민속적 주제는 수공예물에 대한 동경과 주의를 표하며, 주술적인 신비성과 본능적 신체 장식심리가 결합한 상징적인 원초적 형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림 62>는 린다 멘델스존(Linda Mendelson)이 1985년에 발표한 'Christine's Poncho'라는 작품이다. 모사를 사용하여 수편기와 크로세 기법으로 상형문자의 민속문양이나 주술적인 민속문양을 모티브로 하였고 전체적 실루엣을 동양적이고 신비로운 모습을 연출하였다.

사회적 주제는 의상에 보다 큰 사회적 문제나 혼란을 비유적이고 암시적 기법으로 나타내거나 정치내용을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인간의 파괴적 성향을 주제로 하여 강렬한 이미지를 표출하기도 한다.

<그림 63>은 노마 밉코위츠(Norma Minkowitz)가 1975년에 발표한 'Clock'라는 작품이다. 머서라이즈드 면(mercerized cotton)을 소재로 크로세와 손뜨기, 퀼팅에 의해 제작하였다. 비행하는 인체의 울동을 표현하였으며, 고전적인 우아함과 단순함을 느낄 수 있다. 하늘과 여체를 섬유와 조화시켜 닫힌 세계로부터 비상하는 자유의 세계와 비상하는 자유의 세계를 표현하였다.<sup>97)</sup>

<그림 64>는 수잔나 루이스(Susanna Lewis)가 1984년에 발표한 'Pictured Poncho: New York City'라는 작품이다. 모사, 비즈, 선물가게 기념편을 소재로 하여 제작하였고 수편기와 아플리케 기법으로 뉴욕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기하학적 도시 풍경의 패턴, 인사말을 작품에 담았는데, 구슬, 기념품 편을 아플리케<sup>98)</sup>

---

95) *Ibid.*, p. 63.

96) *Ibid.*, p. 52.

97) *Ibid.*, p. 116.

98) *Ibid.*, p. 95.

하였다. 특히 뉴욕시에 있는 아르데코식의 크라이슬러 건물의 패턴이 돋보이며 이 작품은 마치 그림엽서를 대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

설화적 주제는 과거의 신화나 고전 문학, 동화책 이야기, 광대, 인간의 삶과 죽음같이 극을 주제로 하는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표현을 한 것이다. 작가의 자서전적인 이야기, 설화 내용, 자신의 무의식 세계를 그린 것 등 주제가 다양하다.

<그림 65>는 수잔나 루이스가 1978년에 발표한 ‘OZ Socks’이라는 작품이다. 수편기와 아플리케 기법으로 미국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책, ‘Wizard of OZ’의 이야기로 “The Great American Foot” 전시회를 위한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왼쪽 다리는 원숭이, 에머럴드, 도시, 무지개, 구름이 등장하는 OZ나라를 표현하였고, 오른쪽은 파랑새가 캔사스 시를 날아갈 때 보이는 노란 벽돌길이나 더러운 말뚝을 상징하여 환상적이고 공상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다.<sup>99)</sup>

또한 <그림 66>은 수잔나 루이스가 1977년에 발표한 ‘Off We Go into Wild Blue Yonder’라는 작품이다. 수편기를 이용한 기계뜨기와 아플리케 기법으로 아동의 시각으로 본 죽음을 상징하는 전쟁 이야기를 표현하였는데, 하늘, 비행기,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연기 등을 그래픽적으로 묘사<sup>100)</sup>하였다.

그 외에도 <그림 67>은 린다 멘델슨(Linda Mendelson)이 1976년에 발표한 ‘I Made My Song a Coat’라는 작품이다. 옅고 아트적인 주제를 모사로 여러 색상을 배색하여 수편기와 크로세 기법으로 표현하였는데, 소재 및 기법은 물론 주제에 있어서 어떤 억압된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실험적이고 새롭다.<sup>101)</sup>

이처럼 미술의상에 나타난 니트 작품은 작가가 의도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특별한 규범이 없으며 작가만의 규칙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표현 기법의 다양성

섬유예술의 한 분야인 미술의상의 표현기법은 니팅(크로세), 직조(*weave*), 퀼트(*quilt*), 바스켓트리(*basketry*), 펠트(*felt*), 종이작업(*paper-making*) 등으로 세분화된다.

그 중 코바늘뜨기 기법은 한 가닥의 긴 실이 수직적으로 상호 연결되어진 고리들에 의해 형성된 직물 조직 구조의 표현 방법이며, 전통적이고 수공예적 표현 방

---

99) *Ibid.*, p. 89.

100) *Ibid.*, p. 84.

101) *Ibid.*, p. 101.

법으로 상호 결합이 용이하여 입체적인 표현 효과를 창출한다.<sup>102)</sup>

대부분의 손뜨기로 만든 미술의상 디자인은 작품의 규모에 제한이 없으며 제작 과정에서의 무한한 변화를 줄 수 있고 여러 기법들을 혼합하거나 장식할 수 있어 더욱 다양한 예술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니트를 이용한 미술의상은 주로 니트의 크로세나 다양한 표현 기법을 이용하거나 니트 조직과 여러 타 기법을 혼합하여 표현하는 것이 주를 이루며, 이는 제작 과정에서의 유연성이 개입되어져 비계획적이나 창작적으로 디자인되어 진다.

미술의상에서의 기계뜨기는 간단한 재래식 가정용 수편기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고도로 복잡한 자동편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라는 최첨단 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신속한 제작 속도, 정확한 산출과 동작에 의해 예술적 표현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더욱 폭넓은 표현 가능성을 갖는다.<sup>103)</sup>

기계뜨기를 이용하는 미술의상 작가들은 때때로 니트 조직들을 조합해서 더욱 복잡하고 개성적인 디자인의 3차원적 형태의 의상들을 제작하여왔다.

이들의 기계 및 컴퓨터를 통한 작품의 복제 가능성은 미술의상의 예술적 특성 중 하나인 팝 아트적 성향을 더욱 강화시켰다. 표현 효과의 증대 및 다양화를 추구하는 많은 미술의상 작가들은 타 기법들과 쉽게 조화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니트의 크로세, 위브, 펠트, 켈트, 아플리케 등의 타 기법들을 혼합하여 하나 이상의 섬유 제작기법들을 상호 보완적이고 다각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독창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복합적인 표현방법들을 시도해오고 있다.<sup>104)</sup>

현대 회화의 한 방법인 섬유를 토대로 한 콜라주(collage)와 앳쌍블라쥬(asssemblage)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sup>105)</sup>

이처럼 니팅을 이용한 미술의상의 작가들은 니팅을 위주로 하고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기법과 재료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표현 효과의 확대 및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

102) David J. Spencer, *Knitting Technology* (New York : Pergamon Press. 1983), p.6.

103) Linda Dyett, "Art to Wear." *American Craft*, Oct./ Nov., 1993, p.29.

104) 최은희, 앞의 글, p. 50.

105) Linda Dyett, *op. cit.*, p. 34.

### 3) 토탈 패션에서의 현황

개성을 추구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니트 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 니트 패션은 그동안의 인너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점점 아웃웨어화 되고 있다.

또한 니트웨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고급화되고 젊은 층들이 새로운 수요층으로 부상되면서 다양한 품목의 감각적인 니트류가 제작되어져 니트의 토탈 패션으로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의 고대 시대로부터 니트는 사회, 종교, 경제적 배경에 의해 의상으로서의 니트웨어보다는 양말, 모자, 스타킹, 장갑, 카펫 등 니트 소품들이 먼저 대량 생산 품목으로 발달해왔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니트가 편물로 대량 생산된 것은 의상(스웨터)이 아닌 모자와 스타킹, 장갑 등의 소품과 인테리어인 카펫임을 볼 때 과거의 편물은 의류보다도 의류 이외의 용도로 더욱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니트 용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즉 ‘레이스로 장식하기’라는 뜻의 ‘lasser’와 ‘모자 만들기’라는 뜻의 ‘bonneterie’가 있고, ‘그물코’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maglia’와 ‘스타킹 끝’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punto di media’를 들 수 있다.<sup>106)</sup>

그 외에도 스페인어의 ‘메디아스(medias)’, 혹은 포르투갈어의 ‘메이어스(meias)’에서 유래된 메리야스 ‘긴 양말’이란 의미를 가진다. 영어에서의 양말이라는 뜻의 호스(hose) 또는 호저리(hoseiry)에 해당<sup>107)</sup>되는데 이는 니트가 사용되기 시작한데서 양말이 그 주요한 품목이었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영국의 니트는 16세기경에 실용화되기 시작하여 모자와 양말을 수편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프랑스는 왕정복고 후 니트류가 부활되어 취미생활로서 옷의 테두리나 양말, 장갑, 모자, 테이블 클로스, 침대커버, 커튼 등을 니트로 장식하는 외에도 빅토리안 풍의 비즈장식 백과 니트로 짜진 지갑이 생산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여성들은 비용이 저렴한 발목길이의 양말을 스타킹 대신 사용하였는데, 10대 소녀들을 중심으로 주름 스커트에 보비 삭스(bobby socks)를 신는 것이 유행하였다.<sup>108)</sup>

106) Richard Rutt, *op. cit.*, pp. 4~5.

107) 이선명, “편물의 역사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 10.

108) 한순자 외,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 예학사), 2001, p. 149.

또한 1960년대 패션 산업의 중심이 미니 스커트의 발생지인 런던으로 옮겨가면서 신축성있는 스타킹 부츠와 다양한 무늬의 타이츠가 유행하였다.

혁신적인 패션 품목 중의 하나는 팬티 호즈(panty hose)였는데 소용돌이 무늬, 점무늬, 꽃무늬, 닭쟁이 덩쿨 무늬 장식에서부터 자수 장식까지 다양한 색과 무늬로 장식되었다.<sup>109)</sup>

1960년대의 그라니(granny)드레스를 감싸는 숄(shawl)의 유행에 이어, 1970년대 중반에는 니트 드레스가 인기를 끌면서 니트로 된 캡과 모자 그리고 스카프, 스컬 캡(skull cap), 터번도 많이 등장하였다. 1980년대를 통하여 운동복이 평상복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대중화되면서 트랙 슈트(track suit), 레오타드(leotards), 레그 워머(leg warmer), 러닝 슈트(running suit), 발레 령스(ballet length)와 머리띠가 일상복 패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sup>110)</sup>

그 외에도 니트는 신축성과 성형성의 장점을 살린 양말, 타이츠, 장갑 외에도 내의류의 개발에 적합하다. 특히 스판덱스와 같은 고탄성사가 개발되면서 니트로 만든 브래지어, 거들 등의 속옷의 용도로써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신장되고 있다.

한편 외의 부문으로의 니트의 확대로 스웨터, 조끼, 코트 등의 상의에서부터 수트, 팬츠 등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와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유행 아이템으로서 크게 대중화되고 있다. 또한 운동복, 작업복에 이르기까지도 크게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니트 제품의 수요가 점점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의상의 코오디네이트 품목으로 지속적인 인기를 누려왔던 니트 액세서리류는 핸드백, 양말, 스타킹, 구두, 모자, 벨트, 귀막이, 스카프, 넥타이, 장갑, 숄,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것들은 니트만의 포근하고 소박한 정서와 함께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거나 창의적인 예술적 감각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액세서리로서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니트웨어 못지않게 그 시장규모가 확대되어가는 니트 액세서리와 니트로 만든 인테리어 소품 시장 등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과거를 회상하는 정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신장해 나갈 전망이다.

<그림 68>은 쥘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이 1996년 S/S에 발표한 작품이다. 수세기동안 가장 평범하고 세속적인 액세서리였던 양말은 최근 패션에서

---

109) J. Anderson Black, 세계패션사, (서울 : 간디서원), 2005, p. 486~487.

110) 정홍숙, 앞의 책, p. 401.

유명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 액세서리의 역할이 점점 중요시되면서 다양한 컬러 코오디네이트된 양말, 스타킹 등의 컬러와 패턴들이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그림 69>는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가 1994년 F/W에 발표한 작품 'On Liberty'이다. 뒤얽히고 번잡한 손뜨개 울 스타킹은 레이스 조직을 바탕으로 두드러진 나뭇잎 디자인과 아플리케 꽃과 니트로 만든 태슬(tassel)로 마무리된 역사적 복식에 기초한 정교한 액세서리이다.

<그림 70>은 시몬 메멜(Simone Memel)이 1995년에 제작한 '몬로를 존경한다(Homage á Monroe)'의 작품이다. 새틴으로 켈트 처리된 안감의 폭신한 감촉의 모헤어로0 만들었는데, 신을 수 없는 구두에 의해 상징화된 여자다움에의 위엄있는 존경을 나타내었다.

<그림 71>은 잇세이 미야게가 2004년 F/W에 발표한 니트 머플러는 모피와 모사로서 함께 불규칙하게 짜여져 있어 장식품이라기보다는 원시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토탈 코오디네이트 개념의 독특한 의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72>는 나라 포크(Nara Fok)가 2001년에 발표한 작품인 'Shoots(어린 가지)' 반지이다. 자연의 에너지에 대한 관찰에 의해 작업에 영감을 받은 니트 작품으로 그녀의 액세서리는 손뜨기, 노트(knot), 우븐의 조각형으로 만들어지며, 열처리하여 물들인 나일론과 고도의 테크닉으로 만들어진다.

<그림 73>은 나라 포크가 1999년에 발표한 작품인 'Food Chain'목걸이이다. 극히 작은 수평의 자연을 바라보는 조각으로서 먹이 사슬(the food chain)과 우리의 정상적인 눈으로 존재하는 아메바를 표현하였다. 체인의 각 요소는 하나가 된 가운데서도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자연의 모습을 신비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은 주요한 최근 성장을 보이고 있고 꾸준하게 패션과 유행에 밀접한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많은 인테리어 패션 하우스는 지금 그들의 고객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인테리어 생산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니트로 만든 부드럽고 편안한 인테리어 아이템의 디자인이 21세기 패셔너블한 인테리어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 리렉스한 감각을 줄 수 있는 니티드 침대 커버, 쿠션, 배갯잇, 침실 양말, 가벼운 모포 등 핸드 메이드의 제품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74>는 니키 존스(Niki Jones)이 1998년에 발표한 작품인 'Stalaglight'이다. 기계뜨기에 의해 무봉제로 만들어진 원형 라이트 원뿔을 형과 구조를 통합하여 새로운 형태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75>는 마르시아 윈드 뱅크(Marcia Windebank)가 2000년에 발표한 'Knitted Bowl'이란 작품으로 종이 펄프와 송진, 비딩으로 처리된 면과 비스코스 양의 독특한 결합으로 오픈 워크(open work) 니팅의 시각적 효과를 내고 있다.

이처럼 현대 니트 패션은 전반적으로 토탈 아이템으로서의 실용적인 면과 심미적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살린 독특하고 개성적인 토탈 코오디네이션 감각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현대 니트 패션의 토탈화 경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표 5>는 현대 니트 산업의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 IV.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 분석

### 1. 패션 이미지에 따른 표현 양식

현대 패션에서의 디자인은 소비자의 개별적이고 세분화된 기호와 다양한 감성 지향적인 소비형태의 변화로 인해 한 가지 요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공존, 복합, 다중화의 개념이 혼재되어 존재한다.

특히 현대패션에 나타난 니트 디자인은 니트만의 특수한 텍스처와 자연스러운 감각 그리고 색상과 조직의 변화로서 얻어지는 효과 등으로 인해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다양한 미적 요소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품목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는 조직, 게이지, 무늬, 소재, 배색의 5가지 기획 요소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니트만의 독특한 효과와 다양한 편직 기술을 응용함으로써 더욱 창조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 패션을 리드하는 중요한 범주에 속하는 니트웨어 디자인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현대의 패션을 이루는 현상적 요인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다.

현대의 패션을 이루는 현상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이유미<sup>111)</sup>는 현대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퓨전 현상의 요인을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 ‘다문화사회’, ‘다양한 정보’, ‘기술의 발달’로 분류하였다.

최혜정<sup>112)</sup>은 21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대한 요인을 ‘대중문화’, ‘동양사상의 관심’, ‘환경운동과 생태운동의 활성화’,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분류하였다.

임영자, 권진<sup>113)</sup>은 현대패션에 나타난 투게더(togather) 현상에 관한 요인을 ‘포

---

111) 이유미,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퓨전 스타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p. 25~31.

112) 최혜정, “21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p. 7~12.

113) 임영자, 권진, “한국의 현대패션에 나타난 Togatherness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제 52권 제 5호 통권 70호, 2002, 8, pp. 80~84.

114) 이경희, “현대패션 디자인에 표현된 양식과 의미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 9~17.

115) 강현영,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소재 동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 53~

스트모더니즘’, ‘세계화 현상’, ‘동양사상의 확대’, ‘정보화 사회의 도래’, ‘매스미디어와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분석하였고 이경희<sup>114)</sup>는 현대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양식의 요인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대중문화의 확산’, ‘다문화주의의 영향’, ‘기술 발달’로 분류하였다.

또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강현영<sup>115)</sup>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소재 동향에 따른 현대 패션 이미지를 ‘에콜로지’, ‘프리미티브’, ‘에스닉’, ‘클래식’, ‘스포츠 캐주얼’, ‘미니멀’, ‘하이테크’, ‘아방가르드’로 분류하였다.

하지수<sup>116)</sup>는 2세기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에 대한 연구에서 ‘테크노 기능주의’, ‘순수 기능주의’, ‘스포츠 캐주얼 기능주의’, ‘상징적 기능주의’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최혜정<sup>117)</sup>은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의 요소를 ‘페미니즘’, ‘제3세계 패션’, ‘테크노 사이버’, ‘하이브리드 패션’으로 분류하였다. 이봉덕<sup>118)</sup>은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이미지를 ‘혼성’, ‘기술지상주의’, ‘신자연주의’, ‘다민족주의’로 분류하였다.

이경희<sup>119)</sup>는 현대패션 디자인에 표현된 양식에 대한 이미지를 ‘스포츠 캐주얼’, ‘에콜로지’, ‘레트로’, ‘테크놀로지’로 구분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의 유행과 전반적인 패션산업을 리드해 나가는 중요한 매개체 중의 하나인 밀라노, 파리, 뉴욕, 런던의 여성복 컬렉션을 중심으로 니트 패션 트렌드를 수집, 조사하였고, 연구 범위를 1995 S/S부터 2005

---

93.

116) 하지수, “20세기 기능주의 패션 디자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p. 95~116.

117) 최혜정, 앞의 글, pp. 5~10.

118) 이봉덕,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p. 50~71.

119) 이경희, 앞의 글, p. 19.

S/S까지로 한정하여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을 조사하였다.

연구범위로는 세기말 현상으로의 다양한 트렌드가 나타난 최근의 흐름과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어진 1995년 이후의 컬렉션에 발표된 여성 니트웨어 디자인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1990년대 초의 패션 트렌드가 에콜로지, 리사이클, 그린지 등의 테마로서 캐주얼한 이미지가 많이 출현한 데 비해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발표된 니트웨어 디자인의 트렌드가 엘레강스 & 페미닌, 네오 히피, 아방가르드, 미니멀리즘, 네오 에콜로지, 스포티, 레트로, 장식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 것에 기인하였다.

또한 1995년 이후의 니트웨어 디자인은 레저, 스포츠 등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출현에 따른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춰서 더욱 다양한 니트 기법의 활용과 기술력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는 1995년 이후에 컬렉션에서 비중있게 니트웨어 디자인을 선보인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표현 양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의 디자이너는 저마다의 개성있고 독특한 니트 작품들을 컬렉션에 발표하여 니트웨어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페이크 런던(*Fake London*), 장 샤를르 드 카스텔바작(*Jean Charles de Castelbajac*), 요이치 나가사와(*Yoichi Nagasawa*), 라우라 비아조티(*Laura Biagiotti*), 잇세이 미야께(*Issey Miyake*),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미소니(*Missoni*), 안나 수이(*Anna Sui*), 줄리앙 맥도날드(*Julien Macdonald*), 레 코팽(*Les Copains*), 유키 토리(*Yuki Torii*), 안나 몰리나리(*Anna Molinari*), 소니아 리켈(*Sonia Rykiel*),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 Westwood*), 폼므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 등 총 31명으로 국한하였다.

그 결과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패션 이미지에 따른 표현 양식을 ‘캐주얼’, ‘에콜로지’, ‘에스닉’, ‘레트로’, ‘테크놀로지’, ‘헤체주의’로 분류하였다.

<표 6>은 1995년 이후 컬렉션에 발표된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 중 본 연구가 분류한 표현 양식에 맞는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이미지별 디자이너를 정리한 내용이다.

## 1) 캐주얼 (Casual)

1960년대를 전후로 발생한 독특한 청년문화와 함께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거리의 유행현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되어 스트리트 패션이 대중화되었다.

이후 대중문화의 유행과 더불어 대중화된 스트리트 캐주얼 룩은 격식을 차리는 정형화된 양식을 무시하고 어떤 틀에도 구애받지 않는 개성있는 감각으로 코디하여 표현되었다.<sup>120)</sup>

니트웨어는 니트의 특성인 편안함과 기능성으로 인해 현대 니트 패션이 생성되던 시기인 20세기 초부터 활동적이고 캐주얼 패션에 적합한 아이템으로 발달되어 오다가 1960년대 이후부터는 의복의 유니섹스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유니섹스 디자인도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

최근에는 니트웨어의 무늬나 티-셔츠에 기호화된 문자나 형태들이 무늬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유니섹스 아이템으로 입혀져 왔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능성 신소재, 스트레치 소재의 개발 등의 과학의 발전과 뉴 테크놀로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액티브 스포츠(Active Sports)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액티브 스포츠룩의 니트웨어 디자인은 기능성이 우선시되어져 과도한 장식이 절제되고 바디 컨셔스 라인으로 인체의 곡선미를 강조된다.

<그림 76>은 장 샤를르 드 카스텔바작이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몸판에 로고와 파스텔 색상의 인타샤로 표현하여 기본형 검은색의 터틀넥에 포인트를 주었다.

<그림 77>은 폴 스미스(Paul Smith)가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일상복에 레저나 스포츠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패션이다. 브랜드 로고나 숫자, 문양을 자카드나 인타샤 기법으로 장식하고 원 포인트(one-point)적인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 78>은 페이크 런던이 2003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터틀넥과 소매단의 강한 스트라이프 배색을 하여 스포티한 멋을 살렸으며 허리단의 이음새 부분에 일부러 퀘맨 듯한 자수와 장식술로 마무리하였다.

<그림 79>는 페이크 런던이 2003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멀티 스트라이프 배색의 지퍼 여밈의 가디건이다. 밑부분에 동물문양의 인타샤로 장식하고 같은

---

120) 이경희, 위의 글, p. 29.

스트라이프로 된 스웨터를 머플러처럼 레이어드하여 연출하였다.

<그림 80>은 도나 카란(Donna Karan)이 2000년 F/W DKNY 컬렉션에 발표한 작품으로 태번수 울소재의 터틀넥 스웨터이다. 소매 끝 부분에도 굵은 고무뜨기로서 넓게 장식하였으며 가슴부분은 니트의 결을 바이어스로 처리하여 문양배색을 사진으로 나타내 변화를 주고 있다. 날카롭게 사진 처리된 허리선이 스커트와 조화를 이루어 세련되고 편안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그림 81>은 페이크 런던이 2001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앙상블 스타일의 니트웨어로써 염색기법과 숫자를 배색으로 장식하였다. 가디건을 등에 걸쳐 자연스럽게 코디네이터하고 허리밑단의 한쪽 부분을 오픈시켜 더욱 캐주얼하게 연출하였다.

<그림 82>는 트루사르디(Trussardi)가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몸판에 자카드로 기하학 문양을 배색하여 포인트를 준 유니섹스풍의 캐주얼한 니트 점퍼이다.

<그림 83>은 파코 라반(Paco Rabanne)이 2002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고무뜨기의 터틀넥 스웨터위에 망토형을 레이어드하였고, 니트로 만든 모자, 장갑으로 캐주얼하게 코디하였다.

<그림 84>는 소니아 니켈이 2003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레깅스와 코디한 긴 기장의 풀오버이다. 소매의 스트라이프와 몸판 위의 커다란 로고를 인타샤로 표현하여 스포티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었다.

이처럼 캐주얼한 니트웨어 스타일은 단순한 라인이나 바디 컨셔스 룩으로 신축성 있는 니트 원사의 사용으로 절제되고 간결한 활동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다른 색과의 스트라이프 배색, 로고 등을 이용한 후드 점퍼, 캐주얼과 스포츠웨어의 장점을 결합시켰으며, 실루엣은 헐렁한 박스형이나 H 라인을 중심으로 하여 레이어드룩이 많이 보였고 여유있는 착장법으로 편안함을 강조하였다.

디테일은 로고(logo)의 활용, 드로우 스트링(draw-string), 스트라이프 밴드 트리밍, 강한 배색선 등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감성과 캐주얼함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 2) 에콜로지(Ecology)

‘에콜로지’라는 용어는 독일의 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날로 가치관이 다원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이 갖는 소외감이나 순수성의 상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에 대한 동경심, 생태계를 위협하는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정신적 소외감과 자아실현에 대한 갈망의 인식이 고조되었고 그 결과로 여러 문화의 미학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에콜로지는 자연에 대한 동경과 회귀 본능, 인간성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주로 상징, 은유, 콜라주 등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즉 현대인의 상실된 본질을 찾고 자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자연, 순수 회귀, 인간 본성 회귀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려는 경향에 따라 현대 니트웨어의 디자인에서는 인위적이고 구조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것에 기본을 둔 순수성과 인체를 구속하지 않은 편안한 실루엣으로 자연스러움을 강조한다.

1980년대에 자연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중시하는 정신세계인 에콜로지는 21세기에 이르는 현대까지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으며 트렌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1995년 이후의 에콜로지는 환경친화적, 자연에 대한 관심, 재생의 의미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까지 포함한다.

보다 더 캐주얼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생활의식의 확대와 함께 자연스럽고 인간미를 느끼게 하는 내추럴 성향이 더욱 확대되어져 자연이 지니는 순수함과 거칠음, 색상의 풍부함 등 새로운 차원의 에콜로지 패션으로 나타났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특성으로 자연으로의 회귀,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 등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에 염두를 둔 자연소재, 고유문화나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색, 스타일로 패션에 표현되고 있다.<sup>121)</sup>

에콜로지 패션은 자연주의, 원시주의로 나뉘며 환경에 염두를 둔 자연소재,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색과 형태로 패션에 표현되었다.

### (1) 자연주의(Naturalism)

환경문제, 생태학적 위기를 인식하는 자연주의 이미지의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서는 인공적이며 구조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신체를 구속시키지 않는 편안한 실루엣, 중간 톤의 색상에 의한 배색 또는 여러 색이 혼합되거나 단계적으로 염색한 실을 사용한 그라데이션(gradation)기법이 많이 나타난다.

---

121) Tex Herald, “21세기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 Apr. 2001, p. 9.

또한 돌, 나무 등의 천연 재료로 장식하여 자연 그대로의 삶을 동경하며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때로는 불규칙한 험 라인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주의 니트 패션의 조형적 특징은 기교를 배제한 자연스러운 형태를 중시하면서 소재와 조직 면에서 자연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미를 강조하는 데 있다. 색상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색, 대지의 색, 흰색을 가미한 내추럴한 베이지 등이 주로 사용되고 전체적인 형태는 소박한 느낌과 단순하고 편안한 조형미를 추구한다.

가장 다양하고 아름다운 영감을 제공하는 자연물의 대부분은 니트에서의 문양으로 이용되며, 특히 꽃이나 동물의 문양이 널리 사용된다. 이들은 자카드나 코바늘뜨기로 편직, 장식하는 기법으로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대부분은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85>는 요이치 나가사와가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모 소재의 가디건 위에 니트로 만든 테이프로서 새와 꽃, 나무 등 자연물을 주제로 한하여 입체적으로 자수 장식한 에콜로지풍의 니트웨어이다.

<그림 86>은 2001년 F/W 모스키노 칩 앤 칩(Moschino Cheap & Chic) 컬렉션에 발표된 작품으로 꽃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니트로 짠 애플리케 장식으로 변화를 주었다.

<그림 87>은 잇세이 미야게가 1997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색상의 배색과 천연 소재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가슴 한 부분에서 비틀어 접어올린 비대칭적 구성을 이룬다.

<그림 88>은 지방시(Givency)가 2004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자연색상과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크로세로 나타내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연주의 이미지의 니트웨어는 수공예 기법과 손뜨기나 코바늘뜨기에 의한 감각을 중시하는 가운데 편안한 니트의 감각을 가장 잘 나타내며 끝마무리를 미완성시켜 그대로 처리함으로써 더욱 부조적 느낌을 보여준다.

## (2) 원시주의 (Primitivism)

패션에서의 원시주의적 경향은 70년대의 히피 룩과 80년대에 등장한 아트 텍스타일의 찢고 구멍이 뚫린 디테일을 이용한 핑크 룩, 80년대 초기의 푸어 룩(poor look), 그런지 룩(grunge look)으로 계속 연결되었다가, 최근에는 뉴 히피와

그런지의 융합을 통해 많은 컬렉션에 흥미롭게 등장하고 있다.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원시주의 경향은 문명화된 시대의 세련미나 정교함보다는 오히려 원시시대의 순박함과 투박한 자연스러움을 선호한다.

전체적으로 단순한 복식 형태를 이루며 투박하고 거친 질감의 가공되지 않은 느낌을 주는 천연 소재와 자연적인 색상과 과장한 실의 굵기를 사용하여 아방가르드한 분위기를 내기도 한다.

원초적인 영감과 모티브는 강렬한 색채의 사용이나 원시적이고 자연요소를 활용한 문양의 프린팅, 원시 미개사회의 노골적 특성의 반영, 자연의 재료 수용 등으로 강렬한 원초적인 생명력과 토속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원시주의 경향은 생명력에 대한 갈망으로 원시로의 영감과 모티브를 통해 인간 본성이 지닌 자연 그대로 표현되거나 재구성하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복식에서의 원시적 특성은 아프리카와 같은 문명에 물들이지 않는 지역의 영향을 받아 단조로운 형태가 특징이며 프린트나 액세서리 및 자연의 재료를 사용하여 원시성을 표현하고 있다. 천연 재료의 사용으로 자연성을 강조하며 동물 등의 문양 등은 강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새로운 매개체로 나타내어지며, 구슬, 가죽, 밧줄, 짚으로 만든 소재도 사용된다.

원시주의 니트 패션은 물질적 풍요에 반대되는 흐름으로 기계주의적 문명에 의한 비인간화와 자연 환경의 파괴에 대해 맞서며 자연 회귀의 한 표현이며 육체의 자연미나 토속적인 색채, 실루엣의 단순성, 신체의 노출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sup>122)</sup>

디테일로는 단처리하지 않은 가장자리로 올이 풀리거나 끝부분이 말리게 하고 또는 솔기가 겉으로 드러나게 하여 낡고 오래된 느낌을 줌과 동시에 미완성의 미를 부각시킨다.

<그림 89>는 알렉산더 맥퀸이 2000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두꺼운 펄편(purl stitch)에 방적하지 않은 미가공의 원사를 꼬아 과장시킨 스웨터이다.

<그림 90>은 유키 토리가 2004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원시적인 자연의 이미지를 연상하도록 새의 깃털을 섞어 부조적으로 편직한 것이다.

이러한 원시주의적 경향에 힘입어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낡고 오래된 듯한 이미지의 스웨터, 여러 종류의 자투리 실을

---

122) 이경희. 위의 글, pp. 60~62.

이용하거나 기존의 스웨터를 이용하거나 니트와 우븐, 가죽, 모피, 레이스 복고풍의 코바늘뜨기 기법 등의 이질적인 소재들을 함께 사용한 패치워크 기법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히피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프린지(fringe), 불규칙한 레이스 니팅과 슬래쉬(slash) 기법의 디테일로 기존의 패션규칙을 거부하고 새로운 미의 기준을 나타낸다. 핸드 스티치는 수공예적 기법의 하나로 바늘 땀수가 고르지 못하므로 중고의 분위기를 내게 하여 재활용 패션에서 자주 사용된다. 다양한 종류의 실 뿐만 아니라 쉬폰, 가죽, 리본 등의 다른 소재들을 니트 원단 위에 핸드 스티치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원시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술적인 의미는 형태의 과장, 디자인의 변형이나 원시풍의 디테일을 활용하여 장식적인 의미로서 표현되고 있다.

### 3) 에스닉(Ethnic)

에스닉 스타일은 사회적,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여러 요소가 혼재하고 어우러져 복합적인 다문화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민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토속적이며 종교적 의미가 가미된 형태, 문양, 색상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현대의 에스닉 이미지의 니트웨어 스타일은 낯선 이미지와도 어우러져서 다양한 문화권의 민속 복식과 상호 절충시켜 나타난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문화권에 대한 호기심으로 여러 나라의 민속 의상과 민족 고유의 염색, 직물, 패턴, 자수, 액세서리, 문양, 착장방법 등의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탐구하여 복식으로 표현된 스타일이다.

민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형태, 문양, 색상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하는데 민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에스닉 니트 스타일은 ‘보보스’라는 부르조아와 보헤미안이 믹스되어 만들어진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70년대의 에스닉과 히피 스타일로 표현되고 있다.<sup>123)</sup>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대표적 디자이너인 미소니는 다양한 색상의 배색에 의한 표현만으로도 강렬한 에스닉한 이미지를 준다.

<그림 91>은 미소니가 2002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아프리카의 부족들의

---

123) 조원정, “에스닉 스타일을 이용한 속옷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22.

복식의 색채와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높은 터틀넥의 강조와 멀티 컬러의 강렬함을 살려 디자인한 에스닉 요소의 디자인이다.

한편 다양한 민속적인 문양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한 니트웨어는 에스닉의 유행 경향에 맞추어 보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져 풀오버, 가디건, 재킷 등 다양한 아이템 외에도 모자, 머플러, 장갑 등 소품에도 널리 쓰여지고 있다.

<그림 92>는 알렉산더 맥퀸이 2003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강렬한 원색의 크로세 기법으로 굵게 짠 니트웨어이다. 아프리카 부족의 원시적인 이미지를 현대화하여 캐주얼하게 코오디네이트시켜 패션의 다문화주의를 제시하였다.

<그림 93>은 요이치 나가사와가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북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전통 문양을 응용하여 블랙과 화이트의 멜란지 울 소재로서 토탈적으로 디자인하였다. 이 작품은 풀오버, 스커트, 스타킹, 코트의 토탈 아이템에 문양을 적용하여 디자인한 점이 독특하며 이는 더욱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 94>는 안나 수이가 1999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민속적인 기하학 무늬를 살린 니트 망토이다. 중남미의 분위기를 살려 장식술로서 풍성한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그림 95>는 안나 수이가 1999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모헤어로 된 기모소재의 안뜨기 조직과 레이스 뜨기를 응용하여 강렬한 원색의 색상을 조각조각 패치워크로 만든 에스닉한 분위기의 니트웨어이다. 밑 부분의 햄 라인을 술장식 하여 네오 히피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처럼 에스닉 패션의 이미지를 위한 효과적인 텍스처를 표현하기 위해 코바늘 뜨기나 손뜨기, 민속풍 문양을 살린 자카드 조직 등 뜨기 기법에 의한 방법 외에 아플리케, 플라주, 자수, 비딩, 퀼트, 펠트, 울풀기 등을 이용하거나, 니트의 드레이프성을 이용하여 슬릿(slit)을 주기도 하면서 독특한 조형미를 살리고 있다.

에스닉 패션의 소재로는 모사나 면, 마사 등 천연소재 외에도 가죽, 스웨이드, 테이프, 루렉스사나 멀티 컬러 다이드사, 레이온 광택사 등 투박한 질감의 원사로 부터 매우 섬세한 특수사까지 폭넓게 사용되어진다.

주로 페이스리나 민속적 문양을 살린 자카드 조직물이 많으나 민속적 문양의 모티브를 자수 처리하거나 부조적인 모티브를 응용한 손뜨기 기법도 많이 사용된다.

#### 4) 레트로(Retro)

패션은 역사라는 외적 조형성을 차용해 의복이라는 내적인 미적 가치를 표출한다. 의상에서의 역사의 의미는 단순히 외적으로 표현되는 시대적 양식을 구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화적 배경과 어울려 의복이라는 조형요소로의 구현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sup>124)</sup>

1990년대에는 삶에 대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과거에 대한 향수와 함께 지나간 것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지나간 시대의 패션을 오늘날 삶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재수정하는 복고풍이 유행되었고 이는 ‘레트로 룩’ 혹은 ‘패션 리바이벌(revival)’이라고 명명되었다.

레트로는 ‘레트로스펙티브(retrospective)’의 약어로서 ‘노스텔직(nostalgic)’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회고적, 옛 것을 그리는’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향수를 느끼게 하는 패션, 옛날의 좋았던 때를 그리워하는 올드 패션의 리바이벌을 말한다.<sup>125)</sup>

특히 물질적 풍요를 경험한 현대인들은 마음의 풍요와 정신세계에 대한 향수로 과거를 동경하는 경향이 커지게 되어 인간의 삶에 대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과거에 대한 향수와 함께 지나간 것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모더니즘은 과거나 전통을 외면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특색이 있었으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융합의 원칙하에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노스텔지어를 합쳐 옛것을 새롭게 재생, 발전시키고자 하는 역사주의가 시도되었다.<sup>126)</sup>

그것은 복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유희를 즐기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그의 표현 방법은 과거 양식 형태를 기초로 한 새로운 재질과의 혼합, 장식성의 가미를 통한 시대의 절충을 들 수 있다. 즉 과거에 대한 향수와 시대 구분의 무시, 그리고 회귀성에서 출발하여 옛것에 대한 재현이 아닌 현재 인간의 감정과 정서, 시대상에 맞게 재정립된 시대의 클로스오버인 것이다.<sup>127)</sup>

현대 패션에 표현되는 복고는 시대적 양식의 융합으로 한 스타일 안에 여러 시대가 동시에 재현되며 현대적인 방향성을 띠고 등장한다. 다만 복고적 요소는 단순히 역사적 내용의 차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차용을 특징으로 하

124) Richard Martin, Harold Koda, *The Historical Mode* ( New York : Rizzoli, 1989), p. 7.

125) 김동욱 편, *포스터모더니즘과 예술* (서울 : 청하, 1992), p. 41.

126) 이봉덕, 앞의 글, pp. 60~63.

127)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 수학사, 1987), p. 543.

며 현대 패션의 역사주의 의상은 고대 복식으로부터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에서 19세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세기를 의상의 테마로 삼고 있다<sup>128)</sup>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레트로 이미지의 미적 특성으로는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와 원시회귀의 경향을 보이면서 자유주위적 개성미와 절제된 복고풍의 고전미로서 이들은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비비안 웨스트우드,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은 인공적 소재의 사용에서 탈피하여 원시적 회귀성을 표현하고 있는 스타일의 모티브를 차용하여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이미지가 혼재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6>은 줄리안 맥도날드가 1996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낭만주의 시대의 섬세한 이브닝 드레스를 떠올리게 한다. 난해한 여러 개로 구분된 레이스 문양의 드레스로서 비스코스사를 사용하여 핸드니팅으로 만들어졌다.

<그림 97>은 줄리안 맥도날드가 1998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표면효과가 있는 거친 팬시안으로 만든 중세의 여성복식을 연상시키는 신비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이처럼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 나타난 레트로는 과거적 요소들을 인용, 재사용, 은유, 혼합 등의 방법을 통해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하여 새로운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외적으로는 지나간 세계에 대한 향수로 과거의 의상을 재현한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디자이너의 영감과 결합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다양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 나타난 레트로는 과거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동경하는 표현의 한 방법으로 오래되어도 새로운 것, 낡은 것으로부터의 애착, 자기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독특한 희소성이 담겨져 있으며 크게 빈티지와 노스탤직으로 구분된다.

### (1) 빈티지(Vintage)

현대인의 과거로의 집착이 패션에 표현된 것으로 낡은 것으로부터의 애착, 오래되어도 새로운 것, 자기만이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독특한 희소성이 담겨져 있는

---

128) 박명희, “1980년대 패션잡지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미국 Vogue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부설 생활과학연구소 연구보고 제15집, 1992, p. 151.

패션 테마이다.

빈티지는 정형화에 구애받지 않는 형태를 추구하는데, 현대 니트웨어에 나타난 빈티지의 표현 양식으로는 다소 바랜 듯한 톤의 염색이나 탈색, 수공예적인 기법, 의도적으로 소재를 낡게 보이도록 여러 가지 기법으로 디자인하여 자유로운 감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8>은 도나 카란이 2004년 F/W DKNY 컬렉션에서 발표한 작품으로 슬리브안의 자연스러운 표면 질감이 캐주얼 요소를 강조하며 양 옆으로 넓게 드리워진 터틀넥의 머플러를 한 쪽 어깨를 깊게 내려뜨려 착장에서 변화있게 시도해본 스타일이다. 슬리브안의 특징을 살리고자 실루엣은 단순한 박스형으로 터틀넥에 장신구를 달아 포인트를 주었다.

<그림 99>는 유키 토리(Yuki Torii)가 2001년 S/S년에 발표한 로맨틱한 빈티지 스타일이다. 한 벌의 의상 안에 다양한 원사, 색상, 문양을 서로 매치시켜 전체적으로 자연풍의 그린 색상과 꽃문양의 패턴을 믹스시켜 빈티지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여러 조각을 매치시켜 약간은 오래되고 낡은 듯한 효과는 패션의 미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 상반된 이미지의 스타일을 조합시켜 재해석된 빈티지로서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0>은 펜디(Fendi)가 2000년 S/S에 발표한 크로세 기법의 드레스이다. 조각 조각 기워진 패치워크처럼 보이도록 보라와 핑크 계열의 유사 색상별로 이어져간 크로세 기법의 이 작품은 예전부터 입혀져 왔던 오래된 의상처럼 보이게 하며 손으로 직접 패치워크로 만들어 입었던 오래된 기억 속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소박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스타일은 고급 패션과 하위층 패션이 서로 절충되어지고 조합된 예로서 수공예적인 절개와 이어붙임으로써 단순한 장식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인간미와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다.

최근의 유행되는 빈티지풍의 니트웨어는 독특한 희소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트렌디한 개성으로 나타내어진다. 의도적으로 찢거나 패치워크나 오래되어 낡은 듯한 컬러 배합의 투박한 헤어리(hairy) 소재 등으로 만든 스트라이프 무늬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고 낡은 효과를 나타내주며 레이어드하여 입음으로써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착장 형태의 재구성을 한다.

빈티지풍의 니트웨어는 내추럴 톤으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면서

컬업(curl up)의 특성을 살린 겉으로 드러나는 솔기선으로 너털거림의 효과를 주거나, 공예적인 장식 기법들과 어우러져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빈티지의 낡은 효과를 최대한 즐기면서 독특한 미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 (2) 노스텔직(Nostalgic)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서의 노스텔직은 과거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패션으로 예전에 좋았던 때를 그리워하는 올드 패션(old fashion)의 리바이벌을 의미하며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의 패션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려는 경향을 말한다.<sup>129)</sup>

이러한 복고적인 표현이 과거에 대한 향수,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움, 소박하고 단순했던 시절의 생활 방식에 대해 동경함으로써 노스텔직은 현대의 시대감각에 맞게 재조명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01>은 2000년 F/W 레 코팽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스웨터 겉’을 연상하게 하는 몸에 꼭 맞는 실루엣의 앙상블 니트웨어로 앞판의 꽃모양을 섬세하게 자수로서 장식하였다

<그림 102>는 프라다(Prada)가 2005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다소 투박한 재질감과 색상의 차이를 준 밑단의 장식을 크로세 기법으로 장식화하고 장식하였고 60년대 유행했던 코바늘뜨기 원피스 드레스의 향수를 느끼게 해준다.

<그림 103>은 안나 몰리나리(Anna Molinari)가 1997년 S/S에 발표한 니트 드레스로서 과거의 레이스무늬가 유행하였던 지난 시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여성미를 강조한 노스텔직한 스타일이다. 신체를 유연하게 흐르는 소재와 섬세하게 짜여진 레이스 문양, 로맨틱한 색상과 리본 장식으로 더욱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다.

<그림 104>는 소니아 리켈이 2000년 F/W에 발표한 것으로 1980년대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노스텔직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강한 레드 색상의 그의 완벽한 니트웨어 룩은 럭셔리한 앙고라 실과 모피(Fur)와의 조화로 고급스럽고 풍부함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1980년대의 그의 전성기를 느끼게 한다.

<그림 105>는 소니아 리켈이 2000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1920년대 풍의 신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앙고라 소재의 파스텔 색조의 풍성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코트와 안의 받쳐 입은 완벽하게 비율을 맞춘 사선 처리된 조직에서

---

129) 라사라교육 개발원, 복식사전 (서울 : 라사라 출판사, 1994), p. 95.

의 배색은 신체를 동적으로 보이게 한다.

그녀의 노스탤직한 이미지의 니트 디자인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니트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디테일을 재현한 것으로 깊게 눌러쓴 모자와 핸드백 등 액세서리와 조화로서 더욱 여성적인 미를 나타낸다.

빈티지가 오래된 낡은 미를 표현한다면 노스탤직한 리바이벌의 의미로 빈티지 패션보다 실루엣이나 소재, 디테일 면에서 과거의 재현으로 좀 더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감성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sup>130)</sup>

노스탤직 니트 스타일은 현대에 빠르게 변화하고 경직된 생활방식에 역행하는 이미지로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정겨움, 과거의 아름다웠던 그리고 소박하고 단순하며 행복했었던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복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 5) 테크놀로지(Technology)

기술의 진보와 발달은 현대인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패션에 있어서도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해 주는데 궁극적으로는 기술의 발달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 응용할 수 있게 한다.<sup>131)</sup>

과학 문명과 예술 의상의 조합으로 완성되어지는 테크놀로지풍의 현대 니트웨어는 비닐, 메탈 등의 광택이 나는 소재와 더불어 종이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다양한 신소재를 사용하여 인체에 대한 의상의 새로운 미를 제시해준다.

현대 니트 패션에서의 기술의 발달로 인한 신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이테크의 미적 표현도 함께 시도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주는 즐거움을 확대하며<sup>132)</sup> 또한 이것은 초현실성을 지닌 이념과 특성을 매개로 다양한 형태의 조형적 특질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테크놀로지 이미지의 니트웨어에서는 주로 기능성을 갖춘 고도의 기술력과 심플한 실루엣으로 나타나는 미니멀한 라인을 강조하고 주로 실버, 골드 혹은 흰색 등 무채색을 주로 사용한다.

<그림 106>은 라우라 비아조티가 2001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극세번수 스

---

130) 이경희, 앞의 글, p. 72.

131) 박주현, “공상영화에서 나타난 복식 이미지,” 복식 제 52권 제1호, 2000, p. 55.

132) 박은경, “20세기 테크놀로지 패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 41.

판텍스사를 이용하여 신체의 곡선을 따라 밀착되어 부드럽게 감싸면서 활동성을 강조한 미니멀한 니트웨어이다. 허리 부분의 메탈 색상으로 장식하여 모던하면서도 미래적인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현대 니트웨어는 특히 컴퓨터 시설의 발달과 편직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컴퓨터화되어 무봉제 니트가 제작되고 있으며, 과학적인 염색 및 가공 기술, 신소재 개발 등에서 타 영역보다 훨씬 능가하는 기술력에 의해 생산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미래패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995년 이후 최근에 제시된 미래지향적 분위기의 니트 소재로는 정돈되고 세련된 조직들의 효과나 기하학적 패턴들을 주로 이용하여 표면 효과를 준 각종 원사가 개발되고 있다.

그 외에도 울(wool)에 비닐을 코팅하거나 천연섬유의 코팅물 뿐만 아니라 기존 메탈릭 소재에 자연스런 광물질에서 느껴지는 메탈릭 원단까지 제안되고 있다. 또한 넨 우븐(non woven) 등의 기능성을 갖춘 하이 테크놀로지 소재를 이용하여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07>은 알렉산더 맥퀸이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극세번수의 하이 테크놀로지 소재로 만든 활동적이고 미래지향적 니트웨어이다.

<그림 108>은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게이저리스(guageless) 무봉제 니트로 제작된 이 니트 스타일은 방사선으로 입체적으로 편직되어 상체의 조형미를 잘 나타내준다.

<그림 109>는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슬래쉬 처리한 듯 하나의 의상 안에서 서로 다른 조직과 색상이 입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편직되어진 놀라운 기술력에 의한 니트웨어이다.

현대 니트 패션에서는 기계 기술의 발달과 함께 테크놀로지에 근거한 다양화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현대의 니트웨어는 다양한 이미지와 토털 아이템으로 응용되며 색상을 자유자재로 하여 한 벌의 의상에서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문양, 질감 등을 통해 새롭고 독특한 분위기를 보인다.

<그림 110>은 1999년 S/S 에스까다(Escada) 컬렉션에 발표된 메탈릭사로 만든 니트 코트로서 신체에 밀착시킨 실루엣과 강한 색채 대비로 인공적인 미래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소재에서 보이는 하이테크 광택과 맞물려서 지구에 도착한 외계인의 모습처럼 색채의 사용은 표현한 네온 컬러의 시스루 소재로 미래 지향적 느낌을 구축하고, 움직임을 고려한 기하학적 커팅라인을 사용하여 테크니컬한

미적 요소를 나타낸다.

이처럼 테크놀로지 이미지의 니트웨어는 다양한 소재의 특성과 생동감있는 색채의 사용, 바디 컨셔스 라인으로 우주 또는 미래에 대한 동경과 영감을 받아서 역동적인 미래의 조형미를 나타낸다. 또한 현대 니트 패션은 최첨단 하이테크와 인공지능 컴퓨터의 도입에 의한 사이버감각을 제시함으로써 테크놀로지의 정수를 보여준다.

## 6) 해체주의 (Deconstruction)

20세기의 역동적인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점차로 인간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하면서 '새로움'이 새로운 가치의 기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20년 말에 활동을 한 디자이너 스킨아빠렐리는 동시대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 친분을 가지고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예술을 의상 디자인에 반영하여<sup>133)</sup>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즐겨 이용한 트롱플 뢰이유(trompe l'oeil)기법, 위치 전환에 의한 데빠이즈망(dépaysement)기법을 도입하여 기존 복식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개념들을 거부하고 예술과 정신세계를 함축한 혁신적인 개념을 니트 패션에 부여하기도 하였다.<sup>134)</sup>

해체주의는 20세기말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나타난 서구의 형이상학 중심주의와 주체를 해체시키고 억압된 것들의 복귀현상, 그리고 탈 중심화의 개념을 끌어들이 소외된 것 즉, 동양, 주변문화, 여성, 추, 빈곤 등을 대두시켰다.

해체주의 패션은 다양한 방식으로 복식의 구조, 전통적인 인체미와 복식미를 해체하였다. 이는 인체의 이상형을 추구하는 복식의 해체로부터 자유로와지려는 방향으로 복식의 구조를 의도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인체형에 대한 무관심을 표명한다.

소재의 적정성에 대한 기본 관념의 거부로서 전통적인 소재 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재료, PVC, 폴리우레탄, 메탈 종이 등도 과감히 도입하여 예기치 않은 낮선 충격을 주며, 구멍내기, 구기기, 찢기, 풀기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모호함을 준다.

부정형의 형태는 형 자체를 부정하고 해체시키는 형태로 뒤틀리거나 왜곡되어

---

133) Richard Martin, *op. cit.*, p. 200.

134) 이봉덕, 앞의 글, p. 18.

나타나며, 착용자가 움직임에 따라서 다양한 실루엣이 제시될 수 있으며 실용성과 기능이 배제되어 나타난다.

구조적인 선의 거부, 좌우 대칭이 되지 않는 불균형의 미는 해체주의의 경향과 일치하며 특히 매기, 두르기, 걸치기, 겹쳐 입기의 형태는 착용자에 의해 불확정성으로 연출하는 이미지를 표현한다.

행 라인을 겉감 밖으로 보이게 하면서 완성을 파괴하고 싶거나 미완성의 미를 현함으로써 서양 전통복식의 표면적인 아름다움을 해체한다 .

이러한 해체주의적 기법은 비대칭, 대조되는 무게와 시각적인 퀄리티의 점유를 나란히 놓기, 안쪽과 겉쪽의 혼동스러운 예상의 의상을 다시 모으기, 거칠고 완성되지 않은 가장자리, 바디 실루엣을 왜곡시키는 주름잡은, 비틀고, 드레이프된 소재, 오그라지거나 크게 늘린 비례, 혁신적인 소재 가공처리과 무질서한 느낌의 조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전통적 디자인 과정의 역(逆)을 취하고 있는 탈구성의 결과로서 형태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형태를 무시하고 봉제하지 않는 디자인이나 한 벌의 의상에 두 개의 소매를 연결한 듯 하여 의복의 형태를 벗어나게 한다.

그 밖에도 추의 미를 제시하여 전통적인 복식의 형태, 구조선, 기능성 등을 해체하고 탈구성적 표현을 나타낸다.<sup>135)</sup>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서의 대표적인 해체주의 패션은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가 디자인한 구멍이 난 레이스 스웨터로서 그녀의 패션에 대한 접근 방법은 '무에서의 출발'인데 이는 해체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것이다. <sup>136)</sup>

해체주의 니트 디자인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잇세이 미야게, 레이 가와쿠보, 요지 야마모토,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기존의 패턴을 완전히 파괴한 형태를 니트 디자인에 도입하였다.

그 외에도 마틴 마르젤라(Martin Margiela), 알렉산더 맥퀸, 후세인 카라얀에 의해 급진적인 해체주의적 감각의 니트 디자인이 급속도로 많이 소개되어졌고, 그들의 국제적인 패션에서의 충격과 영향은 계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는 노출, 파괴, 빈곤, 분해적 해체와 상호 텍스트성, 탈 현상, 불확실성의 원리에 의해 나타난다. 이에 비대칭, 불균형, 탈

135) 이지윤,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 원리 및 디자인의 특성과 조형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173.

136) Sudjido, Deyan, *Rei Kawakubo and Comme des Garçons* (New York: Rizzoli, 1990), p. 10.

중심, 과장, 변형, 부조화, 위치전환, 생략의 기법을 복식에 표현하여 의도적으로 기존의 형식을 거부하여 무형식성의 니트웨어를 선보였다.

이러한 형태의 니트는 고정관념을 깨고 걸치기, 두르기, 휘감기를 통해 디자인 함으로써 남성복, 여성복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성차에 따른 기존의 착용법을 해체하고 있다.

<그림 111>은 요지 야마모토가 2001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어깨에 메는 백은 세틀랜드 울 가디건의 한 부분으로 디자인되어져 한쪽 어깨 혹은 대각선으로 몸을 걸쳐져 앞면이 겹면이 되고 솔기는 밖으로 말려져 있다.

<그림 112>는 알렉산더 맥퀸이 2002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울을 풀어헤쳐 버린 니트 드레스는 죽음과 위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체주의 감각을 선보였다.

<그림 113>은 요지 야마모토가 1996년 F/W에 발표한 작품이다. 고무뜨기 조직의 겉옷 아래로 입혀진 레이어드(layered) 드레스들은 끝처리가 미가공 처리되어져 컬(curl)이 나타나 있다. 이는 컬이 나타나지 않는 겉옷과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복합 레이어드 룩은 비밀상적이고 부담스러운 추의미를 나타낸다.

<그림 114>는 테스트(Testu)가 2000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옆선 한쪽을 길게 만들어 왜곡된 형태를 가진 소매가 없는 톱이다.

<그림 115>, <그림 116>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2004년 F/W작품으로 신체의 형태를 무시하여 소매와 가슴에 모양을 변형하고 위치변환으로 가슴부분에 소매가 과장되어 길게 늘어 뜨려 피기스러운 추의미를 나타냈다.

<그림 117>은 잔 앤 칼로스(Jan & Carlos)가 2002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비대칭으로 왜곡되고 묶여진 암홀의 스웨터의 전위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그림 118>은 폼프 데 가르송이 1995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타이트한 어깨의 실루엣과 팔을 깊게 끼워 넣어진 슬리브로 전통적인 구성법과 착장법을 해체하고 있다.

한편 니트는 울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울을 풀리도록 편직되거나 슬래쉬 효과의 조직으로 편직되고, 실이 늘어지거나 꼬부라진 채로 남아있는 완벽한 니트 울 스웨터에 예외적인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개념을 파괴하는 더욱 급진적인 변화를 니트웨어에 적용하였다. 그것은 자유롭고 무질서하게 표현되고 코오디네이트되어 극도로 해체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 119>는 아츠로 타야마(Atsuro Tayama)가 1998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낫티드(knotted) 저지 드레스로서 바이어스의 결을 살려 비틀고 접혀지는 형

태와 소재와의 관계에서 신체에 맞는 새로운 레이어링을 추구한다.

<그림 120>은 후세인 살라얀이 1998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장갑이 달려있는 니트 원피스 드레스는 인체를 그대로 속박해버리는 상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운드 넥라인과 밑단부분이 넓게 고무단처리가 된 원피스드레스이다.

이처럼 해체주의 니트웨어 디자인은 인체에 대한 올바른 사이즈의 미학적 관념을 다양하게 변화함으로써 사이즈 정확성에 대한 무질서를 제공한다.

<표 7>은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이미지별 표현 양식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 2.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표현 기법

현대 니트웨어 디자이너들은 자유로운 표현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독창적인 조형미를 창출하며 개성적인 소재개발 및 신소재의 개발과 기존의 소재에 대한 관심을 재해석하는 가운데, 다양한 표현 기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sup>137)</sup>

니트 조직과 텍스처의 독특한 표면질감으로 표현되는 니트웨어는 소재의 신축성으로 인한 활동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소재의 복합성으로 디자인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드레이프성과 성형성에 의한 조형적인 자유로움 등으로 현대 의상의 감각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아이템이다.

산업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축적으로 조형개념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자유로운 개성표현을 위한 소재의 범위가 넓어져 기존의 소재에 대한 관심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적인 기법을 살린 니트 디자인 외에도 공예적인 기법을 살린 텍스처의 개발 등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니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면질감과 조직 그리고 다양한 표현 기법의 응용 등에 의한 창의적인 표현 영역은 어느 다른 영역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현대 니트 디자인에 나타난 표현 기법은 니트 고유의 조직과 색상의 변화를 통해 표현되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크게는 뜨기 기법, 조직, 소재, 장식 기법에 의한 표현 기법 등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뜨기 기법

대바늘뜨기로 널리 인식된 손뜨기(hand knitting)는 겹뜨기, 안뜨기 등 기본적인 스티치들과 니트 기법들을 결합하거나 응용하여 편물의 구조와 텍스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조직들과 패턴들을 만들어 낸다.

때로는 독특한 효과를 추구하여 예술작품의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작가들에 의해 직접 제조된 것들이나 새로이 개발된 풍부한 소재들이 널리 쓰여지고 있다. 제작 도중이나 완성된 니트 조직위에 실 이외의 구슬, 시퀸(sequin), 조개, 상아조각, 깃털이나 동물의 털, 돌멩이 등과 같은 타(他)재료에 의한 장식적 첨가물이나

137) 최경희, “현대 니트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Vol. 4, No. 3, 2000, p. 116.

오브제적 요소의 삽입이 수월하며 공예적 기법의 혼합적 표현 기법이 용이하므로 창의적인 표현의 시도가 가능하다.

최근의 유행 경향이 수공예적인 기법에 의한 빈티지 니트가 많이 보여지는 가운데, 많은 니트 디자이너들이 손뜨기의 특성을 살린 표현의 독창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대바늘뜨기와 코바늘뜨기에 의한 표현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121>은 루셀 사지(Russel Sage)가 2002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대바늘뜨기에 의해 실의 굵기에 변화를 주면서 걸뜨기를 하여 나타나는 재질감의 변화에 의한 니트의 꾸밈없는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걸뜨기에서 더욱 나타나는 컬 업 현상을 강조시키어 더욱 원시적이고 자연스러운 요소를 더하고 있다.

<그림 122>는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e)가 200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모피효과를 나타내고자 굵은 셔닐사를 이용하여 원사의 굵기를 변화시켜가며 손뜨기한 니트 코트이다. 칼라와 앞단 부분을 셔닐사로 술장식하여 더욱 거칠고 볼륨있는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그림 123>은 도나 카란이 2000년 F/W DKNY 컬렉션에 발표한 작품으로 손뜨기로 전통 문양을 여러 색상으로 배색하여 투박하게 보이도록 한 소매없는 터틀넥 스웨터이다. 집에서 직접 짠 듯한 오래된 느낌이 들며 이러한 기법은 캐주얼 니트웨어에서 많이 선보인다.

코바늘뜨기는 예술적인 가치와 실용적인 부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법으로 손으로 작업해야하는 공예적 특징 때문에 예술 의상이나 고급의상점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코바늘뜨기는 1960년대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싹트기 시작한 예술 의상 운동을 통하여 뜨기, 직조, 퀵팅, 종이작업 등의 기법들과 함께 표현기법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는데, 현대의상에 있어서 코바늘뜨기는 의상 전체에 또는 직조, 뜨기, 마크라메, 매듭 등과 같은 다른 기법과도 혼합하여 부분적으로 응용되기도 하며, 동선, 플라스틱, 가죽, 종이, 깃털, 등 다양한 재료와의 혼용도 가능하다.

<그림 124>는 2002년 F/W 레 코팽 컬렉션에서 발표된 태번수 모사를 이용한 코바늘뜨기로 만든 베스트와 니트 코트이다. 루즈(loose)하게 제작된 니트 코트와 안에 받쳐입은 니트 베스트는 니트를 정장스타일로 재해석한 1980년대 풍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그림 125>는 안나 수이가 2002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규칙적인 문양을

살린 코바늘뜨기로 만들었다. 정교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수공예적인 느낌과 북고풍의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림 126>은 2002년 F/W 레 코팡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목둘레선에서부터 거칠게 코바늘뜨기로 짜여져 내려온 장식술을 이용한 에스닉한 이미지를 나타내준다. 코바늘뜨기를 이용한 장식술의 2색의 색상 배합으로 인해 더욱 입체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기계 뜨기(machine knitting)는 손뜨기로 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직들을 신속하고 정교하게 표현하는 외에도 과학의 발달로 인한 편기의 발달로 입체적이고 인체 공학적인 다양한 조직이 개발되어진다.

각기 다른 텍스처와 색상 및 디자인을 포함하는 기계뜨기로 현대 니트 디자인에 사용되어져 표면 및 이면에 표출되는 표현의 다양성을 증대시킨다.

한편 기계뜨기는 산업용 합성섬유와 같은 극세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수월하며, 자동편기에서는 패턴을 만들기가 더욱 쉬운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하이게이지의 편직을 할 수 있는 기계의 발달로 손뜨기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신체에 밀착되는 섬세한 표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신속성, 정확성, 복제성이 특징인 기계뜨기는 정확한 산출과 작동에 의해 제작되므로 기계뜨기의 조직은 정밀도가 높다. 이러한 특성은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이나 반복적인 패턴, 기하학적 패턴, 도식화된 문양 및 복잡한 디자인의 표현력을 강화시킨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뜨기는 매우 효율도가 높은 매체로 고도의 신속성과 정밀성을 지녔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표현능력 및 가능성이 잠재된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림 127>은 미소니가 2002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모와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등을 혼합한 의장사를 사용하여 기계뜨기에 의해 독특한 입체적인 질감을 살렸다. 지그재그 문양을 살린 비대칭 여밈의 상의와 카펫 문양의 스커트를 각각 대비시켜 입음으로서 더욱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128>은 미소니가 2005년 S/S에 이브닝 룩으로 발표한 작품으로 광택나는 비스코스와 금속사를 섞어 기계뜨기를 이용하여 지그재그형의 기하학적인 문양을 살린 화려한 드레스이다. 전체적으로 배색 간격을 밑으로 갈수록 커지게 배색하여 변화를 주었다.

<그림 129>는 2000년 F/W TSE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컴퓨터 기계뜨기

에 의해 몸판에 인타샤 기법으로 컬러 배색한 캐시미어 소재의 모던한 스웨터이다.

이처럼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뜨는 기법의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손뜨기, 기계뜨기, 코바늘뜨기 등 니트의 뜨는 기법에 따른 독특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디자이너들의 추구하는 미적 감각에 따른 세부적인 조직과 소재, 게이지의 선정, 색상 등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개성적인 표현 기법을 개발할 수 있어 어느 아이템보다도 창의적인 디자인 분야로 커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2) 조직

삼원조직인 겹뜨기(plain stich), 고무뜨기(rib stich), 가터뜨기(gather stitch, 펠편) 외에도 양면뜨기(interlock stich)을 포함해서 4원 조직이라고 한다.<sup>138)</sup> 그 외에 여러 가지 변화조직을 응용하여 더욱 다양한 표현을 한다.

그 중 현대 니트 패션에서 자주 표현되는 대표적인 조직을 살펴보면 겹뜨기, 고무뜨기, 가터뜨기, 양면뜨기, 교차뜨기, 무늬뜨기, 레이스 뜨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조직을 응용한 표현 기법을 현대 니트 디자인에 나타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0>은 라우라 비아조티가 2001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굵은 바늘과 가는 바늘을 사용하여 겹뜨기를 하였다. 편사의 굵기에 비하여 루프가 크면 편지는 영성하고 빈약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적으면 촘촘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응용한 시스루 효과를 연출하고 있다.

<그림 131>은 베티 잭슨(Betty Jackson)이 2001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겹뜨기 위에 가슴 윗부분에 있는 울을 니트의 특성인 런-업(run up)현상을 일부러 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해 울을 건너뛰기 하여 독특하게 변화를 준 것이다. 어깨부분은 편기 상에서 코를 줄여주며 입체적인 암 홀(arm hole)을 만들어주었고 허리와 소매단은 짧은 폭으로 2×2 고무뜨기로 하고 목은 높게 고무뜨기로 하여 짧은 감각을 표현했다.

<그림 132>는 알베르타 페레티(Alberta Fereti)가 2002년 F/W 필로소피(Philosopy)컬렉션에 발표한 작품으로 매끈한 겹뜨기 조직의 니트웨어로 두 벌을

---

138) Susanna E. Lewis, *A Machine Knitter's Guide To Creating Fabrics* (Asheville, N.Y.: Lark Books. 1986), pp. 4~8.

함께 입은 듯하게 보이도록 안에 보이는 터틀넥의 풀오버(pull over)에 깊게 파인 라운드넥의 풀오버를 덧붙여 2개의 풀오버를 겹쳐입은 것처럼 착각을 주는 작품이다.

<그림 133>은 2002년 S/S 레 코팽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모 소재를 사용한 기계뜨기로 만든 고무뜨기와 다른 재질감과 게이지와 조직 기법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한 쪽 어깨에서부터 비대칭적으로 흘러내리는 앞선과 밑단의 햄 라인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다.

<그림 134>는 베티 잭슨이 2004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다양한 고무뜨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무봉제 니트로서 만들어졌으며 인체의 다른 선을 그대로 자동으로 편직 되어진다. 원사의 특성을 살리거나 한 작품 안에서의 실의 굵기에 변화를 주거나 바늘의 굵기 차이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하였다.

<그림 135>는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2000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성글게 짠 가터뜨기를 바이어스 결로 사용하여 조직의 신축성을 이용하여 신체의 선을 따라 흐르는 유동적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여밈도 비대칭으로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136>은 돌체 앤 가바나가 2002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험령한 빅 실 루엣의 느슨하게 짜여진 가터뜨기의 가디건과 핸드백이다. 끝처리가 말리지 않도록 여러 합수로 짜여졌으며 가터뜨기 일종의 브릭 스티치(brick stitch)로 더욱 거친 느낌의 표면효과를 강조하였다.

<그림 137>은 소니아 리켈이 2002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멀티 스트라이프로 배색하고 리본으로 한쪽을 장식하여 여성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고급스럽고 정교함을 주는 세 변수 소재의 양면뜨기의 니트웨어이다.

<그림 138>은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이 2002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색상의 변화와 몸판의 섬세한 고무뜨기와 네크라인 부분의 배색부분과 소매 배색 부분의 매끄러운 양면조직을 조화시켰고, 특히 양면조직으로 된 네크 라인을 강조된 선이 모던한 이미지를 주는데 큰 효과를 주는 작품이다.

<그림 139>는 즌 투아(Zng Toi)가 2001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아란 무늬의 요철감있는 표면효과를 살린 앙상블 스타일로 전형적인 트레이디셔널 체크 무늬 스커트와 매치하였다. 기복이나 양감이 있는 교차뜨기(케이블조직, cable stitch)조직과 아란무늬<sup>139)</sup>, 피셔맨(fisherman) 조직<sup>140)</sup>등이 이러한 스타일에 자주 등장한

---

139) 아란 니트(aran knit) : 아란(aran)은 원래 아일랜드의 대서양 안(岸)에 위치한 고르웨이만

다.

<그림 140>은 2000년 F/W 레 코팽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일반적인 2×2, 3×3 교차뜨기의 개념을 벗어나 최대한 변화를 준 교차뜨기 한 개의 단위가 앞몸판에 차지하도록 디자인하였다. 한 개의 교차뜨기를 이중으로 엮어지도록 하고 톤의 차이를 둔 2색의 배색을 하여 더욱 입체적으로 장식한 스웨터이다. 소매 위에도 배색된 가는 폭의 교차뜨기를 하여 전체적으로 일체감을 주었다. 또한 태 번수의 원사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나타난 케이블 밑 부분의 안뜨기 조직은 자칫 무겁게 보이는 스웨터 전반에 독특한 질감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림 141>은 2000년 F/W 레 코팽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엇갈린 문양을 위헤 트랜스퍼(transfer)와 랙킹(racking)시 간격을 두지 않고 방향을 동일하게 디자인 하여 물결문양이 나타나게 하였다. 또한 자이언트 케이블(giant cable)을 비대칭으로 사선으로 나타나게 하여 평평한 걸뜨기와 대비를 이루게 하였다.

<그림 142>는 라우라 비아조티가 2005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무봉제 니트로 만든 케이블 조직을 앞중심에 입체적으로 표현하며 장식한 디자인이다.

<그림 143>은 마크 제이콥스가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케이블 변화조직인 심플 모크 케이블(simple mock cable)조직으로 어깨부분을 좁게 하고 단추로 장식하였고 소매산에 잔주름을 넣어 풍성하게 나타냈고 허리에는 리본 장식을 벨벳으로 배색하여 1930년대 풍의 페미닌한 이미지의 스웨터를 선보였다.

<그림 144>는 안젤라 미소니(Angela Missoni)가 1997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끌어올림 무늬뜨기로 레이스와 같은 표면효과를 주면서 가장자리를 보색으로 배색 처리한 빈티지풍의 니트 드레스이다.

<그림 145>는 소니아 리켈이 2001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몸판 전체에 무늬뜨기를 하여 요철감을 주었으며 니트로 된 커다란 코르사주(141)를 장식하여 변

---

입구에 있는 섬이다. 무늬는 아란섬 특유의 전통적인 것에 의해 구성되어 있어 하나같이 똑같은 것이 없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아란 무늬는 밧줄(cable), 지그재그, 다이아몬드, 갈매기, 벌집모양(honey comb), 바구니(basket), 격자(trellis), 포도(cluster), 생명의 나무 등 다양하다.

135) 피셔맨 니트(fisherman knit) : 원래는 한랭지방에서 생활하는 피셔맨(어부)을 위한 니트로, 북부 스칸디나비아 아를 발상지로 하여 북해의 섬들이나 아일랜드의 북대서양 상에 있는 아란섬 등 여러 곳에서 만들어져 온 것을 총합해서 '피셔맨 스웨터'라든가 '피셔맨 니트'라고 일컫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피셔맨 스웨터는 타운 캐주얼로써 일반적으로 게이지가 거친 것을 중심으로 한 무지 입체무늬의 스웨터를 일컫을 때가 많다.

화를 주고 있다.

<그림 146>는 유키 토리가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가는 모헤어 소재로 전체적으로 레이스 뜨기를 하여 투명하게 비치는 효과를 주었고 과장된 듯한 커다란 리본 장식으로 더욱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니트웨어이다.

<그림 147>은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가 1998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오픈워크 비침 레이스 뜨기로 섬세하게 처리된 니트 드레스이다.

<그림 148>은 마크 제이콥스가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몸판을 장식하는 전체적인 섬세한 레이스뜨기와 목선처리의 술장식, 소매단과 허리단의 곡선을 내도록 고안된 레이스 조직이 조화를 이루면서 허리를 장식한 벨벳 리본이 복고풍의 여성스러움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림 149>는 마크 제이콥스가 2005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3가지 색상으로 변화있게 간격을 주어 배색한 겹뜨기의 스트라이프 몸판에 어깨 요크와 소매 안쪽 부분, 소매단에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색상을 장식하여 색다른 효과를 주었다.

<그림 150>은 미소니가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동적인 느낌의 방향성을 준 멀티 스트라이프 배색의 자카드 조직이며, 스트라이프 무늬를 변화시켜 토탈적으로 코디함으로서 변화를 주었다.

<그림 151>은 드리스 반 노튼(Dris Van Noten)이 2003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무늬에 따라 정해진 편침에 공급되는 편사를 여러 가지 색사로 변화를 준 자카드 조직으로 2가지 색상으로 배색된 머플러로 머플러 밑단에 또 다른 색상으로 변화를 주어 상체에 걸치는 방법에 따라 더욱 다양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그림 152>는 베티 잭슨이 2004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2가지 배색 자카드의 머플러로서 상체에 다양한 실루엣과 이미지를 나타내게 출할 수 있다. 단부분의 또 다른 면분할된 색상 배합은 더욱 개성있는 연출을 위해 효과적이다.

<그림 153>은 베티 잭슨이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몸판에 촘촘하게 메워진 단순한 기하학적 자카드 문양으로 나타내었고 앞 몸판은 이등분하여 색상을 반대로 표현하였고 의상을 찌그러뜨려 비대칭으로 나타내어 디자인의 변화를 주었다.

<그림 154>는 후세인 칼라얀이 1998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바디 한쪽을 마치 패치워크를 한 듯한 여러 무채색을 사용하여 자카드 조직으로 배색함으로써

---

141) 코르사주(corsage) : 중세 때의 상체를 조이기 위한 코르셋 또는 가슴이나 어깨에 다는 꽃뭉음을 말한다.

변화를 주었다.

<그림 155>는 프링글(Pringle)이 2004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인타샤 조직을 사용하여 전형적인 다이아몬드 모양의 아가일 패턴을 몸판 전체에 나타내었고 소매의 변형으로 새로운 요소를 주고 있다.

<그림 156>은 소니아 리켈이 2000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마치 패치워크한 것같이 몸판 전체에 인타샤 조직<sup>142)</sup>을 사용하여 컬러풀하게 몸판 앞쪽을 배색하고 스팅클 장식을 아플리케 처리하여 더욱 화려함을 더해 주고 있다.

<그림 157>은 베티 잭슨이 2004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앞, 뒤, 몸판은 선으로 구분하여 인타샤로 먼 분할된 색채감을 조화시켰고 소매는 스트라이프 배색으로 변화를 주어 더욱 고급스러운 감각을 살렸다. 검은 색 배색의 네크 라인과 소매끝선으로 모던한 감각을 강조하였다.

<그림 158>은 베티 잭슨이 2004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한쪽 어깨와 가슴부분을 원모양으로 단순화시킨 인타샤로 배색한 캐시미어 소재의 고급스러운 니트웨어이다. 어깨와 소매부분을 이어지는 부분을 정교하게 인타샤로 배색하여 디자인의 포인트를 주었다. 다양한 원모양의 인타샤 무늬로 선으로 만들어진 원, 메꾸진 원 등을 색상변화로써 나타내어 전체적으로는 심플하나 세련되고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159>는 2003년 S/S TSE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신체의 조형미를 컴퓨터 기계뜨기로 레이스 문양을 기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조직에 의한 표현 기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편기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원사의 특성과 패션 이미지에 부합되는 다양하고 보다 더 새로운 니트 조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는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유행에 따른 고부가가치의 니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또한 과거의 니트웨어 디자인의 시대변천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정한 시대에 하나의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어온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동 시즌에 다양한 이미지에 맞는 조직이 활발히 개발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142) 인타샤 조직(intarsia stitch) : 선염사를 사용하여 모자이크식으로 무늬를 내고 다른 실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아가일 무늬(argyle design)나 기타 자유로운 무늬를 패널식으로 표현한다.

인타샤 조직은 평짜기식의 것이 많지만 리브짜기식의 것이나 펠짜기식의 것도 있다. 실제로 인레이(inlay)되는 것 같아 보이는 방법으로 다른 색으로 된 실을 사용하여 단색의 편성포에 삽입 편성된 모티브나 장식이다.

### 3) 소재

현대 니트웨어에 나타난 니트 소재는 예전부터 많이 쓰여온 면사나 울을 중심으로 하는 천연소재 외에도 그 위에 레이온(rayon), 비스코오스(viscose), 폴리에스테르(polyester), 루렉스(lurex) 등을 합사한 다양한 합사(合絲)타입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독특한 니트웨어의 제작을 위한 극도의 세번수나 태번수 타입과 여러 종류의 원사들을 합사하거나 가공을 하여 새로운 느낌을 준 원사 등이 개발되고 있다.

염색 가공과 원사 개발의 기술력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텍스처를 위한 장식사의 개발은 현대 니트웨어의 디자인을 더욱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한편 캐주얼하고 몸에 꼭 맞는 니트웨어나 조직의 표면효과를 주기 위한 스팬텍스의 합사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160>은 도나 카란이 2003년 *F/W* DKNY 컬렉션에 발표한 작품으로 가늘고 섬세하게 기모를 내는 동시에 촉감이 부드럽고 가벼운 모헤어 소재의 특성을 잘 살린 니트웨어이다. 연한 파스텔 색상의 부드러운 소재의 촉감을 잘 살려 교차뜨기와 뒤에 장식한 넓은 칼라로서 포인트를 주었다.

<그림 161>은 돌체 앤 가바나가 2001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검정과 레드 색상의 태번수 울을 합사하여 편직하여 트위드 효과를 나타낸 니트웨어이다. 깊게 파여진 브이 넥의 빅 사이즈의 스웨터와 함께 코오디네이트된 모자, 머플러는 소재에서의 색상변화를 시킨 특성을 살려 심플하게 표현되었다.

<그림 162>는 안나 수이가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굵은 슬러브얀으로 만든 니트 재킷으로 가장자리를 보색의 실로 버튼홀 스티치로 처리하여 마무리한 니트웨어이다. 코르사주 장식과 가는 니트 벨트로 리본을 매어주어 전체적으로 페미닌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163>은 안나 수이가 1998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레드, 핑크, 파랑의 굵은 셔닐사를 합사하여 색상이 어긋나게 거친 느낌이 들도록 걸뜨기로 편직하였다. 소매단, 어깨요크, 단처리를 다른 색상으로 배색된 실로 포인트를 주었다. 모자는 여러 가지 원사를 함께 섞어 땅아서 머리카락 형태로 만들었다.

<그림 164>는 안나 수이가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거친 느낌이 드는 스페이스 다이드얀으로 만든 재킷으로 여러 색상이 장식된 테이프로 가장자리를

장식하여 마무리하였고 코르사주로 여성스럽게 장식하였다.

<그림 165>는 라우라 비아조티가 2004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캐주얼풍 니트에 많이 사용되는 면소재의 니트웨어로서 크게 확대시킨 5×5 교차뜨기를 앞 중심과 양 어깨, 소매 중심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조직의 양감을 나타내었다.

<그림 166>은 켈빈 클라인(Calvin Klein)이 2005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가는 실버 색상의 금속사의 무봉제 니트로 만든 니트웨어이다. 얇은 실버색상의 메탈릭사로 만든 안에 반쳐입은 탑과 특수 가공소재의 스커트와 매치시켜 심플한 실루엣을 연출하였다.

<그림 167>은 베티 잭슨이 2001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촉촉하게 젖은 듯한 금속 효과의 코팅 처리를 하여 전체적으로 은은한 광택감을 주었고 자연스럽게 섬세한 펀치카 문양으로 편직되어졌다.

밑에 반쳐입은 니트 스커트는 섬세한 주름을 기계뜨기로 제작하였고 양면조직에 앞·뒤로 코를 빼줌으로써 영구적인 주름을 만들어 주었다.

<그림 168>은 코지 타츠노(Koji Tatsuno)가 1996년 F/W에 발표한 코팅된 니트 작품이다. 라텍스로 코팅한 니트 작품으로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스웨터이나 움직임에 따라 빛을 반사하면서 니팅의 도드라진 부분위의 라텍스의 적용에 의해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리브 조직의 변화조직인 갈짓자 무늬 장식(chvron)은 바디의 곡선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그림 169>는 잇세이 미야게가 2000년 F/W에 발표한 플리즈 플리즈(Pleats Please)작품이다. 1989년부터 개발된 이 라인은 단순한 컬러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술적인 개발로 변화를 주어왔다. 이 작품은 오버 프린팅 된 것으로 아란 니트의 이미지를 살려 디자인되어졌다.

<그림 170>은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Maison Martin Margiela)가 1996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니트 위에 오버 프린팅을 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그림 171>은 마야 브람웰(Maya Bramwell)이 1999년 “리틀 걸(Little Girl)”컬렉션에서 발표한 것으로 옷 구조의 비전통적인 방법과 섬유 꼴라주를 만드는 커다란 넌 우븐(non woven) 심을 넣은 것으로 커다란 규모의 손뜨기 위에 본드(bond)로 처리한 실험적인 소재이다. 컬 업(curl-up)된 가장자리와 옆선의 디테일이 조화를 이룬다.

<그림 172>는 이벤 호지(Iben Høj)가 1997년에 만든 작품으로 나일론 모노 필

라멘트와 비스코스 안이 섞인 기계로 짠 니트이다. 데보레(devoré)기법의 테크닉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칠해졌고 비스코스는 녹고 부조 안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남기고 비치는 결과가 된다. 이 디자인은 바다의 경치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고 니팅 후에 침염법에 의해 염색되어졌다.

현대 니트웨어에 나타난 소재에 의한 표현방법은 크게는 기술력과 결합한 하이테크놀로지의 기능을 갖춘 신소재와 감성을 살린 고감도의 장식소재로 구분되어 표현되어진다.

특히 신소재의 출현으로 새로운 기능을 갖는 섬유로 제작된 새로운 패션이 나타나고 기술과 패션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와 기능의 패션이 등장하고 있다.

#### 4) 장식 기법

최근의 현대 니트 패션에서의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그동안 미술의상에서 주로 추구해오던 자유스러운 개성 표현을 위한 소재의 개발을 위해 재료의 범위가 넓어지고, 니트 조직위에 섬유공예의 타 기법을 장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니트만의 독특한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나아가 니트 조직만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른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 경향은 럭셔리와 공예적인 이미지가 강조되면서 소재의 키워드는 ‘크라프트(craft)’로서 자수, 아플리케, 핸드 스티치, 비즈, 시퀸, 리본 장식 등의 다양한 수공예 기법이 디테일로 사용되고 있다.

컬렉션에 주로 나타난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장식 기법으로는 공예적 기법의 혼합적 표현 기법과 장식적 표현 기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 (1) 공예적 기법의 혼합적 표현 기법

공예적 기법의 혼합적 표현 기법은 펠트(felt)<sup>143</sup>, 퀼트(quilt)<sup>144</sup>, 아플리케(applique)<sup>145</sup>, 패치워크(patchwork, motif)<sup>146</sup>, 고리뜨기, 엮기(weaving) 등의 공

143) 펠트(felt): 양모 또는 양모와 다른 섬유와의 혼합 섬유를 가운 압축 하에서 문질러 양모의 축융성에 의해 섬유가 얽혀서 된 피륙을 말한다. 펠트는 실을 거치지 않고 섬유의 얇은 층을 축융하여 만든 것이므로 표면에 실로 이루어지는 표면 결이 없고 압축에 대한 탄력성은 있으나 인장과 마찰에는 대단히 약하다.

144) 퀼트(quilt): 두 직물 사이에 솜이나 우레탄 폼 등을 물리적으로 삽입하고 누벼서 만드는 것으로, 이들 세 겹의 천은 보통 대각무늬로 봉합하는 방식으로 겹쳐진다.

예적인 기법을 니트와 혼합하여 개성있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예적 기법의 혼합적 표현 기법들은 과거 히피 스타일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는데, 기계작업에 의해 대량 생산된 니트웨어보다 더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니트웨어 제작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 중 패치워크를 이용한 니트에서의 표현 기법에서는 그런지 스타일의 여러 가지 무늬의 니트 패브릭과 서로 다른 조직의 니트 패브릭을 불규칙적으로 이용하여 히피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펠트는 니트 조직이나 직조된 천을 바탕으로 하여 제조되어지거나 푸석푸석한 섬유로 직접 제조되었으며, 현대에 와서 섬유예술의 기법으로서 자유로운 두께와 색상으로 훌륭한 섬유예술 작품의 매개물이 되었다. 이처럼 조직이 없는 섬유로 된 펠트와 실로 된 고리들이 연결되어 구성된 니트 조직의 서로 다른 질감효과에 따라 신축성이 큰 니트와 비교적 견고하지만 유연성을 내재한 펠트의 결합으로 미묘한 미적 효과를 창출한다.

<그림 173>은 리사 잔센(Lisa Jansen)이 1998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니트드 실 크 매쉬 캐시미어와 양고라 섬유, 화인 쉬폰으로 펠트하여 자연스러운 소재감을 연출하여 새로운 표현 기법을 나타내었다.

<그림 174>는 크리지아(Krizia)가 2003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여러 색상의 꽃 모티브의 조각을 아플리케하였고 소매 끝을 올을 풀어 프린징 장식을 하여 더욱 로맨틱하고 장식적인 표현 효과를 살렸다.

<그림 175>는 웅가로(Ungaro)가 2000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캐시미어 소재의 라운드 네크라인의 폴오버로서 앞판에 레이스 소재의 나비 모양으로 아플리케한 후에 비즈로 장식하여 더욱 여성미를 나타내었다.

패치워크를 이용한 니트에서의 표현 기법에서는 그런지 스타일의 여러 가지 무늬의 니트 패브릭과 서로 다른 조직의 니트 패브릭을 불규칙적으로 이용하여 히피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76>은 2002년 F/W 레 코팽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모 소재를 기

145) 아플리케(appliqué): 아플리케 워크 또는 아플리케 엠브로이더리라고도 한다. 아플리케는 '붙이다'는 의미로, 아플리케 자수는 바탕천위에 다른 작은 천을 스티치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두 장의 천을 중첩시켜 도안 주위를 사뜨기한 후 윤곽을 잘라내어 바탕천의 뒤에서부터 바느질하는 방법을 말한다.

146) 패치워크(patchwork): 여러 가지 형질을 모아 구성하는 것으로 면분할과 배색이 중요하며, 일종의 조각보 형식의 자수를 말한다. 입체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속에 솜이나 스펀지를 넣고 누빈다. 재활용 정신과 섬세함이 표현되어 있으며, 프린트의 무늬로도 이용된다.

모시케 만든 베스트는 앞판을 여러 개의 단위로 나누어 다양한 조직을 패치워크 하고 이어 붙인 부분을 손자수로 거칠게 장식하고 가슴부분에 기모 원사를 이용한 덧자수를 놓아 어두운 색상과 패치워크의 그린지한 이미지를 보다 자연스럽고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블라우스 소매위로 스트라이프 배색의 룽 기장의 니트 장갑과 허리선에 걸쳐진 코바늘뜨기의 벨트로서 토탈 코오디네이트하여 전체적으로 세련된 에콜로지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177>은 2002년 F/W 레 코팽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고무뜨기의 과장된 터틀넥과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소매, 교차뜨기와 고무뜨기, 엠보시드 스티치(embossed stitch) 등 다양한 조직을 패치워크하고 자수로 장식하여 전체적으로 몸판과 소매 전체가 패치워크 되어 자연주의풍 디자인이다.

<그림 178>은 스톨사가 2003년 S/S에 제작한 무봉제 니트 제품으로 개발된 의상으로 허리선을 날카롭게 사선으로 슬래쉬하여 심플한 실루엣에 조직의 포인트를 살렸다. 한쪽 어깨선의 비대칭 디자인과 잘 매치되면서 인체의 움직임과 동시에 나타나는 선의 확장으로 인한 조형성을 보여준다.

<그림 179>는 요이치 나가사와가 2005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흑백의 니트로 짠 테이프를 이용하여 미래적인 스포츠룩을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이다. 안에 입은 탑(top)의 실루엣에 따른 선을 이용한 니트 디자인에서 상체의 밑부분에 늘어뜨려진 니트 테이프들의 드레이프된 모양이 슬래쉬 효과를 준다.

<그림 180>은 미소니가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전체적으로는 미소니 특유의 에스닉한 문양으로 편직하고 칼라, 소매 커프스 뿐만 아니라 몸판에 단계별로 배색효과의 고리뜨기를 장식하여 모피효과를 주었다.

<그림 181>은 아가타 루이즈 드 라 프라다(Agatha Ruiz de la Prada)가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니트웨어 가장자리에 고리뜨기를 이용하여 풍성하면서도 입체적으로 장식되어져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 나타난 엮기(weaving) 기법은 실이 위·아래로 교차되거나 지나가는 구조로서 실과 실을 연결, 삼입, 교차시켜 장식하여 전체적으로 입체감과 공간성을 형성하게 하며, 이는 손뜨기 또는 기계뜨기로 만든다.

<그림 182>는 라우라 비아조티가 2001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하나의 실을 엮어 짜 어깨에서 허리까지 연결시켜 수직적으로 몸판 전체에 운동감을 주었으며 그 위에 스톤 장식을 달아주어 더욱 화려함을 살렸다.

<그림 183>은 베티 잭슨이 2003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부피감이 있는 모소재로서 소매는 양면뜨기로 편직하고 터틀넥은 2×2 고무뜨기로 처리하고 앞, 뒤, 몸판에 두꺼운 원사로 테이프를 짜내어 이를 서로 엮기로서 사선 처리하여 조직감을 주었다. 햄 라인을 원사 그대로를 살려 술의 기장에 변화를 주어 길게 늘어뜨림으로서 변화를 준 니트 원피스 드레스이다.

이처럼 타 기법들과 쉽게 조화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니트 조직 위에 펠트, 퀴트, 아플리케, 패치워크 등의 공예적 기법의 혼합적 표현 기법 등을 상호 보완하여 다각적으로 조합시킴으로써 독창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장식적이고 복합적인 표현 기법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 (2) 장식적 표현 기법

장식적 표현 기법은 비즈(beads)<sup>147)</sup>, 스팅글(spangle)<sup>148)</sup>, 시퀸(sequin)<sup>149)</sup>, 스톤(stone), 자수(embroidery), 리본(ribbon), 프린트(print), 콜라주(collage)<sup>150)</sup>, 프링징(fringing)<sup>151)</sup> 등의 장식적 기법을 니트에 장식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자수를 장식한 니트웨어 디자인에서는 니트 조직 위에 섬세한 자수 기법을 의상 전체에 놓거나 원 포인트(one point)로 장식하여 자카드와는 다른 입체적이고 수공예적인 새로운 질감의 표현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유행하는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 화려하고 장식적인 요소를 주는 목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표현 기법 중의 하나는 비즈의 장식을 들 수 있다.

<그림 185>는 파코라반이 2004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비즈로

147) 비즈(beads): 옷감에 자수하거나 옷감과 같이 짜거나 하여 복식에 이용한다. 유리체의 둥근 비즈, 금속, 셀룰로이드계의 둥근 모양, 대롱 모양의 비즈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형, 재질, 색을 옷에 맞추어 도안에 따라 실로 한 개씩 꿰매어 붙이는데 주로 스팅글과 같이 이브닝 드레스 장식에 이용된다.

148) 스팅글(spangle) : 금속 또는 합성수지로 만든 얇은 조각으로, 둥글거나 꽃모양이나 조개모양으로 된 구슬 종류이다. 광택 효과가 있어 이브닝 드레스, 블라우스, 스웨터 등을 장식하는데 이용된다.

149) 시퀸(sequeen) : 의복 따위에 꿰매 다는 원형의 장식용 금속판으로,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 보인다.

150) 콜라주(collage): 프랑스어로 '풀로 붙이다. 물건을 붙여서 붙이다'라는 의미로 패션에서는 의복에 표정을 줄 목적으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붙인 디자인을 의미한다.

151) 프링징(fringing) : 실을 사용하는 프링징과 직물의 울을 풀어서 하는 프링징이 있다. 숄, 스카프의 가장자리를 장식하는데 많이 이용된다.

장식하여 입체감을 주는 동시에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준다.

<그림 186>은 라우라 비아조티가 2001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교차무늬 사이에 비즈를 달아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미래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87>은 라우라 비아조티가 2004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다양한 파스텔 색상의 스트라이프 배색 위에 스톤을 가로로 나열하여 장식한 작품이다. 니트 탑과 가디건의 앙상블로서 가디건을 목에 머플러 형식으로 묶어둠으로서 변화를 주고 있다.

<그림 188>은 도나 카란이 2004년 F/W DKNY 컬렉션에서 발표한 작품으로 홀터 넥의 니트 탑으로 집중적으로 스팅글을 앞 몸판 전체에 달아 장식하여 니트 의상에 새로운 표면 질감을 부여하였고 섹시함과 화려함을 주었다.

<그림 189>는 웅가로가 2000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기모 소재의 니트로 만든 쇼울 칼라의 가디건이다. 골드 색상의 시퀸을 칼라 부분과 밑단으로부터 점차 비중을 두고 전체적으로 장식하여 새로운 질감을 만들었다. 골드 색상의 메탈릭사를 스커트 위에 늘어뜨림으로서 고급스럽고 환상적인 장식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90>은 줄리안 맥도날드가 1999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금속사의 레이스 조직으로 섬세함을 더해주면서 시퀸의 금속조각으로 비대칭적으로 몸매를 따라 유연하게 흐르는 선을 장식하여 화려함을 더하였다.

<그림 191>은 소니아 리켈이 2002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심플한 스웨터 위에 전체적으로 크기가 다른 스팅글(spangle)을 달아 장식하여 율동미와 변화미를 주고 있다.

<그림 192>는 요이치 나가사와가 2005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여러 색감이 표현되는 장식사를 스트라이프 무늬로 겹뜨기로 제작한 후에 여러 색상의 시퀸으로 스트라이프를 따라 장식해줌으로서 단일 색상에 시퀸을 장식하는 것보다 더욱 화려한 감각을 나타내주었다.

<그림 193>은 줄리안 맥도날드가 1999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거친 질감의 넵얀(nep yarn)으로 텍스처를 살렸고 니트 끝 부분에 길게 늘어뜨린 프린징을 이용하여 율동감을 주었고 더욱 풍성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194>는 요이치 나가사와가 2005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흑백의 니트로 짠 테이프를 이용하여 인체의 실루엣에 따른 선을 이용한 니트 디자인에서 상

체의 밑부분에 늘어뜨려진 니트 테이프들이 프린징의 효과를 준다. 가슴 중앙에 선으로 분할하여 노트(knotting)하여 포인트를 준 작품이다.

한편 독특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니트웨어는 다양한 실을 소재로 선택하여 표현하는 동일 소재에 의한 꼴라주, 또는 이질 소재인 비즈나 가죽, 금속재료 등을 니트에 같이 꼴라주하여 입체감있게 나타난다.

꼴라주 장식 기법을 사용한 현대니트웨어 디자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서로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이외의 소재를 왜곡되게 사용함으로써 전위적이고 풍부한 표현성을 전달해 주며 새롭고 실험적인 소재의 도입으로 의외성과 부조화를 유발시키는 동시에 유희적인 일면도 지니는 일종의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그림 195>는 소니아 리켈이 1999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입술 모양의 꼴라주를 니트 의상에 매치하여 유희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196>은 요이치 나가사와가 2003년 S/S에 발표한 작품으로 불규칙적인 니트 조직 위에 광택감이 있는 동그란 단추형의 꼴라주를 밀집시켜 장식시킴으로써 강렬한 이미지를 준다. 라운드 넥의 가디건 앞부분에 마치 목걸이가 엉클어진 것 같은 모양으로 진주알같은 은은한 광택감의 꼴라주를 나열시켜 장식한 니트웨어이다.

<그림 197>은 페이크 런던이 2003년 F/W에 발표한 내용으로 같은 재질감인 원사로 꼴라주하여 장식하였다.

<그림 198>은 구찌(Gucci)가 2002년 F/W 모피와 리본을 세로로 끼워 넣어 함께 손뜨기로 편직하여 재질의 차이에서 나오는 특징을 살려 편안하면서도 풍성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199>는 도나 카란이 2002년 F/W DKNY 컬렉션에 발표한 내용으로 기본 라운드 넥의 검은 색상의 가디건으로 앞부분 양쪽에 대비되는 흰색의 자수로 장식하고 허리 부분의 흰색 벨트와 조화를 이루며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200>은 2001년 F/W 레 코팽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안이 드러나는 시스루 감각의 섬세한 겹뜨기 조직위에 몸판과 소매 전체에 걸쳐 이질감이 나지 않도록 기모가 난 니트 원사로서 자수 처리하여 장식하였다. 자수 장식의 위치 배열이 신체의 부위를 장식하거나 가리는 효과를 주면서 디자인 요소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넓은 리브단의 허리단과 소매단이 자수로 표현된 여성적인 분

위기를 잘 살려주고 있다.

<그림 201>은 페이크 런던이 2003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특수한 원사를 덧대어 자수를 놓아 마치 조직처럼 느껴지도록 한 자수 장식기법으로 같은 기법의 모자, 가방과 함께 토탈적으로 연출하였다.

<그림 202>는 돌체 앤 가바나가 2002년 F/W에 발표한 작품으로 니트로 편직 한 후 코바늘뜨기로 조각으로 자수 처리하여 그것을 니트 기본 탑 위에 덧대어 아플리게 장식한 니트웨어로 브라운, 흰색, 검정이 자유롭게 나열되어 보헤미안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길게 늘어뜨린 고무뜨기의 프린징 장식의 머플러를 목에 감아주어 코디시켰다.

<그림 203>은 2002년 F/W 레 코팽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코바늘뜨기로 제작한 에콜로지풍의 프린징 장식의 니트웨어이다. 가슴 위는 섬세하게 리듬감을 주면서 코바늘뜨기로 선을 만들어주었고 가슴에서 허리선까지의 검정과 베이지의 두색상의 조화를 준 프린징 장식은 코바늘뜨기를 이용하여 끝부분은 나뭇잎 문양을 모티브로 하였고 프린징 장식이 끝나는 선을 불규칙적으로 처리하여 허리부분을 자연스럽게 울동감있게 장식하였다.

현대 니트웨어에서의 장식 기법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직물 이외에도 이질적인 재료인 스펅글, 비즈, 가죽, 털, 단추, 비닐, 플라스틱, 금속류 등을 이용하여 의상에 기능적인 역할 뿐만이 아니라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독특한 이미지를 부여해 준다.

또한 매우 다양한 표현력과 풍부한 창조성으로 의상에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해 주며 보는 이로 하여금 환상적인 연상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효과도 창출해 낸다.

이상과 같이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은 대바늘뜨기, 코바늘뜨기, 기계뜨기 등의 뜨기 기법과 조직, 배색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표현 기법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이를 함께 장식하여 표현함으로써 더욱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으며 독특한 표면 효과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표 8>은 위에서 살펴본 현대 니트웨어 표현 기법을 분석한 내용이다.

## VI. 결 론

현대 니트 패션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과학의 발달에 따른 기술력의 발달에 힘입어 더욱 기능적이고 패셔너블해지는 가운데 다양한 테크닉을 보이며 토탈화, 예술화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니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1995년 이후 컬렉션에 나타난 현대 니트웨어의 대표적인 디자인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나타난 표현양식과 표현 기법을 세부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은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각 시대별 사회·문화 배경과 복식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도입기(1920년대), 보급기(1930년대~1950년대), 발전기(1960년대~1980년대), 성숙기(1990년대 이후~현대)로 구분되어 발전되어졌다.

1920년대는 기능주의의 영향과 스포츠의 대중화에 힘입어 기능성과 활동성을 준 니트웨어가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디자이너 샤넬은 니트가 패션으로서 대중화되도록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뜨개질용 털실의 배급으로 손뜨개가 성행하였고, 1940년대 이후 미국의 대중문화와 경제의 발달에 힘입어 코오디네이트 감각의 니트의 대량 생산이 가속화되었다. 1950년대에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여 미르샤, 미소니, 베네통, 스테파넬 등 니트웨어 디자이너들이 본격적인 활약을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60년대는 캐주얼웨어와 유니섹스 룩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니트웨어 디자인이 인조섬유의 발명, 가공법의 발달과 편직 기계의 자동화에 힘입어 니트 산업은 더욱 발달되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는 미술의상 작가들에 의한 니트 기법을 이용한 창조적인 예술 의상으로서의 니트웨어들이 활발하게 선보였다.

1970년대의 여성 해방 운동과 더불어 1980년대의 에콜로지, 앤드로지너스 등의 영향을 받아 현대 니트웨어는 급변해가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부합되어 더욱 발달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과학의 발달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니트웨어 디자인의 표현 양식과 표현 기법 면에서 신기술과 더불어 자유로운 감성 추구의 수단으로 생산되어져 왔다.

둘째, 현대 니트 산업을 기술적 측면, 공예적 측면, 토탈적 측면에서의 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현황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발달한 현대 니트 기계 산업에 힘입어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 편기에 의한 독창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이 내재된 미래지향적 분야로서의 니트웨어 디자인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홀 가먼트 기술의 무봉제 니트웨어와 A-POC 제품을 들 수 있다. 무봉제 니트 제품은 봉제선이 없이 삼차원적 편성에 의한 입체적인 실루엣과 우수한 외관이 특징이며, 재단에서의 로스와 편성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기존의 편직 공정에서의 가공 공정과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한 벌의 옷에 다양한 게이지의 디자인이 가능한 인체공학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의 니트 생산을 구축하게 되었다.

A-POC 작업은 잇세이 미야에게 의해 1997년에 처음 소개된 것으로 컴퓨터로 조정되며 제작 과정에서 로스가 전혀 없고 최소로 재단, 봉제되며 후가공이 없는 과정으로 실험적인 디자인에 의해 새로운 형태를 나타낸다. 이 A-POC의 개념은 21세기의 미래 패션을 위한 혁신적인 생산에 의해 실현될 전망이다.

한편 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신소재의 개발은 부드럽고 세련된 극세 마이크로 섬유 등의 신소재 외에도 높은 신장력과 내구성, 벌키성과 수분 흡수력을 가진 하이테크 섬유의 개발로 더욱 고급화되고 있다.

스트레치안, 메탈릭안, 스페이스 다이드안 또는 독특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식사 등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현대 니트 산업에서의 실용성과 가능성을 갖춘 신소재의 개발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공예적 측면에서의 현황은 니트의 특수한 질감을 살린 소재의 변화, 주제의 다양성, 표현기법에 따른 효과를 매체로 하여 예술적 요소를 추구되고 있다.

이에 현대 니트웨어는 소재의 다양성을 위해 일반적인 원사 이외에도 와이어, 코드, 리본, 밴드, 테이프, 플라스틱, 깃털, 가죽, 인조피혁 등을 응용하거나 실의 굵기와 모양 등을 변형하고 염색을 하여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또한 주제의 다양성과 함께 팝아트나 초현실주의 등 예술 사조를 응용하거나 일반적인 조직과 손뜨기, 기계뜨기 외에 여러 기법을 혼합하고 풀라주나 오브제의 도입, 프린팅, 과도한 장식 효과를 살린 다양한 표현 기법이 사용되었다.

토탈적 측면에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니트웨어 디자인의 아웃웨어화와 토탈 패

선화에 따른 다양한 품목의 감각적인 니트류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니트만의 포근하고 소박한 심미적인 특징에 힘입어 고도의 기술력과 창의적인 감각을 중시하는 니트를 응용한 인테리어 소품에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실용적인 면과 심미적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살린 독특하고 개성적인 현대 니트 패션의 토탈화 경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현대 니트 패션 이미지에 따른 표현 양식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역사주의, 복고, 다민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에 의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아 캐주얼, 에콜로지, 에스닉, 레트로, 테크놀로지, 해체주의로 크게 분류되어져 저마다의 독창적인 조형적 특성을 나타냈다.

스트리트 캐주얼 패션의 대중화에 힘입어 니트만의 편안함과 기능성에 기인한 캐주얼 니트웨어 스타일은 스포츠 룩, 유니섹스 룩으로 캐주얼한 감각을 강조하였다. 이는 강렬한 원색이나 스트라이프 배색이나 강한 배색선 외에도 브랜드의 로고나 숫자 등을 활용한 그래픽티, 팝아트적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에콜로지 이미지의 니트웨어 디자인은 자연주의, 원시주의 이미지로 나타났는데, 주로 자연에 대한 동경과 회귀 본능, 환경에 염두를 둔 자연 소재와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색과 인체를 구속하지 않은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였다.

특히 자연주의 이미지의 니트웨어는 기교를 배제한 자연스러운 형태와 소재와 조직 면에서도 자연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미를 강조하였고, 꽃이나 동물 등 자연적인 이미지를 손뜨기나 코바늘뜨기에 의한 수공예적 기법에 의해 표현되었다.

원시주의 이미지의 니트웨어 디자인은 순박함과 투박한 자연스러움을 선호하여 험 처리를 하지 않고, 미가공된 원사의 사용, 프린지, 슬래쉬 기법, 핸드 스티치, 형태의 과장, 변형된 디자인 등 원시적인 디테일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에스닉 이미지의 니트웨어 디자인은 다양한 문화권의 민속 복식과 상호 절충되어져 민속적인 문양이 응용되거나 패치워크, 술장식 등의 디테일과 함께 네오 히피풍이 연출되었다. 효과적인 텍스처를 위해 크로셰나 손뜨기, 민속적 문양의 자카드 조직 외에 아플리케, 플라주, 자수, 비딩, 퀼트, 펠트, 울풀기 등 다양한 장식 기법이 사용되었다.

레트로 이미지의 니트웨어 디자인은 과거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동경하는

표현 양식으로 낡고 오래된 것에 대한 애착과 향수의 표현인 빈티지와 과거의 재현으로의 노스텔직으로 나뉘어 나타났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지나간 세계에 대한 향수로 과거의 의상을 재현한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디자이너의 영감과 결합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다양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빈티지풍의 니트웨어 디자인의 표현 양식은 톤 다운된 다양한 염색이나 탈색, 수공예적인 기법 등으로 의도적으로 낡은 느낌이 나도록 표현되는 등 독특한 희소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트렌디한 감각과 자유스러운 감성을 나타냈다.

과거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노스텔직한 이미지의 니트웨어 디자인의 표현 양식은 현대의 시대감각에 맞게 재조명되어져 나타났으며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감성으로 표현되었다.

테크놀로지 이미지의 니트웨어 디자인은 편직 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은 무봉제 니트의 제작 외에도 과학적인 염색 가공기술, 신소재 개발 등으로 하이테크한 미적 표현이 시도되었고 주로 기능성을 갖춘 고도의 기술력과 심플한 실루엣으로 나타나는 미니멀한 실루엣의 미래주의적 요소가 나타났다.

이들은 우주 또는 미래에 대한 동경과 영감을 받아서 기술과 패션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와 기능의 조형미를 추구하였다.

해체주의적 이미지의 니트웨어 디자인은 노출, 파괴, 빈곤, 분해적 해체와 상호텍스트성, 탈 현상, 불확실성의 원리에 의해 나타났고, 비대칭, 불균형, 탈중심, 과장, 변형, 부조화, 위치전환, 생략의 기법을 니트웨어에 표현하여 의도적으로 기존의 형식을 거부하며 무형식성의 추의 미를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니트웨어의 형태와 구성법, 착장법을 무시하고 기능성을 해체하여 탈구성적 표현을 나타내었다. 그 외에도 엮기, 두르기, 걸치기 등의 요소들을 도입하여 복잡하게 레이어드시킨 비구조적 실루엣을 연출하였다.

이러한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서의 다양한 패러다임의 혼합 및 붕괴 현상 즉 탈장르, 탈중심 현상은 최근수년간 많이 보여지고 있다.

넷째,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서의 표현 기법은 과거보다 더욱 장식성과 심미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손뜨기와 기계뜨기를 중심으로 하는 뜨기 기법에 의한 표현기법과 니트의 다양한 조직에 의한 표현 기법, 소재에 의한 표현 기법, 자유스러운 개성 표현을 위해 다양한 공예적 기법의 혼합적 표현 기법과 장식적 표현기법의 장식기법에 의한 표현 기법으로 구분되었다.

이처럼 1995년 이후 컬렉션에 발표된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개발 방향은 고

부가가치화와 기술 집약화로 크게 구분되었다. 즉 컴퓨터를 내장한 자동 편직기의 발달과 더불어 소재의 개발에 의한 특수한 질감의 소재와 조직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현대 니트웨어의 고부가가치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디자이너들의 미적 표현감각에 따른 개성적인 니트 디자인의 창조적인 개발과 눈부신 니트 산업의 기술 집약화에 힘입어 니트에 대한 수요와 생산의 비중은 날로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은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장식적인 효과를 크게 부각시켜 디자인의 표현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독특한 표면 효과가 중요시되었다. 이는 단순히 실용적인 아이템으로서의 니트에서 탈피한 다른 패션 아이템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독창적인 표현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현대 니트웨어의 디자인의 개발 방향은 첨단 과학의 발달로 인한 하이 테크놀로지의 기초 위에 보다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아트 테크놀로지’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소비자의 니드(need)에 부합하는 더욱 세분화되고 개성적인 미래 패션의 아이템으로서의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에 최근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에 발맞추어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 나타나는 해체주의적 현상은 성, 신분, 문화의 측면에서 크로스 오버 현상으로 나타나 소재 활용의 영역이 없어지고 향후 새로운 에이지레스(ageless) 개념의 니트 디자인이 개발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 나타난 표현 양식과 표현 기법들은 일시적인 유행 현상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적 가치관과 미의식을 반영하는 하나의 복식현상으로서 21세기 미래 패션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현대 니트웨어의 표현 양식을 1995년 이후의 컬렉션에 발표된 작품만을 선정하여 분류한 것으로 이를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전반적인 것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21세기의 패션 트렌드에 부합되는 니트웨어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고, 점차 고급화, 다양화, 차별화, 개성화, 국제화 되고 있는 니트 패션에 적합한 선진국형 사업에 부합되는 아이템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의 내용을 확대하여 더욱 세분화되는 니트 패션 시장에서의 남성복, 아동복 니트웨어에 대한 디자인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니트웨어 디자인의 발전에 다소나마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대  
해본다.

## 참 고 문 헌

### < 국내편 >

- 김동욱.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서울: 청하, 1992.
- 김석근. 메리야스공학. 서울 : 문운당, 1993.
- 김정은 역. Valerie Mendes. Amy de la Haye. 20세기 패션. 서울 : 시공사, 2003.
- 디자인 트렌드, Image Book. 전경련 산업 디자인 특별 위원회, 1999.
- 라사라교육 개발원. 복식사전. 서울 : 라사라 출판, 1994.
- 박대순 역. Daisaburo Okida. 프로텍트 디자인 연구. 서울 : 산업디자인, 1995.
- 백영자 외.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경춘사, 1991.
- 서정인, 유재선. 자수기능사. 서울: 대광문화사, 2000.
- 신상욱.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수학사, 1991.
- 신정숙 외. 피복재료학. 서울: 경춘사, 2000.
- 윤길순 역. J. Anderson Black 외. 세계패션사 2. 서울 : 자작 아카데미, 1997.
- 윤길순 역. J. Anderson Black 외. 세계패션사. 서울 : 간디서원, 2005.
- 윤난지 역. Nodert Linten. 20세기의 미술. 서울 : 예경사, 1994.
- 이순홍. 편물. 서울 : 수학사. 1997.
- 정현숙 역. David Bond. 20세기 패션. 서울 : 경춘사, 2000.
-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8.
-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87.
- \_\_\_\_\_. 복식사전. 서울 : 수학사, 1995.
- 채금석 역. Maggie Pexton Murry. 패션세계입문. 서울 : 경춘사, 1997.
- 한순자 외.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 예학사, 2001.
-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패션큰사전. 서울 : 교문사, 1999.
- 飯塚信雄. 手藝の文化史. 東京 : 文化出版局, 昭和 62
- 日本 ヴォグ社. 世界編物保存版. 編物の歴史(1). 東京:ヴォグ社, 1978.
- 田中千代. 服飾辭典. 東京 : 同文書院, 1969.

< 국외편 >

- Baker, Patricia. *Fashion of A Decade : The 1970's*. London : B.T., Batsford, 1991.
- Black, Sandy. *Knitwear in Fashion*. London : Thamas & Hudson, 2002.
- Brackenbury, Terry. *Knitted Clothing Technology*. London : Blackwell Science, 1992.
- Bush, Nancy. *Knitting Ganseys*. Colorado : Interweave Press, 1993.
- Comptom, Rae. *Knitting Guide*. London : Hamlyn, 1980.
- \_\_\_\_\_. *The Illustrated Dictionary of Knitting*. London: B.T. Batsford, Ltd., 1998.
- Crane, Diana. "Postmodernism and Avant-garde : Stylistic Change in Fashion Design." *Modernity*, Volume 4. Number 3,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ale, Julie Schafler. *Art to Wear*. New York: Abbeville Press Publishers, 1986.
- \_\_\_\_\_. "Style: The Nontraditional Wearable." *Horizen Craft*, Oct., 1978.
- David J., Spencer. *Knitting Technology*. New York: Pergamon Press, 1983.
- Deyan, Sudjido. *Rei Kawakubo and Comme des Garçons*. New York : Rizzoli, 1990.
- Dyett, Linda. "Art to Wear." *American Craft*, Oct./ Nov., 1993.
- Fashion Business Society. *Terms for Knit Fabric 109 Selected Terms*. 1999.
- Ginsburg, Madeleine. *The Illustrated History of Textiles*. New York : Portland House, 1991.
- Goldberg, John. "Art to Wear Visionary." *Ornament*, Vol. 10 No. 2, 1986.
- Guagliumi, Susan Fletcher. "From Harness Sheds to Double Beds." *Fiberarts*. Nov./Dec., 1983.
- Harlow, Eve. *The Art of Knitting*. 編物の歴史. 東京 : 日本ヴォグ社, 1979.
- Harris, Jennifer. *Textiles 5,000 Years*.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 1993.
- Lorant, Tessa. *Hand and Machine Knitting*.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80.
- Lussier, Suzanne. *Art Deco Fashion*. London : V&A Publications, 2003.
- Martin, Richard. Koda, Harold. *The Historical Mode*. New York: Rizzoli, 1989.
- McDowell, Collins. *The Age of Knitting*. London : Glasgow, 1993.
- Newton, Deborah. *Designing Knitwear*. Newtown, Conn : Tounton Press, 1992.
- O'Hara, Georgina.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London : Thomas & Hudson, 1993.
- Payne, Blanch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 Harper & Row, 1965.
- Phillips, Mary Walker. *Creating Knitting A New Art Form*. Van Nostrand : Reinhild Company, 1971.
- Robinson, Debby. *The Encyclopedia of Knitting Techniques*. Pennsylvania : Rodale Press, 1987.
- Rutt, Richard. *A History of Hand Knitting*. London : B.T., Batsford, Ltd., 1987.
- Susanna E., Lewis. *A Machine Knitter's Guide to Creating Fabrics*. Asheville, New York: Lark Books, 1986.
- Thomas, Mary. *Mary Thomas Knitting Book*. New York : Dover Publication, Inc., 1938.

#### < 학위논문 >

- 강현영.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소재 동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구방희. “현대 니트웨어에 미친 미술의상의 영향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주영.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혜영. “여성 니트 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조직과 수공예적 장식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문희. “니트튜브를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세란. “미술의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유선애. “스포츠 룩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경애. “수편기 기법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경희. “현대패션 디자인에 표현된 양식과 의미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봉덕.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선명. “편물의 역사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유미.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퓨전 스타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정후.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이지윤,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의 특성과 조형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혜영. “현대미술의상에 표현된 니트 기법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조원정. “에스닉 스타일을 이용한 속옷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천지영.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최은희. “미술의상에서의 knitwork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최혜정. “21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하지수. “20세기 기능주의 패션디자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 정기간행물 >

김주영, 양숙희. “현대 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 현상(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1권 8호, 1997.

니트산업 7~8월호. 서울: 대한메리야스협동조합, 1987.

박명희. “1980년대 패션잡지에 나타난 포스터모더니즘에 관한 연구-미국 Vogue 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부설 생활과학 연구소 연구보고 제15집, 1992.

박주현. “공상영화에서 나타난 복식 이미지.” 복식 제 52권 제1호, 2000.

서재일 외. 니트 산업의 구조와 발전방향. 서울 : 한국산업연구소, 1987.

섬유연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5.

스웨터 기술 교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7.

이해주. 실용의상과 미술의상. 월간공예 3월호, 1990.

임영자, 권진. “한국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Togetherness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52권 제5호, 2002.

정삼호. “1960~1995년의 현대 패션에 관한 연구.”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제 6권 제1호, 1996.

최경희. “현대니트의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Vol. 4, No. 3, 2000.

최경희, 이순홍. “현대 니트웨어의 디자인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Vol. 3, No. 4, 1999.

한울 7~8월호. 서울경인스웨터협동조합, 2001,

카탈로그. Stoll, 2003 S/S.

Tex Herald. “21세기 라이프 스타일 스타일과 패션.” Apr. 2001.

Textile Times. “무봉제 니트 생산으로 주목받는 아이디모드.” 2003. 5.

## < 인터넷 자료 >

<http://www.firstview.com>

# ABSTRACT

## A Study on the Forms of Expression in Modern Knitwear Design for Women

- Focused on Collections after 1995 -

Kyung-Hee Choi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anks to changing life style and technological advance, modern knitted garments have increasingly been functional, fashionable, diversified, totalized and artisti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ve into the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knitted wear industry, and to shed light on the external pattern and expression technique of modern knitted wear design presented in and after the 1990s when knitted garment fashion started to be on the right track.

It's ultimately attempted to determine some of the right directions for knitted wear fashion design in pursuit of higher aesthetic value and consumer needs satisfac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In general, current knitted wear industry could be said to seek higher technology, better artistic value and totalization.

Technically, the development of Whole Garment, A-POC and new materials contributed to building a more innovative, ergonomic production system.

In the 1970s, many artists started to concentrate their attention to developing artistic materials, and they turned this area into one of art

clothing fields that covered multiple techniques and various themes.

Another major phenomenon in modern knitted wear design was totalization.

Knitted wear will play a crucial role in creating total fashion that concerns not only clothing and accessories but interior, and that will take the lead in future fashion industry.

Owing to the impact of post-modernism, modern knitted wear designers had a tendency to describe their interests in the past and tradition from diverse angles.

As people prefer casual clothes for sports or leisure activity, there were largely four types of modern knitted wear, including sports casual, retro, ecological and ethnic, technology, deconstruction, which all had unique formative characteristics.

As for expression technique, typically a tissue and color based method is still prevailing, and more liberal and unique plastic beauty is pursued by combining knitting and different techniques of fiber crafts

Decorative and aesthetic functions are more stressed than before, and a combination with other techniques of fiber craft and decorative techniques, such as beads and embroidery, became popular.

Concerning the internal significance of modern knitted wear design, there were several features in that, including borrowing from the past, technical beauty, complex beauty, artistic beauty and beauty of de-construction.

Retro look was in fashion, and given the phenomenon of borrowing vintage and nostalgic image from the past, it could be inferred that knitted wear design was being more complicated. The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and technology served to beef up the technical beauty of knitted garment.

The liberal mix-up of different techniques contributed to intensifying knitted wear's beauty of complexity and deconstruction, and that consequently became more avant-garde.

In the future, modern knitted wear will be in pursuit of 'art technology' that seeks after harmony between aesthetic and technical functions, and more unique, functional design will come out in response to diverse consumer needs.